

최분이 원장(보현행원노인요양원)
"요양원은 평생 수행처
어르신 만족해야 모두 행복"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7월 2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60호 2015년 9월 3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교과서 편찬·집필 자료 제공 바른 불교 교육위해 '잰걸음'

조계종 불교사회硏, 2차 회의… 자체 교과서 등 추진

오는 9월 20일 교육부의 교과서 개정안 확정 고시를 앞두고 교과서 집필자들을 위한 불교관련 참고자료 제공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 불교 자체 교과서 집필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목소리는 8월 27일 전법회관에서 열린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초 · 중 · 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제기됐다.

그간 연구위는 지난 7월 30일 교육부 공청회에서 공개된 윤리 교과과정 개정안에 불교관련 내용이 대폭 추가되는 쾌거를 만들어냈다. 〈본지 1056호 1면 보도〉

하지만,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불교관련 내용이 제대로 실리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는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과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 등 스님들과 김정호 명지대 교수 등 교과서 집필 관련 전문가, 김형중 동대부여중 교장, 박영동 영석고 교법사 등 교과서 집필 및 심의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종단 공신력 활용해 자료 제공

회의에서 먼저 박영동 前 교법사 단장은 "역사 · 윤리교과서 내 청원 결과가 반영됐다고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된다"며 "결국 집필자들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명지대 교수는 "현행 역사 교과내용에는 불교 내용을 충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고려불교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바로잡는 등의 목표도 있다"며 "결국 제대로 교과서가 쓰이기 위해서는 집필자에게 필요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 와 '법무부' 의 경우 각 출판사에 교과서 매뉴얼을 보내 부서 관련 내용을 직접 명시해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인원 진선여고 수석교사는 "집필 자료제공도 중요하지만, 교수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그동안 교과서 집필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필 시 유의점을 정확히 자료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집필자 마음 잡아야"
참고자료 · 매뉴얼 제공 예정
'창설형 교과서' 장기 과제
분야 소위 구성… 계획 수립
종단차원 예산 지원 이뤄져야

창설형 교과서에 주목해야

이날 회의에서는 불교계가 직접 교과서를 편찬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제시됐다. 김정호 명지대 교수는 "현행 교과내용에 없는 교과서도 '창설형 인증교과서' 제도를 활용하면 교과서 편찬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창설형 인증교과서는 일선학교 요청으로 신규과목을 창설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전경련에서 '경제' 교과서가 대표적이다. 교육부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편찬 교과서가 참고도서로 활용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를 창설형 인증교과서로 편찬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제도의 취지는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해 쓰는 것"이라며 "불교계 종립학교의 요청을 통해 종단 차원에서 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 교과서 편찬위 고위관계자는 "출판사 등에서 교과서 편찬에 평균 2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며 최하 5000만 원 가량이 소요된다. 윤리와 역사 등 기성분야는 이미 출판사들이 체계를 잡고 있기에 종단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신생과목인 '고전과 윤리' 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재 동대부여고 수석교사는 "교과서는 기본 뼈대일 뿐"이라며 "요즘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자료를 활용한다. 종단 차원에서 불교 관련 사진, 연표 등 종합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중 전문가 세미나 개최

장시간의 회의 끝에 연구위는 윤리 · 역사 · 사회의 세 분야로 소위원회를 나누고 집필자료 및 교과서 편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9월 중으로 관련 불교학자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기존 집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실제 집필에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불교의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는 불교 매뉴얼 내지는 참고도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관련 예산을 종단에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화주를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민족의화해와평화를위한종교인모임은 8월 27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선언' 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행사에서 도법 스님, 박남수 교령 등이 함께 한반도기 아래 철조망을 끊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박아름 기자

"8.25 南北 합의, 실천이 중요"

5대 종교인, 27일 남북평화통일선언 발표… 주요 종단도 환영 논평

8월 25일 남북고위급회담이 극적 타결된 가운데 한국 5대 종교인들이 모여 남북평화와 통일정책 안정화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족의화해와평화를위한종교인모임(이하 민족평화종교인모임)은 8월 27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선언' 을 발표했다. 민족평화종교인모임은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8.25공동보도문발표에 환영하며 "앞으로 남북이 상호 협력해 주체적으로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선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에 △적대관계 해소 △정책적 일관성 유지 △민간교류 허용 및 확대 등을 제안했다.

불교계 주요종단과 관련 단체들도 잇달아 8.25 합의에 대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25일 오후 논평문을 발표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8월 25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협상의 타결은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진각종(통리원장 회정)도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신성민 · 박아름 기자
〈관련 기사 및 칼럼 3, 31면〉

'과거사 정리' 사업 전담 기구 구성

조계종, 재심 논란 조치로 '종단 화합 사부대중위' 설립

6차 대중공사서 조직안 발표
출재가자 25인 내외로 구성
호계원장 9월 말까지 사퇴
37개 사찰, 재정 공개 추진

의현 스님 재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과거사 정리 기구가 윤곽을 드러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26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한 제6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지난 대중공사의 후속 대책으로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이하 사부대중위)' 의 구성 결과를 발표했다.

사부대중위는 통합종단 출범 이후 발생한 과거사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한 과거사 처리 방향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1994년 멸빈자 처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해결방안, 종단 개혁에 대한 미래지향적 계승에 대해서도 의제로 다루며,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안 마련도 책임지게 된다.

사부대중위의 활동 기한은 1년이며, 종령에 의한 독립기구로서 25인 내외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추천된 위원은 도법, 지홍, 지현, 일감, 세영, 법안, 범해, 만당, 법인, 일문, 혜조 스님등 출가자와 재가자 이기흥, 조성택, 정웅기, 홍지연, 전준호, 유지원, 윤남진, 이향민, 박재현, 변택주 등이다.

또한 지난 5차 대중공사에서 결의돼 권고된 호계원장과 재심호계위원의 사퇴도 이뤄졌다. 호계원장 자광 스님은 이날 대중공사 입재식에서 직접 나서 사퇴의 변을 밝혔다.

자광 스님은 "의현 스님의 재심 판결은 종헌 종법 안에서 이뤄진 적법한 판결"이라면서도 "호계원장으로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지만 종단 개혁에 대한 종도들의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여 사퇴의 뜻을 밝힌다. 다만 사법 공백을 최소하기 위해 사퇴 시한을 9월 말까지 정한 것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제3차 대중공사의 결의 사항인 사찰 재정 공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9월부터 재정 공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사찰은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 4등급(예산 29억) 이상 사찰이다. 37개 대상 사찰에게는 지난 7월 30일부로 공문을 시달해 종단의 방침을 전했다.

재정 공개 범위는 불사, 교구, 템플스테이, 적립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전반이다.

공개 방법은 사찰운영위원회에서 분기별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보와 법회 및 인터넷, 임회 등 자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재정 공개 미이행 사찰은 종헌 종법에 의거해서 처벌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재정공개 미이행 사찰의 주지 스님은 재임이 불가하며, 종단의 각종 승인업무가 보류되고 특별 감사가 진행된다.

공주= 신성민 기자

"화두 타파한 날이 바로 해제"

전국 100여 선원, 8월 28일 하안거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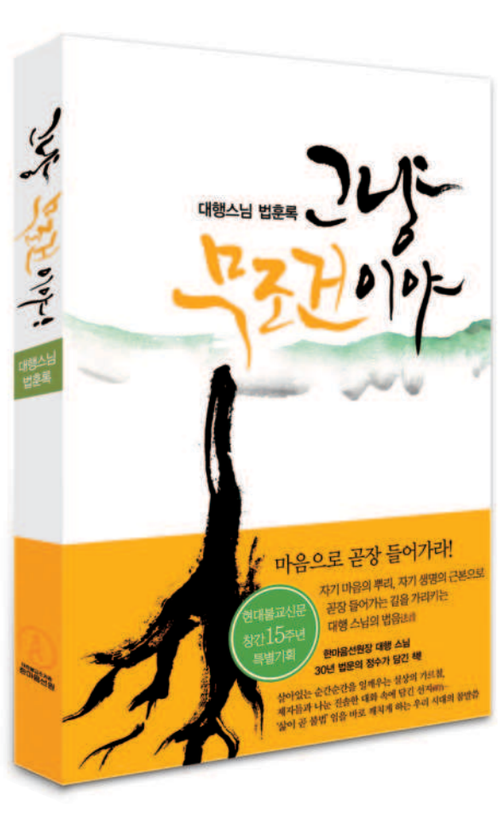
3달 기간의 하안거 정진이 마무리 됐다. 전국 사찰과 선원은 8월 28일 일제히 하안거 해제 법회를 개최했으며, 안거 기간 정진했던 수좌들은 만행을 나섰다.

전국선원수좌회가 발행한 〈을미년 하안거 선사 방함록〉에 따르면 하안거 동안 총림 8곳, 비구선원 60곳, 비구니선원 34곳 등 전국 102개 선원에서 정진한 대중은 총림 316명, 비구 1,103명, 비구니 743명 등 총 21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하안거 해제 법어에서 "진정한 해제란 화두를 타파하여 자기의 본성을 알게 될 때 천하를 횡행하는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마음을 담금질하여 대오견성의 각오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두를 타파하여 선지식께 인가 받는 날이 해제라 다짐하고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혼신의 힘으로 정지네 정진을 거듭해야 한다"고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종정 및 총림 방장 법어 8면〉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www.hyunbulshop.com

법인법 갈등, 조계종·선학원 소송 '비화'

법등 스님, 25일 기자회견… "정상화위해 소송 제기"

조계종이 (재)선학원 이사회가 변경한 법인 정관을 원상복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선학원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관 변경이 이뤄진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8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학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종지종풍 봉대 등 정관 변경
효력 무효화 위한 소송 진행
"협상 가능하다면 대화할 것"

선학원 "적법한 절차로 변경"
"예상한 수순", 기존 원칙 고수
"소송으로 삼보정재 낭비말라"

조계종이 추진하는 소송은 지난 2013년 4월 11일 선학원 이사회가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 '선학원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것을 삭제한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등 스님은 "정관에서 삭제된 조항으로 선학원의 정체성이 불투명해졌다"면서 "이로 인해 타종단 스님이나 재가자까지 선학원 이사회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는 선학원 설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선학원 측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선학원의 설립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은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대화의 창구는 열려있다. 소송보다 협상과 대화가 우위에 있다. 지금이라도 선학원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공고문을 통해 7월 31일자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권리 제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종단과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협조·동의한 선학원 분원의 창건주와 분원장, 도제에 대해서는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 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조계종의 법적 대응과 제재 조치에 대해 선학원은 '예상한 수순'이라 별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의 '정관 변경 효력 정지' 소송에 대한 대응은 공식적인 소장(訴狀)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선학원 이사 한북 스님은 "법인의 정관 변경은 고유 권한으로서 관할 관청의 보고가 이뤄지는 등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면서 "종단에서 이를 놓고 시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단의 정상화추진위원회 출범할 때도 법적 대응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다. 종단이 제기한 소송은 예상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면서 "법안 내용을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북 스님은 종헌 9조 3항 및 법인관리법 폐지 등의 기존 입장도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선학원의 공식 입장은 수 차례에 밝힌대로 변함없다"면서 "소송을 하면서 삼보정재를 낭비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종단 화합위해 징계자 사면 필요"

원로의장 밀운 스님, 24일 총무원 간담회서 강조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사진〉이 종단 화합을 위해 '정치적 징계자'의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운 스님은 8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총무원 간담회에서 사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밀운 스님은 현재까지 종단 차원의 사면은 없었고 화합을 위해서라도 사면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운 스님은 "현재까지 종단에서 정치적 징계자에 대한 사면은 없었다"면서 "현행 종헌 종법 틀 안에서는 사면을 논의하기가 어렵다. 최종적으로는 종헌 128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헌 종법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종단의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사면'을 주제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밀운 스님은 그간 종단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스님들의 사면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8월 3일 대중공사 추진위원회 스님들과의 만남에서도 밀운 스님은 "우리는 자비문중이니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과거에 억울한 분들을 구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그간 분란 참회… 수행정신 회복하겠다"

해인총림 해인사, 27일 참회 법회 개최

"총림 대중은 뼈를 깎는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진정한 총림의 구성원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참회의 참(懺)은 지나간 허물에 대한 반성이요, 회(悔)는 미래를 향한 다짐입니다. 오늘은 참회의 자리인 동시에 내일을 위한 발원의 자리, 원융살림과 육화정신으로 승가 공동체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것입니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는 8월 2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해인총림 수행정신 회복을 위한 참회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참회법회는 신임 주지 향적 스님이 임명되기 까지 겪은 내홍을 정리하고 참회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회에는 방장 원각 스님, 주지 향적 스님, 유나 관도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원철 스님, 선원장 효담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림 대중은 방장 원각 스님을 참회주로 모시고 원융 화합, 수행정진, 중생구제에 대한 원력을 새롭게 다짐 하고 해인 총림의 본래 모습을 회복 할 것을 다짐했다. 참회법회는 주지 향적 스님의 참회문 낭독과 방장 원각 스님의 유시 및 유나 관도 스님의 결의문 순으로 진행됐다.

방장 원각 스님은 유시를 통해 "방장 추대 과정과 신임 주지 추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얽히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져 해인 총림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실추됐다"면서 "오늘 총림의 대중 스님들이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또 앞으로 잘 살고자 다짐하는 참회 법회를 봉행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장·주지 선출 내홍 반성
총림 구성원 간 화합 결의
방장 스님도 참회에 동참해
총림 대중들 200여 명 참석

이어 "산승도 이 참회 법회의 참회주인 동시에 대중과 함께 불조에 참회하고자 한다"면서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과 같이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해 총림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향적 스님은 제불보살과 역대조사 및 사부대중께 올리는 참회문을 낭독하며 그간의 허물에 대해 참회하고 총림 발전을 다짐했다.



해인총림 해인사는 8월 2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해인총림 수행정신 회복을 위한 참회법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방장 원각 스님이 유시를 내리는 모습.

향적 스님은 참회문을 통해 "선현들의 은혜를 망각한 작금의 후학들은 풀과 나무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총림을 파행과 갈등의 장(場)으로 만들고 말았다"고 반성하며 "바퀴가 깨어진 수레로는 절대 먼 길을 갈 수 없다. 이제 멈춘 수레를 고쳐 다시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융살림과 육화 정신으로 승가 공동체의 본래 모습을 회복 할 것이며 총림 정신의 구현주체자로서 주어진 모든 역할에 성심껏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나 관도 스님은 결의문을 통해 총림의 수행 가풍과 명예를 지키는 일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전했다.

관도 스님은 "해인 총림은 성철·고암·혜암·법전·원각 대선사로 그 법통이 이어져왔으며 방장 벽산 원각 대선사는 총림의 최고 어른이시며 총림 대중은 그 존엄과 법에 의지 할 것"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해인총림 대중은 △불교적 가치와 율장정신, 선종의 수행가치를 내면화하고 체화(體化) 하는 삶을 살며 △총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과 행동 엄금 △총림의 본래 기능인 수행과 교육, 포교에 매진 △대중청규 실천에 적극 임할 것을 다짐했다. **합천 해인사=하성미 기자**

사부대중 공동체, '신뢰 회복' 급선무

조계종, 26일 6차 대중공사서 사부대중 공동체 구성안 논의

사찰운영위 강화 등 제도 개선
승가 공동체 자정 회복도 필요
토론서 출·재가자 입장차 확인



조계종은 8월 26일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사부대중 공동체,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제6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현대적 사부대중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출가자와 재가자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26일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사부대중 공동체,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제6차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모둠, 분임 토론들을 거쳐 사부대중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출·재가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신뢰 회복 방안으로 사찰운영위원회 강화 등 제도 개선과 의식 교육 등을 제시했으며,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해 많은 전문 인력을 사찰 운영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교구종회나 사찰운영위원회에 제도적으로 재가자의 참여를 보장해 재가자들이 사찰 운영에 주체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것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포교나 사회복지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6차 대중공사 모둠 토론에서는 사부대중 공동체 구성에서 재가자 역할을 놓고 출가와 재가의 입장차가 확연함이 확인됐다.

중앙종회의원 만당 스님은 "현재 신도들을 보면 사찰에는 별 도움을 주지 않고 귀족적 신행 생활을 한다"면서 "스님은 스님답게 재가는 재가답게 정말 열심히 산다면 불교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재가불자와 스님들은 스승과 제자 관계다. 재가자에게 중요한 역할은 승가 수행을 잘 보필하는 것"이라면서 "재가불자들의 역할은 매우 미흡하다. 당장 천주교 평신도들과 비교가 된다. 재가불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반성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가불자들은 구성원 간의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 유지원 전북불교네트워크 대표는 6모둠 분임 토의에서 "공동체가 깨지는 중요한 요인은 내부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라면서 "재가와 승가의 갈등은 이해한다. 그렇다면 승가 내부는 신뢰는 공고한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승가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가자들은 '승가 내부의 자정 능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승가의 신뢰 회복이 사부대중 공동체 구성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승가와 재가 모두 서로의 잘잘못만 이야기 한다. 이는 상호 신뢰가 부족해 생긴 일"이라며 "대학생 불자는 불교가 대학생 불자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 스님과 선배들이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7차 100인 대중공사는 오는 9월 23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수행풍토 진작과 승가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주= 신성민 기자**

성 명 서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에서는 지난 7월 10일 교구종회를 열고, 종단사태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본 교구 소속 도산 총무원장과 수열 호법원장을 초청하여 종단분열의 사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화해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에 제주교구 종도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① 종단의 현실을 적시컨대 종단의 분열과 법통의 단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무조건 분란이전으로 돌아가 서로 화해하여 불조 앞에 죄인이 되지 않게 하자.

② 종단의 법률, 제도, 관행은 부처님 법에 맞게 진단하고 개선하여야 마땅할 것이며, 세 과시와 행동력으로 대세를 결정해 가려는 풍토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③ 원수거나 친하거나 모두 성불하자는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마음과 화합정신으로 상호 인정하고 상호 용서하여 종단의 미래를 밝게 하자.

④ 종헌 종법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몰아부처서 신성해야할 청사를 점거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꼴은 경 율 론 삼장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비 불교적 행위이다.

⑤ 옥에도 티가 있는 법, 사람도 과오가 있는 법, 남의 단점만을 꼬집고 질타하기 보다 불들어주고 경책해 주어 한 도반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승가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이를 버리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서로 밀어부치고 끌어당기고 다투면서 제도를 개혁하고 인물을 교체하는 일을 억만 번 단행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⑥ 우리 종단은 언제까지 대결구도로 가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외부 인사를 불러서 종단을 맡길 수 있겠는가? 참으로 암담하다. 이 지경으로 까지 몰고 온 것은 우리 종도들 모두가 다 같은 책임을 느끼고 한 생각 버리어 새로운 태고종 건설의 역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⑦ 우리는 출가본연의 정신세계로 돌아가서 지나간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참회하여 화합승가를 오늘에 구현하여 정통종단 태고종풍을 드날리고 그동안 종단의 앞날의 걱정했던 많은 종도들의 가슴 아픔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불기 2559년 8월 25일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탄해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 종도일동 합장

‘2600년 불교사’ 통해 正法 실천 방안 모색

불교인재원, 9월 11일 대중강좌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오는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006년 불교, 대중 강좌로 이해하는 길’ 강좌를 3차에 걸쳐 진행한다. 강좌 주제는 △1차 인도, 티벳 및 남방불교의 역대 조사 △2차 중국 불교와 선종의 법맥 이해 △ 한국불교의 종지종풍 근원 파악 등이다.

1차 강좌는 9월 11일~11월 27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지하 1층 선운당서 열린다. 김응철 불교인재원장의 ‘마하가섭 존자와 아난 존자’ 특강을 시작으로 서재영 불광연구원의 ‘아쇼카 대왕과 목갈라나 뿟따 띳사’, 박희승 한국문화연수원 교수의 ‘밀린다왕과 나가세나 존자의 대론’ 등 총 12회 실시된다.

또한 2차 강좌에서는 중국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부터 간화선 창시자 대혜종고 등 살펴보며, 3차에서는 이차돈 순교로부터 이어지는 한국 주요 고승들의 가르침을 소개한다. 2차와 3차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서로 이해·수용할 때 종교평화가 옵니다”

종교모임 ‘사이좋게’ 27일 창립

종교평화시민모임 ‘사이좋게’(공동대표 도법)는 8월 27일 서울 안국동 W스테이지서 창립기념 모임을 열었다. 신호승 동그라미대화훈련센터 대표가 진행을 맡은 이날 행사는 마중물 강연, 열린 마당에 이어 지식협동조합 ‘경계너머 아하!’ 3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마중물 강연에는 박문수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박사, 조형일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오강남 경계너머아하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종교평화방안을 모색했다.

오강남 교수는 “이웃종교를 정복 대상으로 적대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수용적 태도가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종교평화시민모임 ‘사이좋게’는 8월 27일 서울 안국동 W스테이지서 창립기념 모임을 열었다.

8.25 합의, 南北불교 교류 활성화 ‘청신호’

[해설] 남북 공동 합의가 불교 대북사업에 미칠 영향

8.25 남북 협상이 극적 타결되며 극으로 치닫던 남북 정세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그동안 침체돼 온 불교계 대북사업의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8월 25일 새벽 0시 55분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6개 항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불교계가 주목할 부분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9월 초 적십자 실무 접촉 △민간교류 활성화의 조항이다.

목함지뢰 테러와 포격 도발로 인한 군사적 긴장 해소와 더불어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 활성화도 함께 명시한 것은 북한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불교계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온다.

조계종·천태종 등 주요종단과 불교 통일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발표한 것도 분위기가 반영됐다. 불교계 통일 전문가들 역시 “5.24조치 이후 중단된 대북지원사업에 새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유감 표명으로 그친 데 아쉬워하는 여론도 있지만 군사적 긴장을 해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다. 합의 내용이 실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불교계는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민간교류 활성화 발표에 맞춰 적극적 교류 사업을 펼칠 거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 박재산 사무국장은 “남북관계 긴장이 해소됨에 따라 민간 교류도 조금씩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침체됐던 남북불교교류도 재탄력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밝혔다.

실제 민간교류는 당국 간 회담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불교계 대북협력단체들도 올해 하반기 활발한 교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민추본은 올 하반기 예정된 남북불교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9월 묘향산 보현사 서산대사 남북합동다례재와 10월 금강산 신계사 복원8주년기념 남북합동법회 추진을 중심으로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 북녘 불교문화재 보수 사업 등도 계획 중이다.

남북한 민간교류 활성화 약속
중단된 불교 교류 기대 ‘고조’
민추본, 9, 10월 경 방북 추진
평불협도 지원 경로 탐색 나서
“조건없는 보살행 통일 앞당겨”

아울러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도 북한지원사업 추진에 착수한다. 신창수 평불협 상임이사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통해 북측에 양파씨앗을 전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연락이 되면 사전협의 후 약 2억 원 분량 양파 씨앗을 북한 지역에 보낼 것”이라 밝혔다. 평불협은 2004년에도 평안도와 양강도 지역에 10억 원 분량 양파씨앗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남북 정세는 불교계 대북사업의 잠재적 장애 요소로 남아 있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공동 대표 법응 스님은 “북한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남한과 약속을 어긴 사례가 있다. 이번만큼은 진정성 있게 합의 내용을 이행해주길 바랄 뿐”이라며 “우리 정부도 향후 정치·군사적 갈등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종교·문화·복지 등 민간교류는 지속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은 정치적 여건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돼 왔다. 특히 5.24조치 이후에는 거의 모든 민간 교류가 일시에 중단되는 등 지속적인 교류가 거의 불가능했다.

상황은 불교계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평불협은 1998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금강국수공장을 설립하고 금강빵공장에는 밀가루를 전량 지원해 왔으나 교류 중단 이후 공장 상태마저 파악할 수 없었다.

신창수 평불협 상임이사는 “정부 통일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해 민간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로서는 조선불교도연맹과 연락이 닿아 현지 공장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하루 빨리 민간교류가 재개돼 국수와 빵 공장이 정상 가동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전쟁직전에서 화해 양상으로 돌아선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교계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종교는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와 별개로 분열된 민족정신을 융합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 역할에 대해 법응 스님은 “자비와 비폭력을 추구하는 불교계가 앞장서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보살행을 실천해야 민족 통합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또한 남북에 폭력적인 군사적 대립을 멈출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 불사 ‘본격화’

25일 역사문화추진위 현판식
성역화 사업 부지 매입 추진

행정 절차 90% 마무리 단계
자승 스님 “임기 내 시삽할 것”
모연위원장에 혜총 스님 위촉



조계종은 8월 25일 전법회관 7층에서 ‘역사문화관광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서울 종로 조계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이 본격화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25일 전법회관 7층에서 성역화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인 ‘역사문화관광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역사문화추진위)’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무실이 공식적으로 개소함에 따라 조계종 성역화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단은 정기 인사를 통해 총괄본부장에 이석심 前 총무차장을 임명하는 등 부서 직제를 완성했다. 지난 7월 21일 진행된 ‘상평하계’ 보고회에서도 성역화 사업이 올해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실제 이날 현판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기 중 성역화 불사에 초석을 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자승 스님은 “종단의 성역화 사업은 33대 집행부부터 추진돼 온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행정절차가 90% 진척돼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지 매입 등을 올해 9월부터 시작해 34대 집행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삽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10.27법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이후 2013년 서울시와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이 이뤄지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초기 사업 자료에 따르면 총 3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이다. 견지동 45번지 일대 토지면적 2만8577㎡ 규모에 10.27 역사교육관과 치유시설 등이 설립되고, 템플스테이체험관 등이 새로 들어서게 된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은 8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역사문화관광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및 모연위원장에 혜총 스님(前 포교원장)을 위촉했다.

이날 자리에서 상임부위원장 혜총 스님은 “종단이 33대와 34대 집행부를 거치면서 성역화 불사라는 큰 원력을 세웠다”면서 “내 모든 역량을 성역화 불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 집중하겠다. 기도 정진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존치 기간, 10.27법난法 한계 요인”

진희권 교수, 27일 법난 피해 세미나서 주장

10.27 법난법은 한시법에 불과
지속 사업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8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법난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0.27법난 특별법에 명시된 법률 존치기간이 10.27법난 해결 사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희권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8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주최한 ‘법난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10·27법난 특별법의 법적 한계와 명예회복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진 교수는 “10.27법난법은 내년 6월 30일까지 법률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한시법”이라며 “이에 따라 10.27법난은 명예 회복과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과거사 법률들은 국가가 개별 과거사 정리를 위한 추모사업, 위령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시법이 가지는 특성상 10.27법난 기념관을 설립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하고 기타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도 법률 존치기간이 끝나고 나면 국가의 책임은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이는 다른 과거사 정리관련 법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진 교수는 “실질적인 피해단체에 대한 지원은 기념관 건립이라는 한시적 법 규정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운영과 기타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일정기간 명예회복 사업을 지원하고, 기념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와 군 당국은 불교계에 사과와 화해의 몸짓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봉규 한세대 교수가 ‘10·27법난위원회의 피해자 명예회복방안 추진현황’을 발표했으며, 10·27법난피해자회 회장 성해 스님, 이건호 前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무총장(10·27법난 당시)의 피해자 증언도 이뤄졌다.

이석심 조계종 총본산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은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에 대한 조계종단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무염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비구니회회장 석도현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불사추진위원장 김홍중

“세계평화와 국태안민을 위한 수륙대재”
금번 본 종단에서는 2015년도 수륙대재를 봉행 하오니 모든 종도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참례를 바랍니다.
- 행사일시 : 2015년 양력 10월 18일(셋째 일요일) 10시
- 행사장소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478-6 조선해양문화관
- 문의전화 :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010-3565-2462번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일 주 문



제9기 불교영어강좌 개최

원학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10월 7일~12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봉은사 수련원서 '제9기 불교영어강좌'를 개최한다.



열린선원 개원 10주년 기념잔치

법현 서울 열린선원 선원장 스님은 9월 12일 오후2시 역촌중앙시장 열린선원에서 개원 10주년 기념잔치를 개최한다. (02)386-4755



공불련 창립 15주년 합동수계법회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10월 3~4일 '창립15주년 기념 합동수계법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동대부여중 교장 취임

김형중 동대부중 교감은 9월 1일자로 동대부여중 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9월 7일 열린다.



위덕진각봉사단 강동면과 MOU

임성옥 위덕대 위덕진각봉사단장은 8월 19일 위덕대 인성기초교육원에서 경주시 강동면 유금2리(이장 김정철)와 상호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한국 고고학 거목' 김정기 박사 별세



한국 고고학의 거목이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한 창산(昌山) 김정기(金正基) 박사〈사진〉가 노환으로 8월 26일 오후 7시 30분에 별세했다. 향년 85세.

김정기 박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50년 마산 공립중학교 졸업 이후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1956년 일본 메이지(明治)대 공학부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1959년에는 도쿄(東京)대 공학박사를 받았다. 1959년 국내로 돌아와 국립박물관 고고과장, 문화재관리국(문화공보부 외국) 문화재연구실 초대 실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고인은 우리나라 주도로 유적발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1960년대부터 19070년대까지 대규모 유적발굴이 이끌었던 만큼 불교문화재와도 인연이 깊다. 한국 기술과 인력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유적 발굴은 1959년 경주 감은사지 발굴이었고, 이를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1975년 문화재관리국(現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초대 소장 재임 시절 고인은 황남대총과 황룡사지, 안압지 등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주지역 대부분 유적을 비롯해 익산 미륵사지 등 중요한 발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아울러 현장고고학과 건축학의 기초를 세워 일제가 아닌 자생적인 학문의 토대를 구축하여 후학 양성에도 이바지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의 유적을 발굴한다'(1977) '한국의 고건축'(1980) 등이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사 사관 재정립해야"

대정학술상 수상한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



40년전 논문 재검토해 화제 통불교 사관 등 통념 버릴 것 강조

"40여년 전 제가 천착한 신라 교학불교에서 고려 실천불교인 선종으로의 교체라는 선종사 해석은 사회변화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틀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계의 연구는 미시적인 접근방법이 대세를 이루고 거시적인 문제의식은 퇴색되고 있습니다. 자료의 단편적인 이해를 양산하는 연구자세와 인식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재)대정장학재단이 수여하는 2015년 대정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는 불교학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8월 27일 이같이 밝혔다.

최 명예교수가 수상한 논문은 2014년 '불교학연구' 41집에 수록된 '선종 초기 전래설의 재검토-단속사 신행선사 비문의 분석'으로 최 교수가 40여년 전 발표해 학계의 주류학설로 자리한 초기선종사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담고 있다. 최 교수는 최근 한국불교사 이해를 고대불교, 고려불교, 조선불교, 근대불교 연구로 확대해 한국불교사 전체의 이해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4편의 저술을 준비 중에 있다.

최 명예교수는 수상소감보다 학계의 연구방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후학들이 연구방법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최 명예교수는 "그동안 학계에서는 한국불교사 이해에 대해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양한했음에도 그 이해 수준에서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평가"라며 "통불교와 회통불교라는 시각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아시아 불교 전체의 흐름에서 한국불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는 특히 통불교와 회통불교, 호국불교에 대한 현재 불교학계의 한국불교 성격 규정이 폐기될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최 명예교수에 따르면 통불교와 호국불교 개념은 일본 메이지시기 일본불교계가 널리 사용하던 것을 한국불교계에서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일본 근대불교사학 성립 시기 통불교와 호법호국론 등의 책들이 잇따라 발간되고, 무라카미 센쇼에 이르러 통불교와 호국불교 용어가 학술개념으로 자리집았다. 이 것이 근현대 한국학자들에 의해 국내에 번역, 소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 명예교수는 "일본 영향 하에도 저항해야만 했던 한계점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며 "이후 군사독재정권 아래 호국불교론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도 정치적인 의도"라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는 "나무를 볼 때 숲을 보지 않고 나무 하나만 보니 나무 하나의 가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불교사에서 그동안 통념으로 자리한 것들에서 벗어나 아시아 불교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과정에서 한국불교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상 및 장학금 수여식은 9월4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85 겔러리아포레 연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과 베트남 우호 증진에 앞장 설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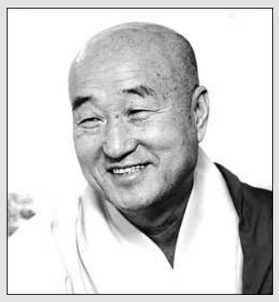
일면 스님, 베트남서 월남전 희생자 천도의식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1대 군종교구장 · 사진)은 8월 8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나트랑의 십자성부대를 찾아 베트남 희생자 영가 천도의식을 봉행했다.

이번 천도의식에는 2대 군종교구장을 지낸 자광 스님과 전 선운사 주지 법현 스님, 수명 스님, 혜광 스님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나트랑시 고찰인 융산사(隆山寺)에 이어 십자성부대의 불광사를 차례로 방문, 영혼천도와 해원상생의 기도를 올렸다.

천도의식 후 일면 스님은 "한국과 베트남이 영원한 친구가 되도록 진력하고, 특히 베트남 사람들을 친절하게 우대하는



불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와 이슬람문화 교류 물꼬를"

불교영어도서관, 터키 에르지예스대와 MOU



불교영어도서관(관장 양장운)과 터키 에르지예스대학교가 8월 27일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양장운 관장과 정진원 불교영어도서관 국제교류협력 총괄 부관장, 에르지예스대학교 동양어문학부 학부장 괵셀 튀르쾨주 교수와 한국어문학과 학과장 하티제 쿄로올루 교수가 참석했다.

에르지예스대학교는 앙카라대학에 이어 터키에서 두 번째로 한국학학과를 개설한 대학으로 1998년 학과가 설립된 이래 현재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날 협약으로 불교영어도서관은 터키 교수들과 학생들의 한국 방문 시 한국 불교문화 특강과 문화체험을 지원한다. 에르지예스대학은 한국불교 강의와 불교문화체험을 통해 터키와 주변국에 한국불교를 알릴 예정이다.

한편, 불교영어도서관은 지난 5월 불가리아 국립 소피대학을 위시해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를 방문해 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화에 나서고 있다. 노덕현 기자

옥천 대성사, 인재양성 장학금 전달



중매사찰 태고종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8월 21일 옥천군수 집무실서 (재)옥천군장학회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대성사 신도인 옥천국악협회 손경숙 회장과 故 황의영 영가의 49재에 동참한 가족들이 십시일반 마련했다.

손경숙(옥천국악협회 회장) 불자는 봉사를 통해 행복을 얻고 나눌 수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대성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선남선녀 인연맺기 법회를 봉행하는 등 대사회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빛고을나눔나무, 미얀마 돕기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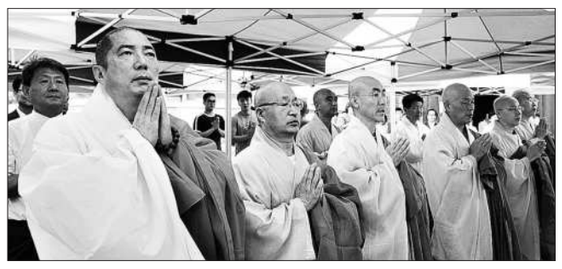


대홍수로 슬픔에 빠져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자선행사가 8월 25일 상무지구 말리커피 2층에서 열렸다.

광주지역 단체들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자선바자회와 작은음악회, 경매 등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 상임이사 혜공)는 이날 나눔기금 100만원을 마련해 미얀마 대표에게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인각사, 일연 스님 726주기 다례재



군위 인각사(주지 종범)는 8월 21일 경내 국조전 앞마당에서 보국국사 일연선사 제726주기 다례재와 함께 삼국유사 문화의 밤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인각사 주지 종범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이영만 군위군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종범 스님은 "보석 같은 삼국유사의 문화예술 작품 내용들을 시낭송, 퍼포먼스 등으로 표현했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02)393-8027

개인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5년 8월 1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5년 9월 8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천도재, 49재 의식 처음부터 (시련, 대령, 관욕)
◇원서교부 : 2015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5년 9월 4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집중수련회에 참가한 대중들이 선방에서 참선 삼매에 들고있다.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집중수련회에는 20여 대중이 참가했다.



걷기명상을 진행하는 참가대중들.



집중수련회에서는 단체면담과 개별면담을 통한 지도가 이뤄졌다.

“놓아버림 통해 행복한 삶에 다가가요”

신불사 제1회 하안거 명상 집중수련회 현장

호흡이 거칠었다가 짧아지는 소리가 들린다. 한숨처럼 호흡을 길게 내 쉬는 소리만이 선방에 고요히 울려퍼진다.

의지를 다해 호흡을 알아차리고자 할 때마다 긴장과 함께 힘이 들어가고 어깨와 몸이 아프다. 몸이 잠시 편해지자 이번에는 망상이 올라온다. ‘오늘 집에 별일 없을까’, 집안 걱정부터 어제 있었던 일, 또 지금까지 내가 했던 수많은 잘못들이 연이어 떠오른다.

‘아차’ 싶다. 다시 망상을 반복하며 세차게 밀어낸다. 이번에는 망상을 했다는 자신을 질책한다.

고요한 선방에는 죽비소리가 들려온다. 자신을 힘차게 몰아세우기도 잠시 무언가 잘못됐다는 심정에 눈을 뜬다.

“놓아버리십시오. 수행을 잘하기 위한 노력도 의지도 지금 이 순간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수행을 성취하고자 함도 욕심입니다.”

창원 신불사 주지 혜안 스님은 집중수련에 빠진 대중들에게 이렇게 수행의 길을 밝혔다.

스님들이 한 여름 동안 정진삼매에 빠진 8월 21일, 창원 신불사 불교명상센터에서는 재가자들의 안거수행이 펼쳐졌다.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집중명상의 두 번째 날에는 호흡 · 걷기 · 자애명상 등이 진행됐다.

친구와 함께 온 대학생과 직장인들, 아내가 서울 사는 손주들 봐주느라 주말에만 만난다는 부부, 추억을 만들고자 온 아빠와 중학생 아들, 다정한 연인들, 혼자 온 직장인 등 다양한 20여 명의 참가자들은 의외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친구들과 참가한 젊은 여성들이 많았다. 한 참가자는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수행 생활을 체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수행의 장애를 일으키는 마음은 탐진치입니다. 통제하려는 욕심, 만족하려는 마음 빨리 나아가야지라는 생각이 현대인들에게 습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수행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한 호흡만 지켜보면 참 대단했구나 하고 만족하고 자신에게 칭찬을 해야 합니다. 목표를 낮게 잡으세요. 깨달음은 원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날 집중수련회의 지도법사로 나선 혜안 스님은 참가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조언했다. 집중수련이 하루 이틀 지나자 참가자들의 얼굴이 밝아진다.

원래 수행을 하면 힘이 든다. 대중들은 눕기도 벽에 편하게 기대어 앉기도 했다. 너무 힘들여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명도 빠짐이 없었다. 단지 힘을 빼고 억지를 부리지 않는 정도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따르는 모습이다.

강렬하게 내리쬐던 햇빛이 수그러든 오후에는 법당 앞에는 시원한 개량한복으로 갈아입은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정해둔 시간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걷기 명상을 진행했다. 걷기명상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나치게 천천히 걷지도 않고 빨리 걷지도 않으며 일정함을 유지했다. 단지 자신들의 걸음 가운데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을 한다는 기준을 세운 채 말이다.

그리고 잠깐의 휴식 후 다시 자리에 모인다. 자애명상 시간이었다. 지도법사 스님

전국에서 20여 수행자 참가해
호흡 · 걷기 · 자애 명상 진행
개별면담으로 수행법 지도

의 지도 하에 재가수행자들은 천천히 자기 자신을 향해 자애를 보낼 것을 반복해서 말했다.

“내가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그렇게 살아있는 모든 생명까지 감사하며 참가자들은 깊은 행복에 빠져들었다. 자애명상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보이는 조건없는 사랑을 자신과 다른 주변사람들에게 펼치는 수행법이다. 그동안 미워했던 이들을 비롯해 주변의 모든 이들을 떠올리며 자애심을 북돋는다.

이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지도법사 스님과 나누는 인터뷰 시간이 열렸다. 인터뷰 시간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의 기준과는 달리 열심히 하지 않으려했다는 말을 내뱉었다.

김미숙(자공 · 59)씨는 “성격이 불같고 급했는데 명상수행을 통해 차분해졌다”며 “배낭에 짐을 지고 있으면 무겁고 힘이 드는데 하나씩 내려놓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가벼움이라고 설명해도 좋을 것 같다. 마음의 무거운 성취욕과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은영(자은 · 52)씨는 “이번에 열린 3박 4일 집중 명상 시간을 통해 도반들과 함께 명상하는 힘이 좀 더 길러지는 시간이 됐다. 또한 인터뷰 시간에 제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씀해주셔서 공부가 한 층 더 자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특히 이번에 스님께 ‘호흡을 잘 지켜 볼 수가 없다. 열 호흡도 못 보겠다’고 하니 스님께서 ‘한 호흡은 알아차렸느냐 한 호흡을 알아차린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하셔서 절실한 부분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병규(혜천 · 49)씨는 “언제나 열심히 하는 측면이 많았는데 스님께서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마음을 쉬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고 참 된 쉼을 아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수행 삼매에 접어든 동안 어느새 해는 저물어 있었다. 이들의 차분한 말 속에는 힘이 느껴졌다. 창원 신불사=하성미 기자

“재가자 명상수행으로 현대인 마음병 치유”

신불사 주지 혜안 스님



“현대인들은 독에 중독되어 있듯이 아프고 병들어 있고 우울, 공황장애 등 병을 일으킵니다. 따뜻한 마음은 이를 치료하는 훌륭한 약이 됩니다.”

혜안 스님은 집중수련회에서 걷기 · 자애 명상 등이 주는 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자애 명상을 통한 치유의 힘은 자신 뿐만이 아니라 주변인을 행복하게 해주며 이 훈련으로 통해 포용과 조건없이 사랑을 주는 따뜻한 사람이 된다고 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통도사 청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혜안 스님은 태국, 미얀마 등 해외의 다양한 수행처에서 명상수행을 해왔다. 태국에서 만행 하던 중 아잔 브람 스님의 〈Mindfulness, bliss, and beyond〉를 읽고 큰 감명을 받은 이후 호주 ‘보디야나’ 국제수행센터에서 아잔 브람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스리랑카 국제수행센터에서 수행했다.

스님은 이러한 수행에는 출재가의 구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재가자들의 명상 수행을 통해 이러한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며 수행열풍이 풀기를 기원했다.

‘놓아버리기’ 수행안내

신불사는 제3기 불교명상 입문과정 ‘혜안스님의 놓아버리기 명상’을 9월 6일~12월 2일 동안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로 각각 진행한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다.

신불사는 “명상과정은 불교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하고 가르치셨던 초기불교 명상법인 호흡명상, 걷기명상, 자애명상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몰입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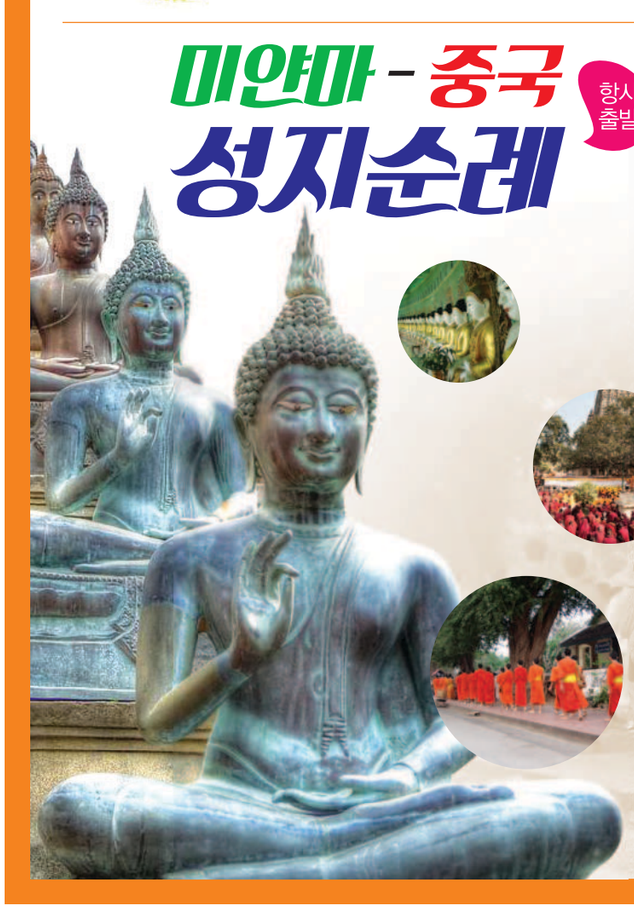
내용은 △불교명상의 이해 △현재순간 알아차리기 심화 △호흡명상의 기초 △사찰 답사와 명상 △걷기명상 △일상생활과 명상 △자애명상 △불교명상 과정에 관한 총정리 및 수료식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신불사 정기 법회 및 명상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봉행된다. 055)231-4494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출발일 : 11월 13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 10월 20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 일	출발일 : 11월 28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 10월 31일, 11월 21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 일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출발일 : 12월 5일, 11월 14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2박 (껄로/삔띠야 동굴)	7일	출발일 : 11월 14일, 12월 16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Myanmar
선물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함께 금강경 읽으니 즐겁지 아니한가

일감 스님, 21일 〈금강경 읽는 즐거움〉 북콘서트

〈금강경(金剛經)〉은 불자가 아니라도 불교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한 번은 접한 경전으로 대승불교 경전 중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만큼 이에 대한 해설서는 이미 많이 발간됐다.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이 발간한 〈금강경〉 해설서인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은 조금 색다르다. 적지 않는 해설서가 원전과 그 해석에 집중한다면 일감 스님의 해설서는 사유와 통찰을 통해 경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8월 21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 일감 스님의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북콘서트도 사유와 성찰, 소통이 함께 하는 자리였다.

북콘서트는 일감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일감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를 찾아 산이나 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부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부처를 만날 수 있다"면서 "〈금강경〉이 단순히 문자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했으면 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북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이야기 손님들의 낭독회였다. 일감 스님의 도반과 주변 인연들이 무대에 올라 책의 구절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야기했다. 청중들도 이야기 손님들의 말을 경청했다. 공감이 가는 부분에는 박수도 터져나왔다.

첫 무대는 BBS 불교방송 '룸비니 동산'의 진행자인 도운 스님이 맡았다. 도운 스님은 '제10 장엄정토분-바른 견해가 정토를 장엄함이네' 의 주요 구절을 낭독하고 절 수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의 첫 저서인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북 콘서트가 8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렸다.

도반 · 주위 인연들, 직접 참여해
책 낭독하고 자기 생각 이야기
교리 실천 · 세월호 · 통일 등 '다채'
대금 · 판소리 문화공연도 '눈길'

도운 스님은 "일감 스님이 진행하는 금산사 '내비둬 콘서트' 에 갔다가 참가자들의 부탁으로 함께 3000배를 하기도 했다"면서 "108배, 1000배, 절을 하면서 참회의 마음을 갖는다. 그것도 좋지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다른 사람을 축원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자시절부터 함께 해온 도반인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원창 스님은 '제6 정신희유분-바른 믿음은 귀한 일이다' 를 바탕으로 계율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를 풀었다.

원창 스님은 "경전에는 '계를 바르게 지니고 복을 닦는 자들은 깨끗한 믿음으로 들어간다(有持戒修福者)' 고 했다"면서 "계를 지키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는 것이고 복을 닦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내려놓은 것이다. 자기 자신의 삼독심을 바로 보고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안다면 무상의 법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 총무원 기획실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책의 머리말을 소개하고 사유와 이해를 통해 경전을 읽고 실천할 것을 대중에게 당부했다.

남전 스님은 "흔히들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 데 삶의 입장에서 헤아리지 않고 단순히 외우고 수긍하려하기 때문"이라며 "이해되는만큼 알고 실천하며 부단히 공부에 매진한다면 스스로 나아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 서두에 '역발상' 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고정됨, 편견을 깨뜨리는 반전과 역발상이 선(禪)의 묘미"라면서 "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에서 '평' 은 저울과 같다. 이 저울의 평행을 유지하는 것이 불교 공부"라고 말했다.

조미애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간사는 '제23 정심행정분- 온 천지가 나다. 맑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라' 의 해설을 낭독했다. 일감 스님은 책의 해당 부분에서 세월호 참사와 생명 가치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이야기 손님인 조 간사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조 간사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숭고한 희생도 직위와 돈에 따라 가치 판단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엇이 소중한 가치인지 우리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미 조계종 변호사는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회법과 불법(佛法)의 상관 관계를, 박정규 교육원 교육팀장은 악화된 남북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보살의 삶을 대중들에게 이야기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북콘서트에는 오세경 작가와 소리꾼 최재구의 '금강경 판소리' , 이창선과 대금스타일의 공연과 이승호 사진작가와 함께 나누는 사진이야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 정부 · 서울시와 손잡고 자살예방 '앞장'

상담개발원, 9월 11일 자살예방 심리극, 추모재 등 '다채'

중앙자살예방센터 사업 일환
심리극 관객 참여도 가능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소외감,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경제발전, 삶의 질 향상 등과 별개로 자살률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사상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불교계가 나섰다. 직장문제, 가정불화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함께 이해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 이하 상담개발원)은 9월 11일 오후 5시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심리극 및 퍼포먼스 '심리극을 통한 자살 이해-길' 을 개최한다. 2015중앙자살예방센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명살림 문화축제-러브테라피' 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박희석 심리학 박사가 진행을 맡았다.

심리극은 연극을 통해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케 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집단치유방법이다.

상담개발원이 준비한 이번 심리극에서는 한 때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가부장적이던 이 시대의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 점차 가족과 직장에서 소외되다 결국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극화했다. 주인공은 자살에 실패한 뒤 심리극에 참여하면서 그의 삶을 회고하고 잘못된 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에 대해 상담개발원은 "심리극은 문제나 주제들을 단순히 토론하기보다 사람들이 직접 자신과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며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3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예식 천도재 '떠나는 이를 위한 기도' 도 함께 봉행된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5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사업 '살사프로젝트' 중 하나로 마련된 이번 천도재는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이 진행으로 입제, 경전독송, 영가를 위한 편지쓰기, 헌화 및 헌다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2)737-7378

박아름 기자

신행 · 포교 소식

청소년 불자들, 미국서 '꿈과 희망' 찾다

한미청소년연수단, 8월 7일~18일 미 중 · 동부지역 순례 마쳐

청소년 불자들이 미국 중 · 동부 지역 등지를 순례하며 한국 불교 포교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다.

한미청소년불교문화연수단(단장 정범, 이하 한미청소년연수단)이 8월 7~18일 미중부 시카고를 비롯해 동부지역 뉴욕, 워싱턴, 보스톤 등 연수를 진행했다. 조계종 포교원 국제전법단과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연수단에는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20명이 함께했다.

한미청소년연수단은 7일 시카고 불타사서 회주 현성 스님과 주지 성향 스님 강의를 듣고 밀레니엄파크 및 시카고 미술관 등 견학했다. 이어 9일에는 뉴욕 불광선원으로 이동해 주지 휘광 스님 법문 아래 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15~16일에는 미국 현지 청소년과 함께 게임, 장기자랑 뿐만 아니라 맨하튼 뚜벅이 여행 등 진행하며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단장 정범 스님은 "13년 전 뉴욕불광선언 청소년법회를 시작으로 한미청소년연수단이 매년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는 교류가 생겨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박아름 기자

새벽이슬 맞으며 '지계의 빛' 밝히리

포교사단, 9월 5~6일 설악산 신흥사서 '무박 2일' 수행 법회

매년 포교사 정체성 확립과 지계실천 덕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팔재계수계대법회가 올해도 찾아온다. 포교사단은 재가자가 출가자의 계를 단 하루만이라도 실천하며 포교사로서 기본자세를 정립하자는 의미로 팔재계수계대법회를 개최해 왔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곽명희, 이하 포교사단)은 9월 5일~6일 설악산 신흥사서 제13차 8재계수계실천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대법회에는 전국 12개 지역단서 약 3천여 포교사가 결집해 난타공연, 팔재계수계식, 독경 및 철야정진, 5km 촛불행진 등 무박 2일 일정을 함께한다.

특히 오후 11시 30분~새벽 3시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과 더불어 흔들바위를 지나 계조암까지 촛불행진 수행기도를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내원 법당서 금강경 독송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제20회 일반포교사 712명, 제8회 전문포교사 61명, 제20회 국제포교사 18명, 제8회 불교상담심리사 12명의 품수식도 함께 거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후불식으로 절약되는 비용은 신흥사 인근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 전달에 사용될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환경부터 수행까지 불교로 살피다

정평불, 눈부처학교 3기 모집… 9월 1일 개강

환경문제부터 마음 수행까지 불교적인 시각으로 살피는 강좌가 마련된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9월 1일~12월 30일까지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눈부처 학교' 3기를 진행한다. 강의 주제는 △디지털시대, 불교의 지향점: 생명평화, 공유와 공동체 △한국불교를 돌아본다 △우리의 마음과 불교 윤리 등 3개로 나눠 18개 강의가 진행된다.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위기에 대한 불교적 극복방안을 강의하며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선(禪) 사상 안의 생명 사상을,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재와 불교적 대안을 강의한다.

박해진 〈신미 평전〉 저자는 신미 스님의 훈민정음 창제, 최연 (사)해아라 이사장은 민중불교 운동의 성찰, 김광수 한양여대 교수는 중국불교의 개혁과 한국불교에 대해 강좌를 진행한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불교를 통한 철학하기를,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마음과 사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은봉 광주대 교수는 선시로 읽는 마음과 깨달음의 세계를 강의한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이번 강좌를 통해 타자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동체대비심을 가진 '눈부처' 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의 (010)3725-4846 신성민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48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범패·작법무·의식과정 학인모집

아래와 같이 제12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 소리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2시 30분 ~ 3시 30분)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 · 무용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오후 3시 30분 ~ 5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15년 9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5년 8월 ~ 2015년 8월 31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6)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자비사상 바탕으로 이주민과 함께하고자"

JTS 다문화센터 개원
8월 23일부터 한글교육 실시


스리랑카 이주민들은 8월 23일 한글교육을 받고 이주민 모임을 개최했다.


JTS다문화센터 8월 18일 개원식. 법륜 스님(오른쪽 네번째)과 다문화센터 원장 월광 법사(오른쪽 세번째) 등이 케이크 축하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민 비율 높은 안산시 위치
8월 13일 개원식 갖고 활동 시작
법률 자문·의료지원 등 제공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는 현재 17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임금 체불, 불법 체류, 의료 사고 등 인권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불교계의 다문화지원은 아직도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이웃종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다보니 불교국가 이주민들도 한국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JTS 다문화센터(원장 월광)의 개원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주민들의 법률자문, 의료지원, 한글교육 등을 해결할 본격적인 다문화 가족 지원 시설이 문을 열었다. 안산시 단원구에 문을 연 JTS 다문화센터는 8월 18일 개원식을 갖고 8월 23일 한글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JTS 이사장 법륜 스님은 개원식에서 다문화센터를 20년 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북한동포들과 조선족 동포들을 돕다보니 오늘에야 다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다며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법륜 스님은 "지난 2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는 10만 명에서 170만 명으로 늘어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여성, 조선족 동포, 새터민들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하며, 아이들은 제 때에 배워야 한다는 JTS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이주민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JTS의 첫 다문화센터가 안산에 세워진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앞으로 한 30년이 지나면 인구의 10%가 외국인 거주자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에 대한 차별은 굉장한 사회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런데 안산 지역은 이미 외국인 거주자가 인구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해야 할 문제의 샘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JTS 다문화센터는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그 첫 프로그램으로 8월 23일 한글교육이 시작되었다.

JTS 다문화센터 원장 월광 법사는 "8년 전부터 인근의 법흥사에서 스리랑카 이주민들을 위해 한글교실을 운영해왔다. 초창기에는 100명 정도가 수업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원이 줄어들어 현재는 10명 정도만 수업에 들어와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이번에 우리 센터가 문을 연다고 하니 주지스님께서 한글교실반 운영을 의뢰했고 첫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수업은 매주 일요일 진행되며 앞으로 토요일까지 시간대를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리랑카 공동체 닐락샤 대표는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가 개원해 반갑다며 앞으로 이곳이 이주민들을 위한 쉼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불교신자지만 한국에 와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센터만 만났지 불교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오늘 처음 만났다. 그러니 이번 개원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JTS 다문화센터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반가운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 JTS 다문화센터는 이주민 돕기 '아나바다' 장터 운영,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JTS거리모금 캠페인, 종교모임 지원 등을 열어갈 계획이다.

월광 법사는 "JTS 캠페인은 제 3세계 국가 어린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인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불교의 자비사상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함께 캠페인을 열고자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안산 지역을 행복이 피어나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 노력고자 한다. 앞으로 많은 봉사자 분들이 오셔서 이런 취지에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향후, JTS는 안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다문화센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031)495-899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일산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장관상

전국 노인일자리 평가대회서 대상 수상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2014년 전국 노인일자리 평가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9월 4일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노인일자리 평가대회'는 전국 시군구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추진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기관을 선정·시상하고 격려하는 대회이다.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4년 365고양실버새싹지킴이, 공영주차장관리, 1~3세대 강사파견, 호수공원 생태해설, 지하철택배 등 19개 사업단(사회공헌형 17개, 시장형 1개, 자립형 1개)을 운영하여 총 404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2015년에는 14개 사업단, 총 3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고양도시관리공사 등과 연계를 통해 노인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인 점을 높이 평가받아 사회공헌형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정혜숙 기자

서울노인영화제 트레일러 주연배우 모집

9월 6일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주최하는 제 8회 서울노인영화제 공식 트레일러의 주연 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지난해 오디션이라는 새로운 제작방식을 도입해 어르신에게 주연 배우의 기회를 안겨주며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공식 트레일러를 완성한 서울 노인영화제. 올해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진정한 세대통합을 보여줄 예정이다.

제 8회 서울노인영화제 공식 트레일러는 어르신과 청소년이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주제로 기획, 오디션을 통해서 영상 메시지의 주인공을 찾는다. 참가 자격은 60대 이상 어르신 혹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9월 3일까지 이메일(sisff@siff.or.kr)로 접수 가능하며 9월 6일 공개 오디션을 통해 트레일러의 주연배우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 노인영화제 사무국은 "서울노인영화제는 지난해 공식 트레일러 주연배우 오디션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도전의 기회를 안겨주며,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제 8회 서울노인영화제 공식 트레일러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에서 청소년까지 확대해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진정한 세대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며 이번 오디션 기획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한편, 서울 노인영화제는 10월 21일~23일 서울 극장에서 노년세대의 자유주제 부문과 청년 세대의 노인주제 부문으로 나뉘어 단편경쟁영화제로 진행된다. (02)6911-9500

정혜숙 기자

밤길 걸으며 '소외 이웃 겨울나기' 도와요



연탄지원 기금마련 '108DAY' 포스터

동행, 10월 8일 '108DAY'
쪽방촌 연탄 지원 기금 마련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10월 8일 저녁 6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쪽방촌 연탄 지원 기금마련 '108DAY·도심 속 아름다운 밤길 걷기'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이번 '108DAY 행사'는 불교계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바쁜 일상 속에 도심의 밤길을 걸으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된 아름다운동행의 대표 나눔 캠페인이다.

아름다운 동행은 "조계사를 시작으로 약 11km의 코스로 청계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장충단공원, 남산산책로, 명동, 조계사로 완주하게 되며 그동안 도심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낭만의 길로 안내하게 된다. 더불어 걷기 완주 후에는 조계사에서 참가자들이 함께 나를 깨우는 108배와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해 화제가 되었던 '아이연탄맨' 선포식을 진행하며, 이번 행사에 참가자들은 연말 연탄배달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정신의 여유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기심이 생기고, 배려심도 사라지고 있다. 나를 돌아봤을 때 비로소 주변이 보이게 된다. 아름다운동행은 잠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밤길 걷기를 통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비는 2만원으로 이는 추운 겨울을 쪽방촌 연탄 지원기금으로 전액 사용된다. 이 금액은 약 33장의 연탄 가격에 해당된다. (02)737-9595

정혜숙 기자

본동복지관 경로당 컴퓨터 전달식

8월 20일 임원진 간담회도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8월 20일 지역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컴퓨터 전달식 및 임원진 간담회를 실시했다.

본동복지관은 경로당 8개소를 대상으로 컴퓨터 전달식을 가졌다. 본동복지관은 "경로당의 IT환경이 구축되어 어르신들로 하여금 보다 질 높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어 진행된 경로당 임원진 간담회에서는 본관 관리경로당 11개소의 회장 및 임원, 총 17명이 참석하여 2015년 신바람경로당 사업 안내 및 진행일정을 설명하고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동본지관 경로당 컴퓨터 전달식

경로당 임원진 간담회를 통해 경로당 임원진 간 상호교류 및 관계향상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긍정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내의 복지관 역할 제고 및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02)817-8052

정혜숙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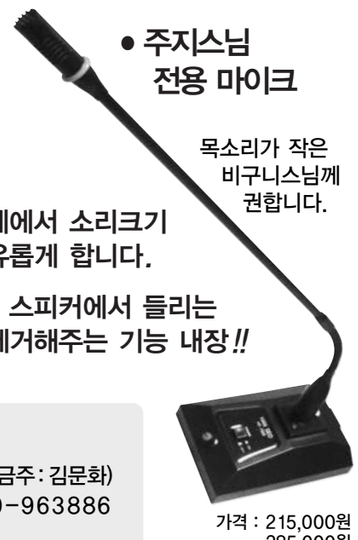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진정한 해제는 대자유인 되는 것”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식득주장자(識得 𠆢杖子)하면
줄탁지기전추봉(啐啄之機箭抽鋒)이니
별연빈주찰나분(瞥然賓主刹那分)이라.
불식주장자(不識 𠆢杖子)라도
장두유안명여일(杖頭有眼明如日)하여
한래한현호래호현(漢來漢現胡來胡現)이라.

이 주장자 진리를 알 것 같으면
줄탁의 기틀은 화살과 칼날을 잡음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손과 주인을 가림이로다.
이 주장자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장자 머리 위에 해와 같은 밝은 눈이 있어서
한인(漢人)을 만나면 한인을 나투고,
호인(胡人)을 만나면 호인을 나툼이로다.

금일은 어언 여름 석달 안거를 마치는 하안거 해제일이라. 결제에 임했던 기상과 기개로 삼복더위를 잊고 각고의 정진에 몰두해서 본분사를 해결했다면 금일이 진정한 해제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해제일이 동시에 결제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보아야 함이로다.

진정한 해제란 화두를 타파하여 자기의 본성을 알게 될 때 천하를 횡행하는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마음을 담금질하여 대오견성의 각오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해제일이 되었다고 바랑을 지고 이산 저산을 유랑을 다니듯이 정신없이 다녀서는 아니 될 것이며 화두를 걸망에 넣어두고 허깨비처럼 행각을 떠나서도 아니 될 것이다.

그렇게 허송세월만 보내서는 대도를 이루기가 불가능하니 화두를 타파하여 선지식께 인가받는 날이 해제라 다짐하고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이 혼신의 힘으로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야 함이로다.

화두를 챙김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걸음걸음마다 호흡호흡마다 화두를 여의지 않고 간절한 의심으로써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짐이 없도록 씨름해야 할 것이로다.

이렇게 일념이 되도록 노력하다보면 문득 참의심이 돈발(頓發)하여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해결되어 불조의 백천공안(百千公安)을 한꼬챙이에 꿰어 버리게 됨이니. 그러면 누가 어떤 물음을 던지더라도 석화전광(石火電光)으로 척척 바른 답을 내놓게 되고, 제불제조(諸佛諸祖)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살림살이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억만년이 다하도록 깨달은 삼매의 낙을 누리고 염라대왕이 잡으러 온다 해도 보이지 않으니 잡아 갈수가 없음이로다.

석일(昔日)에 조주 선사께서 행각 차에 황벽 선사 회상에 들르시니, 황벽 선사께서 조주 선사 오시는 것을 보시고 방장실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셨다. 이에 조주 선사께서 법당에 들어가서,

“救火救火(구화구화)라!”
“불이야! 불이야!”



하시니, 황벽 선사께서 문을 열고 나와서 조주 선사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道道(도도)하라!”
“일러라! 일러라!”

이에 조주 선사께서
“적과후장궁 〈賊過後張弓〉이라.”
“도적이 지나간 후에 활을 쏨이로다.”라고 하셨다.

일일에 조주 선사께서 임제사(臨濟寺)를 방문하여 발을 씻고 있는 차에, 임제 선사께서 다가와 물으시기를,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시니, 조주 선사께서

“마침 노승이 발을 씻는 중이니라.”

하고 대답하셨다. 이에 임제선사께서 가만히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거늘, 조주 선사께서 “알면 바로 알 것이지, 되씹어 무엇 하려는고?” 하심에 임제 선사께서 팔을 흔들며 가버리시니, 조주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30년간 행각하다가 오늘에야 처음으로 주각을 잘못 내렸다.”

시회대중은 조주 선사를 알겠는가?

수구투정투저지안(須具透頂透底之眼)하야
처처상봉선지식(處處相逢善知識)하니
당기일구천고휘(當機一句千古輝)로다.

조주 선사는 모름지기 위를 뚫고 아래를 뚫어보는 그러한 눈을 갖추어서 처처에 선지식을 상봉하니 기틀에 다다른 일구가 천고(千古)에 빛남이로다.

대중은 黃檗(황벽) 선사를 알겠는가?

용호상박 전신회피난(龍虎相撲에 全身廻避難)이라.
수연여시(雖然如是)나
호수중 정호수(好手中에 呈好手)하니
천상인간능기기(天上人間能幾幾)냐?

용과 범이 서로 부딪힘에 전신을 회피하기가 어려운지라.

비록 이와 같으나
능란한 솜씨에 능란한 솜씨를 바치니,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몇몇이나 될꼬?

대중은 임제 선사를 알겠느냐?

임제전기격조고(臨濟全機格調高)라
봉두유안변추호(棒頭有眼辨秋毫)로다.
소제호토가풍준(掃除狐兎家風峻)이요
변화어룡전화소(變化魚龍電火燒)로다.

활인도살인검(活人刀殺人劍)이여!
의천조설이취모(倚天照雪利吹毛)로다.
일등령행자미별(一等令行滋味別)이니
십분통처시수조(十分痛處是誰遭)오

환회임제마(還會臨濟麻)아?
창천 창천(蒼天 蒼天)이로다.

임제(臨濟) 선사의 온전한 기틀은 격조(格調)가 정말로 높고 높은지라, 주장자 머리 위에 눈이 있어서 가을철 털끝을 가림이로다. 야호와 토끼를 쓸어 없애니 가풍이 준걸함이요, 변화의 어룡(魚龍)을 번갯불에 사름이로다.

사람을 살리는 칼과 사람을 죽이는 검이여! 하늘을 비껴 번쩍이니 날카로운 취모검이로다.

일등 령(令)을 행함은 그 맛이 특별함이니, 십분(十分) 아픈 곳을 이 누가 알리요. 도리어 임제 선사를 알겠는가? 아이고! 아이고! 곡(哭)을 함이로다.

“수행으로 자신의 업연서 벗어나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지 못한 중생은 캄캄한 윤회의 암흑세계를 헤매고 있는데 어찌해야 그 업연(業緣)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업연은 한번 정해지면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데, 깨침을 얻는 과정에 업연이 녹아 없어진 해탈의 상태. 즉 선업의 인연 공덕이 무르익어서 그 과보(果報)가 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업연이 다하게 되며, 그 때의 마음을 진여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마음은 본질과 현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각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현상으로 모두 하나로 연결된 진여의 본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면에서 마음은 시 ·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차별이 없는 절대평등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 어떤 기연(機緣)으로 수행자가 지금 여기 순간순간의 변화를 놓치지 않을 때, 그 때가 바로 영원한 자유로움의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고, 그 경지를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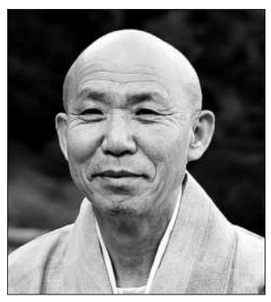
도(道)는 하나이지만 도를 증득(證得)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니, 아직도 조계산 노승의 모양다리만 보고는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법문을 듣고도 신심이 동하지 않는 많은 수행자들은 자신의 업연이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화경〉 ‘안락행품’에도 “한적한 곳에 고요히 앉아 마음을 집중하여 닦으면서 안주해 동하지 않는 것을 마치 수미산과 같이 한다.”고 했듯이 수행자들은 해제가 되었다 해도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스님이 영재(永才)스님을 기리는 시(詩)를 읊으신 뜻을 살피고, 쉼 없는 정진을 당부합니다.

막대기 들고 산을 찾으니 뜻이 깊은데
비단이나 금은보화에 마음이 끌릴손가
녹림속의 군자들아 증회를 생각마소
지옥근본 무엇인가 촌금이 뿌리로세.

“맑은 가난의 가풍 다시 세웁시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오늘은 을미년 하안거 해제일입니다. 대중은 각자 본분상(本分上)에서 열심히 정진하였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공부한 살림살이를 점검(點檢)해 볼 시간입니다. 대중은 철저히 가난해 졌습니까? 화두가 독로하여 대의단이 타파되어서 탐 · 진 · 치 삼독과 일체 번뇌 망상이 다 떨어져 나가서 텅텅 비어 한 물건도 없어져야 반분의 득(半分之得)이 있다할 것입니다. 떨치고 떨쳐서 이 몸과 이 마음까지 다 떨쳐버려서 떨쳐버렸다는 생각마저 떨쳐버려서 천하의 가난뱅이가 되어야 진정한 공부인(工夫人)이라 할 것입니다. 철저한 가난을 체득한 자라야 염라노자의 밥값 계산에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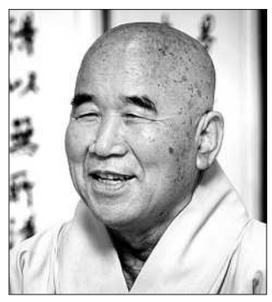
가난은 번뇌망념이 다 떨어져 나간 수행의 경지를 표현한 말이지만, 수행자에게 있어서 가난은 수행가풍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곁들어 말씀드립니다. 옛말에 “배고프고 추워야 도닦는 마음이 일어난다(飢寒發道心)”고 하였습니다. 송광사 구산스님께서도 飢寒發道心한다는 법문을 자주 하셨습니다. 발심이 그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서양에서는 “자발적 가난”이란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부자로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 일부러 가난하게 근검절약하며 정신적이 삶을 추구해 간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자본주의 폐해가 극에 달한 지금에 와서야 “자발적 가난”라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청빈(淸貧)”의 가풍을 세우셨습니다. 청빈이란 굳이 요즘 말로 하면 “맑은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를 닦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가난해져야 하고, 맑은 가난인 청빈가풍이 갖추어져야만 제대로 수행가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가난한 것은 가난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진실로 가난한 것이다
몸이 가난해도 능히 도를 닦는다면
이름하여 청빈한 도인이라 하리라

“수행자는 무심의 낚시꾼이니”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수행자는 낚시꾼입니다. 어떤 낚시꾼이냐 하면 화두는 낚시 바늘이 되고 무심으로 밑밥을 삼았습니다. 까마득한 천 길 낭떠러지 위에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 있다 해도 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봄에 바닥까지 훤히 꿰뚫어 보이는 연못입니다. 너무나 맑고 투명해 어떠한 눈 속임수도 통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철저한 무심이라는 밑밥이라야 주인공 (神魚)신어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분별하는 마음이 일렁이면 곧바로 숨어버립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예리한 일념 화두의 낚시 바늘을 드리우고 모든 것과 혼연일체가 되어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노라면 밝은 달빛에 매료되어 아무것도 눈치 채지 못한 신어는 비늘을 번뜩이며 물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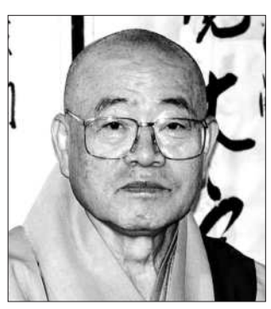
유유히 헤엄을 치다가 의심스럽거나 경계할 만한 것이 없다고 여긴 신어는 드디어 먹이를 덥석 물게 됩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순식간에 낚아채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일념화두의 바늘에 걸려 솟아오르며 푸득 거리는 모습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무애자재한 해탈의 한바탕 춤사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푸득 거릴 때마다 달빛을 머금은 물방울이 장엄하게 아득한 수면위로 떨어져 내립니다. 이는 생사윤회와 번뇌망상의 미운에서 벗어나 광명으로 충만되는 환희의 순간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법석은 모든 대중이 90일 동안 주인공 신어를 낚아 올리기 위해 부단히 애 쓴 것에 대한 각자의 살림살이를 판단해 보는 자리입니다. 수행의 묘는 명철한 직관력으로 깨닫기 전에는 멈추지 않겠다는 용맹심에 있습니다. 비워낼 것은 철저하게 비워내서 가마솥에 얼음을 던져 넣은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말고 섬세함에 있어서는 바늘을 던져 겨자씨를 맞추는 정확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미진한 것이 있다면 오늘 해제는 마음을 다잡는 의식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해제 아니다”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解制는 只了一大事니 打破漆桶하고 發明眞性하야 上報四重思하고 下濟三途苦가 只在當人手中이요, 不在於佛하며 不在於祖하니 大衆은 且道하라. 還可了事耶否아? 於此에 不實인댄 云何解制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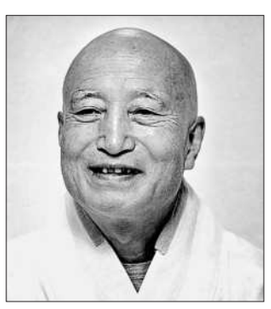
해제는 다만 일대사를 마침이니 칠통을 타파하고 진성을 발명해서 위로는 네가지 중한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삼악도의 고통을 제도하는 것이 다만 당인의 수중에 있음이요, 부처님에게 있지 아니하며 조사에게도 있지 아니함이니 대중은 또 일러라. 도리어 가히 일을 마쳤는가? 이에 바로 알지 못했을진댄 이른어찌 해제라 하리요.

頌曰
人人本有眞法身은 亦無去來不生滅이로다.
虛明自照無障碍하니 自度他度淨國土로다.
사람마다 본래있는 진법신은 또한 오고감이 없을뿐만 아니라 생멸도 없도다. 허명이 스스로 비취 장애가 없으니 자신도 제도하고 다른 이도 제도하여 국토를 청정케 하리라.
人生百年이 只在一息之間이어늘 之南之北에 有何急事오. 於此末世에 等閑遊戲라가 莫作街頭에 獨坐歎息之人하라.
인생백년이 다만 호흡간에 있거늘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감에 무슨 급한 일이 있으리요. 이 말세에 등한이 놀다가 거리에 홀로 앉아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말라.

頌曰
衲子正坐靜默兮여 無上大道於此成이로다
無說而說眞妙法하야 度脫萬類成太平이로다.
게송으로 이르시되
납자가 정좌하여 묵묵함이여, 위없는 대도를 이에 이루었도다. 진실한 묘법을 설함없이 설해서 만류를 제도하여 태평한 세상을 이루도다.

“일체 번뇌 다 떨어져 시방세계 비추니”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공부가 성숙되어 일 마친 사람이야 세월이 가고 오는데 무슨 상관이랴 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아까운 시간들이다. 다이아몬드를 섬으로 주고도 살수 없는 귀한 시간들이 가고 있다. 부질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 말고 진실(眞實)을 향해 갈일이다.

부처는 무엇이고 법(法)은 무엇이며 도(道)는 무엇인가? 영원히 순수하여 조작이 없는 것이 부처요, 일체 번뇌가 다 떨어져 시방세계를 환히 비추는 것이 법이요.

일체의 탁하고 더러움이 다 쓰러져 전후제(前後際)가 끊어져서 홀로 드러나 당당하고 분명하여 법(法)과 법(法)이 상응(相應)하고 티끌과 티끌이 해탈하여 영겁(永劫)토록 자유(自由)하고 걸림이 없는 도리더라.

말인 즉은 부처와 법과 도가 셋으로 나눴지만 실은 하나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완전한 생활(生活)은 아집(我執)이 사라지고 탐욕이 없어지며 다툼도 없어지고 명성(名聲)과 이익(利益)을 위해 살지 않으므로 완전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 즉 부처다.

이럴 때 내재(內在)의 연꽃이 활짝 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경(究竟)이며 우리가 성취(成就)해야할 경지이다. 여기에는 희망도 고통도 미래도 지혜도 미련함도 탐진 오욕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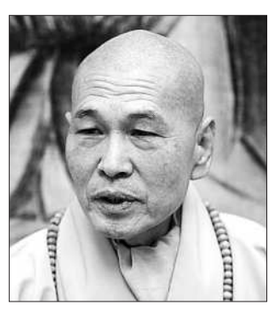
오로지 당하(當下)에 꽃이 피는 고요하고 상서로운 곳이다.

朗朗輝光照大千
東西南北常安然
諸般所作皆空空
蕩蕩無碍現古風

휘영청 밝은 빛이 대천세계를 비치고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도 편안하여라.
하는 일 모두가 텅 비고 비어 휑 트여 걸림 없이 옛 가풍을 드러내더라.

“본질적인 참선 공부를 생활화 해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영산회상에서 대중들에게 연꽃을 들어 보이심이여!(靈山會上擧拈花)
다자탑 앞에서 자리 한 켠을 나누어 앉으심이여!(多子塔前分半坐)
입멸직후 두발을 곽 밖으로 내 보이심이여! (沙羅雙樹下槨示雙趺)

이를 두고 세존께서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하신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타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 앞에서 삼처전심이 무슨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각자의 욕망성취에 끝없이 바쁜 세상입니다. 수행과정도 없는 우리가 선각자들의 깨달은 결과나 그분들의 행적을 또는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서적들을 자습서처럼 보고 베끼고 외우고 흉내 내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물며 시공을 초월한 창조적 변용으로 요익중생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습서 베끼는 어릴 적 공부가 생각납니다.

이럴 때 일수록 근원적인 공부에 충실해야합니다.

깨침은 있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자각각타 각행원만(自覺覺他 覺行圓滿)은 대승불교의 핵심이 아닙니까?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며 그대로가 부처라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적고 교리행과를 지식으로만 느끼고 자증자오(自證自悟)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하는 원력이 없거나 미약해서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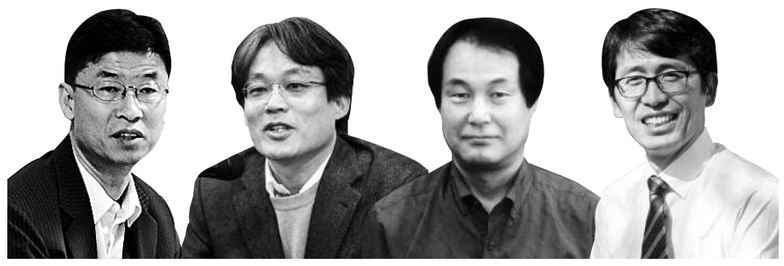
해제기간이라해서 방학을 맞는 학생들처럼 자유로워지는 것은 괜찮지만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선원 밖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모두를 받들어 모시는 자세여야지 작은 경험을 안다는 듯이 여유 부리면 안 됩니다. 독재자들처럼 자기 위상만 높게 책정하여 대중을 외면하는 불통자가 되면 안 되듯이 설사 최상의 간화선자라 할지라도 자기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면 전대중과 상식도 불통하는 오만한 자가 됩니다.

"불교와 민족주의 결합은 불교 교의 파괴"

불교평론, 창간 16주년 기념 '불교, 내셔널리즘' 세미나서

불교평론은 창간 16년을 맞아 8월 28일 '불교,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을 말하다'를 주제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민족주의와 결합한 불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종인 조명제 원영상 김영진

김종인 "불교, 민족주의로 힘을 잃다"

김종인 경희대 교수는 '한국불교 내셔널리즘의 역사와 평가'에서 한국불교의 민족주의 운동에 비판을 가했다.

김 교수는 먼저 "한반도의 불교는 오랜 세월 국가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국가종교로 존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불교는 왕실과 귀족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지 못했고, 이 역학관계에서 아래에 있었다. 이 한계는 조선시대 명백했다. 신흥 사대부의 억압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불교를 우대하는 일제 치하에서 많은 불교인들은 민족주의자보다는 식민지 정부에 협조적이었다. 해방 이후 불교인들은 문화민족주의를 강화해 불교의 사회적 가치를 부각시켰으며 이를 통해 민족문화의 한축으로 자리잡게 됐다"고 설명하며 민족주의 열풍 속에 불교가 휘말리는 것을 경계했다.

조명제 "문화민족주의에 매몰돼 박물관화"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불교 내셔널리즘의 발생과 전개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에서 한국불교가 근대 산업화 시기의 반대급부로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제시됐고, 그 혜택의 이면으로 박제화된 박물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근현대 제국주의 관련 불교행보 고찰
독립운동 미명하에 살생합리화 비판
"불교전통문화 '박물관 전락' 우려"

조 교수는 "불교계는 박정희 정권이 민족문화 복원을 기치로 경주를 비롯한 문화유적을 발굴, 정리하고 관광지화하는 과정에서 큰 혜택을 입었다. 하지만 그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이 박물관화됐다. 또한 최근에는 불교 종교의례나 신앙대상이 문화유산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는 불교가 갖는 사회인식 부재와 빈곤함을 돌아봐야하는 시사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원영상 "일본불교 제국주의에 종속"

원영상 원광대 교수는 '일본불교의 내셔널리즘의 기원과 역사, 그 교훈'을 통해 일본의 근대불교가 국가 하부구조로 편입됐으며 이는 자발적 국가주의였다고 진단했다.

원 교수는 "1868년 메이지유신 전후 새 정부는 천황의 권력을 복귀시켜 신국가의 강력한 구심점으로 삼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식 법난인 '폐불훼석'이 일어났다. 이는 신불 분리정책으로 전국신사의 승려가 환속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불교는 스스로 공인교 운동을 통해 국가 보호를 받고자 했다. 특히 식민지 국가에서 군국주의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교의를 왜곡시키면서까지 국가의 도구가 되어갔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이어 "2011년에야 조동종은 탐화를 통해 참회와 실천의 담화를 통해 사죄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중국 일제 대응하며 살생 합리화"

김영진 동국대 교수는 '중국 근대 타이쉬의 불교호국과 내셔널리즘'을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불교의 사상이 민족주의로 발현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타이쉬는 사회 위난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 중생구제의 일환이라고 인정하며 불교인도 적을 물리치는 행위가 항마의 일환임을 역설한다"며 "이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로 항마를 위해 사람을 죽이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으 불교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당시 약소국인 중국의 내셔널리즘은 저항적일 수 밖에 없지만 이것을 합리화하는데는 위험이 도사린다"라며 "불교가 거대종교로 존재하는 여러 국가에서 이는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말했다.

한국 전통산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는?

9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2차 국내학술회의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는 오는 9월4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전통산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를 주제로 제2차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의 '한국 산지가람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박종관 건국대 교수가 '한국 산사의 자연입지 특성', 엄기표 단국대 교수가 '법주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양은경 부산대 교수가 '부석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한정호 동국대 교수가 '통도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봉정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김정희 원광대 교수가 '선암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송은석 동국대 교수가 '대흥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주수완 고려대 교수가 '마곡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이혜은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남동신 서울대 교수, 류성룡 계명대 교수,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 홍광표 동국대 교수를 포함한 5명이 발제자와 토론을 갖는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일대기 〈월인석보〉 경매 나온다



1459년(세조 5) 간행된 석가의 일대기인 〈월인석보(月印釋譜)〉 등 보물 18점이 경매에 나온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저축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월인석보(月印釋譜 · 사진) 등 보물 18점을 10월 경매 시장에 내놓기로 하고 매각주간사 회사로 미술품 경매회사 서울옥션을 선정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보물 제745호 월인석보는 1459년에 세조가 부왕 세종과 먼저 세상을 떠난 큰아들 세자 도원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엮은 석가의 일대기다.

세조는 부왕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자신이 지은 '석보상절'을 설명으로 담았다. 조선시대의 목판 인쇄 기법을 엿볼 수 있는 귀한 문화재다.

월인석보를 비롯해 고서화 1000여점 등은 김민영 전 부산저축은행장이 소유하던 것으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 전 저축은행장으로부터 확보해 예금보험공사에 인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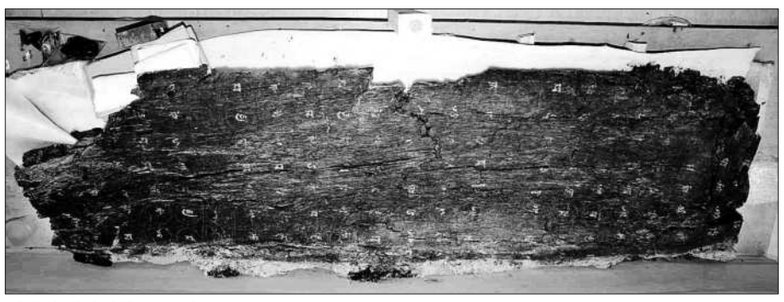
검찰은 김 행장을 추궁해 그가 월인석보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됐을 때 남긴 필적 하피첩,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3권 등 보물 18점을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불교문화재 수집가로 널리 알려졌던 김 행장이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의 '컬렉션'을 10억 원에 황급히 넘겼던 것이다. 결국 김 행장은 검찰에 보물 18점과 고서화 950여 점을 제출했다.

노덕현 기자

금빛 범어 장식된 고려 목관 출토 '눈길'

나주문화재硏, 순창 농소고분서 확인… 13~14세기 제작

육자진언 등 300자 적혀져
범어 장식 목관 출토 '처음'
불교 신앙 깊숙이 자리매김



범어가 장식된 출토 목판

금빛 범어 진언으로 장식된 고려시대 목관이 발견됐다. 이는 고려시대의 장례문화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초로 여겨진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상준)는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순창 운림리 농소고분에서 출토된 관곽(棺槨)을 조사한 결과, 관곽의 안쪽 목관(木棺)의 외면에서 금빛으로 화려하게 쓰인 300여 자의 범자(梵字)를 확인했다.

목관의 재질은 소나무이며,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결과 13~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소고분 목관에서 확인된 범자. 고려~조선 시대 주로 사용된 실담체와 란자체로 써졌다.

목관의 표면에는 고려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주로 사용됐던 범자인 '실담체(6세기 창제된 범어를 적는 문자)'와 '란차체(10세기 창제된 범어를 적는 문자)'가 적혀져 있다. 범어에 내용은 '육자진언(육자대명왕진언)'과 '파지옥진언' 등 진언 2종이다. 글자는 금가루로 쓰여 있으며, 흰색의 원형무늬가 각각의 글자 바깥을 장식하고 있다.

목관에 적힌 두 진언은 중생을 구제하여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현재까지 출토된 고려 시대의 목관에서 '파지옥진언'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삼국 시대 고분으로 알려졌던 순창 농소고분은 지난해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 시대 덧널무덤(土壙木槨墓, 토광목곽묘)으로 확인되었으며, 청동합(靑銅盒), 청동수저를 비롯하여 머리카락을 뭉친 다발이 가지런히 담긴 청동반(靑銅盤) 등이 출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고려시대 목관이 온전하게 확인되고 범자가 쓰여진 사례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청동 금속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금가루로 써진 범어로 장신된 목관을 보아 상당한 고위층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당시 불교문화가 어떻게 장례문화와 접목됐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수습된 목관에 대한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고분의 성격, 출토 유물, 범자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은 발굴조사보고서를 내년에 발간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원주 교항리 佛頭, 제 몸 찾는다

원주시, 문화재청 발굴 현상변경 허가 완료



원주시가 현재 머리만 남아 소초면 교항리 마을회관 야외에 보관중인 불두(佛頭)의 원형 찾기에 나선다.

이 불두는 원래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도로변의 거대한 자연암석을 몸체로 하던 것으로 부처님의 몸에 해당하는 부분은 1980년대 옛 국도 42호선 도로 확장공사 중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성토작업과 함께 도난 위기에 있던 불두만을 마을 사람들이 모셔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불신(佛身)으로 쓰인 자연암석에는 옷 주름이 선각(線刻)되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직접 나서 불두와 불신이 떨어진 부처님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지역의 문화재 원형 찾기와 보존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원주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하고, 다음 달 중순께 전문 문화재조사 기관에 의뢰해 교항리 불두의 불신을 찾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호국·문화사찰로 대흥사 발전을”

대흥사 23대 주지 월우 스님 취임… 지역 발전계획 밝혀

해남 대흥사 제23대 주지로 월우 스님이 취임했다. 해남 대흥사는 8월 26일 대웅전 앞에서 회주 보선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과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전남지역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과 김영록 국회의원, 대흥사 신도회 김동섭 회장을 비롯한 1000여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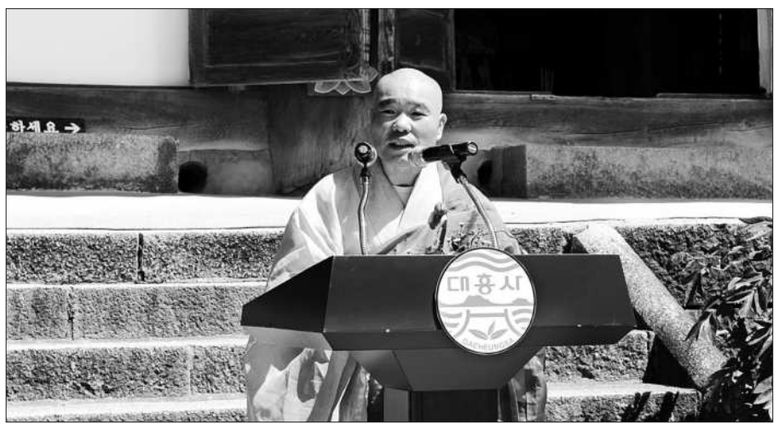
이날 월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대흥사는 조선시대 선교양종의 대도량으로 서산대사의 호국불교와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이 계승하고 있는 역사깊은 사찰”이라며 “입적하신 천운 스님의 전법과 하화중생의 원력을 새겨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취임 후 중요 역점사업에 대해 “본사와 각 말사와 협의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민해 같이 풀어가겠다”며 “기존 템플스테이에 힐링, 요가, 사찰음식 등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하겠다”고 구체적 지역 포교 방안을 밝혔다.

월우 스님은 “대흥사는 서산대사의 유훈과 호국정신을 계승한 사찰로, 전임 소임자부터 진행한 ‘호국의승의 날’ 지정과 ‘호국대재’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참여를 넓혀가겠다”고 역점사업을 밝혔다.

스님은 또 “지역 신도 대상으로 하는 법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혼자만의 힘이 아닌 말사와 신도, 해남군 등 함께 변화와 발전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밝혀
지역 중심사찰 역할 다짐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이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회주 보선 스님은 선종(禪宗) 5조 법연스님과 제자 불감 스님의 일화를 예로 들며 “주지는 부처님의 법을 이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가꾸는 일로 선사의 말을 귀감삼아 대중이 화합하고 열심히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흥사는 해남, 영암, 강진 등 7개 군과 광주,목포 등 2개 시에 걸쳐 전체 44개의 말사를 거느리고 있다.

월우 스님은 지난 1978년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쌍계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행정학 석사와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을 거쳐 대원사, 도갑사 주지, 중앙승가대학교 총무처장, 조계종 4선 중앙종회의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감사와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 인천 국제공항 경찰대 경승위원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불넷, 제1차 주말 생명평화학교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곽인순)는 8월 22~23일 전북 고창과 부안 일대에서 ‘제1차 생명평화주말학교’를 진행했다. 전북지역의 초등학생 30여명이 동참한 ‘생명평화주말학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의 고인돌유적과 박물관 견학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 갯벌, 부안 개암사 탐방 등이 진행됐다.

고창 하전갯벌마을에서 진행된 갯벌체험은 갯벌 생명체인 게, 조개 등을 관찰하며 생명과의 공존과 평화를 느끼는 자리였다.

이어 부안 개암사(주지 재안)에서 템플스테이 명상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내려놓고 우주의 기운을 느껴보는 시간도 가졌다.

재안 스님은 “자연처럼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느껴서 집에 돌아가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유빈(전주 신동초 5)학생은 “절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명상을 하면서 좋은 느낌을 받는 것 같다” 며 “다음 2차 프로그램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생명평화주말학교 문화유적 답사는 9월 19~20일 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칠석맞이 문화마당

칠월 칠석을 맞아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문화마당이 완주 송광사에 펼쳐졌다. 송광사(주지 법진)는 8월 22일 ‘한 여름밤의 클래식 포 유’라는 주제의 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아르스노바 남성중창단과 바리톤 김재일, 메조소프라노 백재은의 상악가들과 바이올린 김수연, 피아노 함동균 등 클래식 음악가들이 출연해 무더운 한 여름밤 산사를 찾은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음악회에는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을 비롯해 수원 팔당사 회주 혜광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사찰음식 전문가 대안스님 등 300여 대중이 참석해 클래식 향연에 녹아들었다.

법진스님은 “올해 첫 선을 보인 문화마당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앞당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마당 동안 송광사 관음전에는 사찰음식 전문가 대안 스님 초청 연(蓮)음식 전시회가 열렸다.

송광사의 연밭에서 생산된 연꽃과 연잎을 재료로 12가지의 연 관련 사찰음식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베트남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요”

전북 최초 베트남불자회 창립 ‘화제’

전북지역 최초의 베트남 불자회가 창립됐다. 전북 전주, 김제 등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이주민 여성들과 가족으로 구성된 베트남 불자들은 8월 23일 참좋은우리절 3층 큰 법당에서 베트남 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전북 베트남불자회는 서울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광주 원오도량 드엉탄스님과 광민스님, 참좋은우리절 주지 회일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전북지역의 베트남 출신 불자들과 가족 100여명이 참석해 베트남식으로 진행됐다.

베트남불자회 창립은 대부분 불자인 베트남 결혼이주민들이 정상적인 신행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이뤄졌다. 사연을 접한 전주 참좋은우리절 주지 회일 스님의 주선으로 서울과 광주의 베트남 불자도량인 원오도량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회일 스님은 “불교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찾지 못해 이웃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이번 창립법회를 통해 전북지역 베트남불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대다수 불교국가출신인 캄보디아, 미얀마 등 전북지역의 결혼 이주민을 위한 법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으로 초대회장을 맡은 홍현주 회장(28세)은 “사찰을 다니고 싶어 하는 베트남 이주민들이 많았는데 전북지역 베트남 출신 이주민들만의 법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신행 활동을 통해 베트남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트남불자회는 자국출신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물론 다양한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진행 등 공동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국민들의 친목도모와 신심고취, 자국스님 초청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좋은우리절 관계자는 “이주민이 160만을 넘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주민에 대한 포교. 전법 활성화는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라며 “전북베트남불자회가 바른 신행활동과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다문화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참좋은우리절은 관세음보살 입상 점안법회 및 제막식을 봉행했다. 2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관세음보살 점안법회에서는 점안의식에 이어 육법공양, 관세음보살 보문품 독송, 정근, 축원 등이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모연의 현대적 기법 활용”

광주불교聯 불교모금 특별강좌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에서 주최하고 빛고을나눔나무에서 주관하는 ‘2015모연(모금)아카데미’가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총 6회에 걸쳐 광주NGO센터(상무빌딩 7층) 공동체홀에서 개최된다.

광주전남 불교계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이번 모연강좌는 사찰 및 불교단체 실무자와 체계적인 불사모연에 대해 배우고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마련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번 강좌를 통해 다양한 단체의 모금성공사례와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코칭으로 불교모금(모연)의 희망과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

강의를 맡은 가치혼합경영연구소 김재춘 소장은 아름다운가게 정책실장을 지내고 2014 서울시 대외협력보좌관으로 활동했다.

△1주차(10월5일) 불교모금의 개념과 이해 △2주차(10월12일) 모금 계획의 수립 △3주차(10월19일) 기부자의 선정과 조사 △4주차(10월26일) 제안요청의 요령과 기술 및 제안서작성 △5주차(11월2일) 후원개발 사례 발표 △6주차(11월9일) 후원개발 즉문즉답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주관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는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비영리단체이다. (062)229-959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국립광주박물관 ‘담양’ 특별전

용흥사 동종(보물 제1555호)을 비롯한 담양의 문화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담양군과 공동으로 특별전 ‘담양’을 8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한다.

담양은 수많은 누정과 원림을 무대로 면앙정 송순을 비롯하여 송강 정철, 석천 임억령 등 수많은 문인들에 의해 국문학사에 길이 남을 주옥같은 작품들이 탄생된 한국 가사문학의 산실이다. 또한 ‘한반도의 대숲’으로 불릴 정도로 대나무와 죽제품이 유명한 담양은 잘 가꿔진 대숲과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많은 이들에게 훌륭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국립광주박물관이 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남도문화전〉 시리즈의 여섯 번째 전시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담양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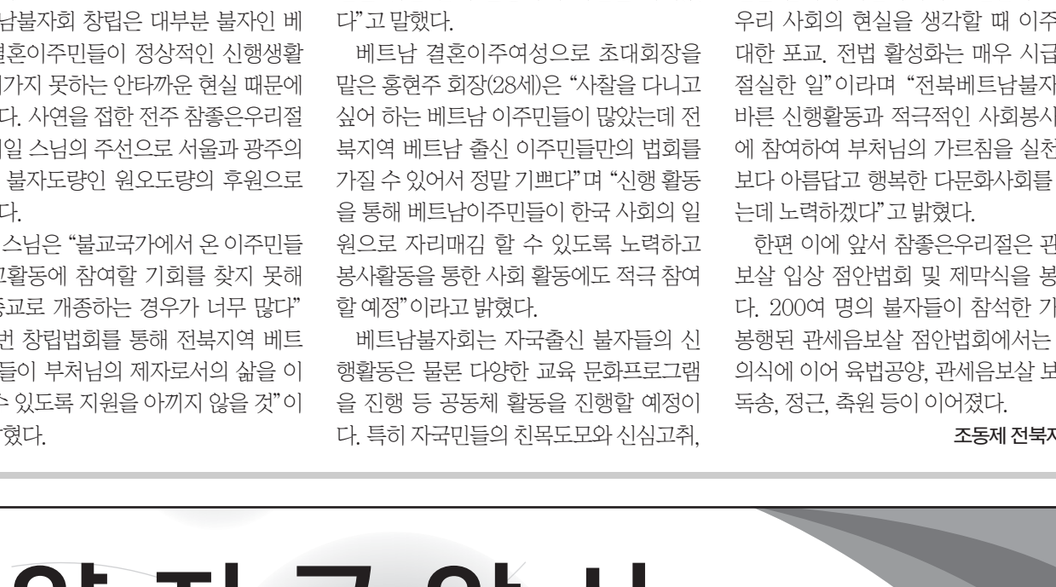
1부는 전시 도입부로 ‘자연과 사람’이 주제다. 담양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환경과 역사·문화의 흐름을 사진, 지도, 연표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2부는 고고학적으로 ‘선사와 고대’ 문화를 다룬다. 수북면 풍수리유적 등에서 확인된 뗀석기로 1~2만 년 전 인류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3부는 ‘중세와 근세’ 문화로 관광·생산유적, 불교문화, 유교문화, 누정과 가사문학으로 나누어 전시한다. ‘불교문화’ 부분에서 용흥사동종(보물 제1555호)을 비롯하여, 용추사 등 담양지역의 고찰에서 간행된 불교서적으로 담양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된 불교문화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조역대통재(보물 제737호) 등 용화사의 묵담스님 자료 가운데 정수를 뽑아 출품된다.

4부는 ‘근대와 현대’ 분야로 담양의 인물, 근대교육, 문학, 미술로 구성하였다. 의병장 녹천 고광순, 고하 송진우, 춘강 고정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담양을 빛낸 인물들을 조명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부산불교 100년, 그 가치를 재조명한다"

부불연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 추진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가 부산 불교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부산불교 100년사〉발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이하 연합신도회)는 '부산불교연합신도회 108인회'를 창단하며 학술적 근거 자료 및 연구를 위한 '부산불교교육학술원'을 개원한다.

연합신도회는 지난 8월 24일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불교 역사 재조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윤희 회장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호국 불교의 중요성 및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스님들에 대해 알릴 필요성을 절감하고 또한 역사 속에 불교의 중요한 위치가 간과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 발간을 추진하게 됐다"며 "100년간 부산불교의 역사를 조명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 100년을 대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부산불교 100년사〉는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 광복, 6·25이후 현대화 과정을 담고 그 가운데 불교의 역할을 찾고 숨겨져 있던 면을 찾아 그 가치를 밝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각계 전문가와 전문가 추천을 받은 편집위원 33인을 집필위원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올해 2015년을 기한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부터 집필을 시작해 4년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정 및 교정을 이어간다. 책 출판 기념회는 2019년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 될 예정이다.

이윤희 회장은 "3·1운동 민족 대표였던 백용성 스님의 활동과 공로는 너무나 훌륭한데 그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 백용성 스님과 같이 불교계에 숨은 보석같은 고승 대덕 스님들을 소개 할 것이다"며 "그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인 성격을 가진 신뢰성 있는 책으로 완성할 예정이며 후세에도 뛰어난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1919년~2019년 불교 역사정리
3·1일절 100년 맞아 출판 계획
각계 지도자 모아 '108인회' 결성
부설 부산불교교육 학술원 개원도

〈부산불교 100년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부산불교연합신도회 108인회' 1기를 모집한다. 향후 기수별 클럽제로 운영 될 '108인회'는 부산의 정치·경제·문화 지도자들과 재가 불교를 대표하는 단체장 및 CEO컨퍼런스 임원단, 16개구군의 연합신도회 회장단, 각 종단의 사찰 및 신도 대표자로 구성된다.

이윤희 회장은 "108인회를 구성, 책 발간 뿐 아니라 부산 불교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며 "부산 불교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108인회 모집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부산불교 100년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책을 발간할 계획이다. 부산불교연합회 직원들이 함께 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아울러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을 위해 연합신도회는 '부설 부산불교교육학술원'을 개원하고 객관적 자료 취합과 연구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초대 원장은 前 부산교수불자회 회장 박영병 교수가 맡는다. 앞으로 학술원은 불교 교육 및 컨퍼런스 교육을 진행하며 고증화가 필요한 역사 자료 수집 및 자료화에 힘쓸 계획이다.

박영병 교수는 "불교 역사를 찾아 정리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심의 위원 및 연구 위원을 초빙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많은 증언을 듣고 검증을 거쳐서 제대로 된 불교역사서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4년간의 탈고 과정을 거치는 방대한 작업인 만큼 많은 자료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2015년 팔관회 행사 및 사명대사추모대재' 일정이 변경됐음을 알렸다. 팔관재계 토론회는 9월 4일 오후 3시 안국선원교육관에서 율사 스님을 모신 가운데 개최한다. 기조연설은 수진 스님, 주제 발표는 지현 스님이 나선다.

이어 사명대사 열반 405주기 추모대재는 10월 8일 오후 3시 어린이대공원 사명호국광장에서 봉행한다. 1부 호국영산대재, 2부 추모대법회로 진행된다. 10월 17일 12시 40분에는 호국기원대법회, 팔관재계수계식, 백희가무가 범어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가톨릭 신부·신자 템플스테이 피정 '화제'

은해사서 8월 30일부터… 신부·스님 군대 인연으로

가톨릭 신부와 신자 70여명이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로 피정(避靜)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가톨릭 대구대교구 제2대리구 대리구장 박성대 신부는 8월 30일 영천 은해사에서 피정을 했다. 가톨릭 신자가 개별적으로 사찰로 피정을 떠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단체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번 템플스테이 피정은 박 신부와 은해사 부주지 보월 스님이 군에서 군종장교로 함께 생활한 것이 인연이 됐다. 두 사람은 전역 후에도 친분을 이어갔고 보월 스님이 은해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일을 맡자 현지를 둘러본 박 신부가 은해사의 교육 장소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박 신부는 자신이 주관하는 성서모임의 신자들과 1년에 2번 떠나는 피정 가운데 이번 여름 피정을 이곳에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월 스님은 박 신부 일행에게 1시간 가량 특별 법문도 할 예정이다. 박 신부는 "일반적으로 종교 행사는 자신들의 시설에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처럼 사찰에서 피정을 하면 종교를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회향

조계종부산연합회, 8월 24일 부산 홍법사 대광명전서

부산 조계종 20여개 사찰과 재가 불자 2000여 명이 동참해 새로운 수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가 '을미년 하안거 재가안거수행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8월 24일 부산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열린 이번 해제법회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수진 스님, 부회장 정현 스님, 심산 스님 및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해제법회 1부에서는 금강경 독송과 참선, 다라니, 사경, 독경, 기도 등 참가자들의 수행법에 맞춰 수행 경험을 나누는 '수행 모둠 나누기'를 진행했다. 수행 모둠 나누기 진행 후 참가자들은 각 조별로 나눠 이야기한 수행담을 모아 발표하며 서로의 수행을 독려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을미년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해제법회'를 봉행하고 수료증을 받았다.

법회에서 회장 수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수행의 공덕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며 더욱 수행 정진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자연 훼손하고 수행환경 파괴하는 재앙의 출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등반대회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회장 심규명·이하 대책위)는 8월 22일 신불산을 등반하며 자연환경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이 자리에는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위원장 마벽)와 본말사 스님 200여명, 시민단체, 불교 신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8월 22일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입구에서 경과보고 및 영축산과 신불산 보전을 위한 호소문 낭독, 격려사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간월산장에서 간월재까지 약 4.1㎞의 산행을 한 뒤 신불산케이블카 설치반대 기원제를 올렸다.

통도사 유나 천진 스님은 "통도사와 통도사 인근의 산이 소수의 개발자들과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파괴되고 있으며 자연 훼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몰고 올 지경에 놓여 있다"며 "영축산에 깃들어 사는 수행자로서 오늘 이곳 신불산에 모여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천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는 영남알프스의 낙동정맥이 파괴되는 재앙의 출발이고, 시민들의 세금이 대거 투입되는 세금 낭비 행위이며, 간월계곡의 돌풍으로 더 큰 인재를 몰고 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 근처에는 알프스온천 번영회 및 지역 청년 20여명이 찾아와 "스님들은 속세의 일에 참견말라"며 케이블카 설치를 지지했다.



신불산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스님과 사부대중들이 신불산에 올라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기원제를 봉행했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김천 수도암, 경전공부로 하안거 해제

9월 3일~6일, 원순 스님 특강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 원순 스님의 경전 릴레이 법회가 김천 수도암(주지 원인)에서 개최된다.

김천 수도암 봉황루에서 열리는 이번 법회에서 원순 스님은 자신이 역해한 저서 〈진심직설〉, 〈신심명 증도가〉를 교재로 하루에 세 차례씩 강설한다. 개강일은 9월 3일이며 9월 6일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된다.

〈진심직설〉은 고려 중기 송광사 중흥조 보조 지눌 스님(1158-1210)의 저서다. 이 책은 만법(萬法)의 근본이 진심임을 밝히고 그 본바탕과 쓰임새, 닦는 법 등을 밝힌 선서(禪書)이며 지눌 스님의 저서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다.

원순 스님의 또 다른 역해 저서인 〈신심명 증도가〉는 중국 선종 3조 승찬 스님의 저술 〈신심명〉과 영가스님의 저술 〈증도가〉를 함께 다룬 책이다.

원순 스님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수행자들이 행복해지기를 발원한다"며 "마음껏 공부하고 소통하며 불법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학인들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암 주지 원인 스님은 "뛰어난 수행 도량으로 알려져 있는 수도암에서 승가와 재가자가 함께 오로지 불법 공부를 위한 법회를 여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참 행복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since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10-2094-2991-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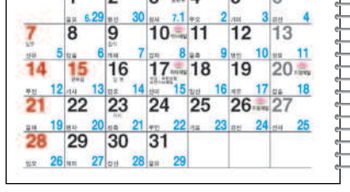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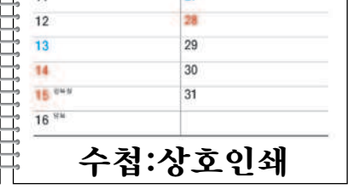




12절:상호인쇄


미니:상호인쇄





수첩:상호인쇄

12절(벽걸이형)달력
삼천부 이상 @ 800원
• 1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26.5㎝

한지달력 200부 이상 @
• 정가 1800원
• 규격 : 30㎝×63㎝
1,600원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13.4㎝
• 매수:18장

탁상달력 200부 이상 @
• 정가 1800원
• 규격 : 26㎝×19㎝
1,600원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원
• 100부 @600원
• 규격 : 8.9㎝×9.5㎝
• 매수:16장

올바르지 못한 힘은 흉기… 세상 어지럽힌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⑮ 제천대성이 된 손오공



그림 · 최주현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더라? 화과산 수렴동 원숭이 왕국 어수선하다. 혼세마왕이라는 요괴의 침략으로 망하기 직전이로다. 이때야말로 그동안 배워온 법술의 위력을 뽐낼 때. 단숨에 혼세마왕 때려잡고 왕의 위엄을 떨치도다.

이때부터 승승장구~ 자신의 힘을 깨달은 손오공

힘자랑, 세력 쌓기 시작하도다. 오래국 무기 창고 털어와 원숭이 군사 무장시키고 여러 요괴의 두목들과 두루 사귀며 동해 용왕국에 쳐들어가 여의봉 강탈하고 염라대왕의 명부에 이름 삭제하여 명실상부하게 영생을 얻는구나. 도를 모르는 자의 힘자랑 어디까지 갈까.

온 세상 시끄럽겠네!

용왕의 상소, 지장왕보살의 상소, 옥황상제에 올라오도다. 마땅히 군대를 보내 토벌할 일이로되 무력을 앞세우기 보다는 회유가 먼저지. 적당히 필마온 벼슬 내렸다가 낮은 벼슬에 불만 품은 손오공 난동에 결국 한판 무력 충돌……. 이 원숭이 정말 만만치 않아서 제천대성이라는 허울뿐인 벼슬로 달래도다. 허울뿐이라지만 얼마나 위대한 벼슬이름인가.

'하늘을 평정한 큰 성인' 이로다.

'성공을 거두고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衣錦而夜行)는 말이 있더군요. 항우(項羽)의 말입니다. 옛날의 친했던 이들에게 자신의 출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말한 것이라 할까요?

아무튼 원숭이 왕이었던 손오공, 번듯하게 성과 이름도 얻고 많은 도술도 배워서 돌아가게 됩니다. 도술을 배우다 가는 거니까 비단옷 입고 고향에 돌아가는 금의환향(錦衣還鄕)은 아니겠지만요. 또 아직 손오공은 큰 도를 끝까지 추구하지 못하고 파문되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큰 좌절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선술을 배워 불로장생하게 되고 많은 술법을 배운 자신이 그저 장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왔던 길을 근두운 타고 휙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의기양양~.

그런데 돌아온 원숭이 왕국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완전히 전쟁 상황! 알아보니 혼세마왕이라는 자의 침입으로 많은 원숭이들 잡혀가고, 남은 원숭이들 결사항전의 각오로 임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런 위기상황이야말로 그 동안 닦아온 술법의 위력을 드러내기 정말 좋은 상황이군요. 안성맞춤이랄까요? 손오공 한달음에 혼세마왕 본거지로 쳐들어가 여러 가지 술법으로 단숨에 혼세마왕 무찌르고, 포로로 잡혔던 원숭이들 구하여 당당하게 귀환! 그야말로 왕의 귀환이군요. 이 대목에 손오공의 술법들이 하나하나 소개되네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몸에 있는 털을 뽑아 작은 분신으로 둔갑시키는 술법이죠. 수많은 작은 손오공들 요괴에게 와르르 달라붙어 때리고 꼬집고 할퀴고……. 으흐흐~ 신기하고 통쾌해라.

이크, 이런 작은 일에 재미있어 할 때가 아니군요. 이야기를 좀 바삐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때부터입니다. 손오공이 자신의 힘에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가요. 한번 휘둘러보니 못할 게 없군요. 혼세마왕으로부터 얻은 국방의 소중함에 대한 교훈으로 오래국 무기 창고를 통째로 털어오죠. 물론 술법으로 도둑질! 군사조련 열심히 시켜 사방에 위세를 떨치고, 세상의 한가락 하는 요괴 두목들과 친교를 맺어 든든한 울타리도 만들고 하는, 힘 있는 자들의 위세 떨치기 과정을 차례로 밟아가네요.

그러는 과정에 앞으로 절대 빠질 수 없는 손오공의 전용 무기 여의봉도 얻게 되죠. 온전한 이름으로 말하면 여의금고봉(如意金?棒)이네요. '뜻대로 되는 금테 두른 몽둥이' 라는 뜻이죠. 줄여서 '여의봉' , 즉 뜻대로 되는 몽둥이가 되는 거죠. 옛날 우(禹)임금이 대홍수 때 강바닥을 다지던 몽둥이라는 전설과, 용왕국에 쳐들어가 거의 강탈하듯 그것을 얻어내는 과정은 생략하고요.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심상치 않군요. 여기서 손오공을 대표하는 근두운과 여의봉의 의미를 한번 새기고 넘어가야 할 것 같군요.

손오공은 마음을 상징화한 것이라는 말씀, 이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이미 드렸죠? 그 마음의 작용과 크기를 어떻게 그려내죠? 물론 그리려야 그릴 수 없는 것이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빠른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 뜻을 두면 마음이 거기 간다고 하지요. 근두운은 아마도 잠깐 사이에 온 누리를 오가는 마음의 작용을 상징한 것이라 보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두(筋斗)' 란 말은 '곤두' 란 말의 어원으로 몸을 뒤채어 재주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한번 재주를 넘어 단숨에 십만 팔천리를 달리는 것을 형용한다고 보아도 좋은 것 같네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 몸은 앉아 있어도 달리는 마음의 상태를 장자는 '좌치(坐馳)' 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지요. 곤두박질치며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곤두박질치며 타고 올라 날아가는 구름이 바로 근두운 아닐까 싶네요.

화과산 돌아와 혼세마왕 무찌르니
기세 백배 천궁을 어지럽혀
'제천대성' 직위 얻고 선인 노릇

그 다음, 여의봉은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쉽게 상상할 수 있죠? 마음의 크기가 얼마인가에 대한 물음,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펼치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고 모으면 겨자씨에도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의봉은 그렇게까지 형용되지 않습니다. 늘이면 하늘 땅을 떠받칠 정도로 커지지만 작게 하면 귓구멍에 집어넣을 정도로 작게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작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안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듯이 손오공을 대표하는 근두운과 여의봉은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비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오공은 그 마음을 쓰는 여러 술법에 능통해져서, 그 마음의 '힘' 을 쓰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 마음의 힘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큰일을 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정적으로 말해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그 마음을 한군데 모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문제인거지, 정말 마음을 모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술법이라든가 신통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힘을 부리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 마음의 힘이 있고, 또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요. 힘이라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단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정말 흉기처럼 큰 해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과 같다는 말이지요. 지금 손오공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마음의 '힘' 을 사용하는 술법에는 두루 통했는데,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깨달음은 얻지 못한 상태지요. 그런 상태에서는 힘에 취하게 되고, 힘의 노예가 되게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손오공의 행태는 바로 힘에 취한 자가 벌이는 광태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그럼 볼까요? 힘에 취한 이들이 우선 하는 짓은 무엇일까요? 부하를 거느리고 세력을 넓히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자기 영역의 확대라 할까요? 처음에는 침략해온 혼세마왕을 무찌르는 것에서 출발했지요. 거기에 머무른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방향성을 갖지 못한 힘은 결코 자신을 지키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밖으로 확장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 군대로 조직하고, 그 군대 조직을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고, 그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오래국의 무기창고를 술법으로 털고, 부하들의 무기는 장만했는데 자신에게 마땅한 무기가 없어 용왕국에 들어가 여의봉을 강탈하고……. 아주 차례가 잘 맞죠? 그림이 제대로 나오죠? 그런 겁니다.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힘의 확장과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힘의 확장과정에는 원칙이 있죠. "센 놈이 최고다!" 바로 이겁니다. 손오공 용왕에게서 여의봉 등을 강탈하고 하는 말 좀 보세요. "폐를 끼쳤군, 폐를 끼쳤어" 그걸로 입 싹 씻습니다. 힘이 약한 용왕들은 어쩔 수가 없지요.

염라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명을 기록한 명부 가져오라 하여 자신의 이름 먹물로 싹 지우고, 가까운 원숭이들 이름도 싹 지우고……. 그래서 선술로 불로장생하게 된 손오공이 이제 완전히 자연의 수명의 기록부까지도 말소시켜 명실상부한 장생불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힘 약한 염라왕이나 지장왕보살도 그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힘 있는 자의 눈앞에서일 뿐이죠. 세상이 모두 힘만으로 되는 것은 또 아니니까요. 세상의 질서를 관장하는 최고의 존재가 있습니다. 세속에서는 왕이고, 온 세상을 말한다면 바로 하느님이지요. 도교적 세계관에서는 옥황상제가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 옥황상제에 힘없어 당한 어려움을 바로잡아 달라고 고발장을 내야 하겠죠? 그래서 용왕들과 염라왕들의 고발장이 줄줄이 접수되고, 그 고발장을 처리해야 하는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세상이나 하늘세상이나 '좋은 게 좋은 거' 라는 풍조가 만연해있는 모양이군요. 가능하면 시끄럽지 않게 넘어가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래 세상이나 위 세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끄럽게 구는 원숭이 토벌한다고 더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고, 적당히 벼슬 하나 내려서 회유하자는 건의가 있고, "오, 그거 기발한 생각이야!" 하는 찬탄이 나오고, 그래서 손오공이 '필마온' 이라는 벼슬을 받게 됩니다. 뒷골목 시끄럽게 하는 조폭 두목에게 적당히 치안대 감투 하나 씌워주는 격이죠. 하늘 세상에 어두웠던 손오공이 엉겁결에 그 감투 받아들이지만 결국 미관말직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자존심 하나는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손오공이 발끈할 수밖에 없고, 아예 감투 차버리고 내려와 스스로 '제천대성(齊天大聖)' 이라는 큰 감투를 써 버리죠. '하늘을 평정하는 큰 성인' 이라는 뜻이지요. 골목대장이 스스로 '천하제일 돌주먹' 이라는 별명을 지은 격이라 할까요? 발칙하게 하늘을 제패한다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좋은 게 좋은 거' 를 포기하고 토벌대를 보냈는데, 문제는 정말 이 원숭이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토벌이 잘 안되니까 다시 '좋은 게 좋은 거' 라는 원칙이 득세를 하고, 그래서 정말 이름뿐이고 임무는 없는 '제천대성' 이라는 관직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선술을 닦아 어느 경지에 올랐던 손오공이 이제 정말 선인기록부에 등재가 된 것이거든요. '선적(先蹟)' 에 올랐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지요? 비록 아직은 이름뿐이지만 공식적인 선인으로 등재된 손오공, 원숭이의 출랑대는 버릇 꾹 참고 지긋하게 선인 노릇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어느 쪽에 걸지 내기 한번 해 보실래요? 저는 "결코 못한다!" 에 걸겠습니다. 모두 여기에 걸면 내기가 안 되잖아요~. 삼쾌선생 내기로 좀 벌려 했더니……. 나칠계님께 눈치보이네요.

다음 시간에 뵈어요.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였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 高僧長老團.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大韓佛敎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元老長老團.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

자신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하라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 편역)

24. 의식하의 자기의 문제 ㊦

대승불교에 있어서 심층의식의 추구

아알라야(alaya)라는 용어는, 이러한 의식하(意識下)의 자기 당체(當體)를 가르치기 위해서 대승불교의 사상가들이 말한 것이다. 이 용어는 벌써 근본불교의 경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어휘는 무슨 특정한 용어적(用語的)인 쓰임새는 아니었으며 다만 막연하게 욕망 또는 탐욕을 가리키는데 불과하였다.

이 말이 얼마 후에는 엄밀한 용어(用語)로서 규정되어 대승불교의 심리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어휘가 되었다. 그 경과(經過)의 자취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의식하의 자기에 대한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관심이 경중(輕重)의 차이를 잘 알 수 있다. 근본불교에 있어 아알라야란 말이 쓰여 진 용법의 한 예를 들면 유명한 '범천권청(梵天勸請)' 의 한 구절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때 붓다는 자기의 깨달음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교할 것인가 혹은 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 결론은 차츰 부정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 붓다의 생각을 옛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매우 깊고 깊으며 난견(難見) 난해(難解)하고 미묘하며 사념(思念)의 영역(領域)을 초월하며 뛰어난 지자(智者)만이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衆生)은 아알라야를 즐기며 아알라야를 기뻐한다. 아알라야에 춤추는 중생에게 있어서 이 연기(緣起)의 이치(理致)는 난견(難見)이며 이 열반(涅槃)의 이치 또한 난견(難見)이다. 만일 내가 이 법을 설명한다 하여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헛되게 피로하고 곤혹할 뿐이리라."

거기에서 붓다는 여러 번 아알라야란 말을 쓰고 있다. 아알라야를 즐거워하며 아알라야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

붓다가 여기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을 결국은 대승불교의 사상가도 같은 말로써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양자(兩者)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붓다에 있어서 그 말의 가리키는 것은 매우 막연하게 욕망 또는 마음속에 있는 방해자를 뜻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아알라야에 대해서 번역어를 선택한다면 오욕(五欲)이나 쾌락(快樂) 번뇌(煩腦) 같은 뜻이 될 것이다.

이것과는 반대로 대승불교의 사상가들이 같은 아알라야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내용은 훨씬 엄밀하게 규정된 것이며 학문적인 용어로서 확립되어있다. 그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하나 언급할 입장도 아니며, 또 학파에 따라서 그 해석에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지만 유식학파(唯識學派)에 관해서 그 대충의 윤곽을 언급해 본다.

먼저 이것은 모든 식(識)의 근기(根基)로써 팔식(八識)의 여덟 번째에 두는 것이다. 감각도 의식도 자아(自我)의 사량(思量)도 모두 이것에 의해서 있는 것이다. 초목은 때가 되면 싹이 트며 잎이 자라며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다. 사람은 흔히 그 땅위의 일에만 마음을 쏟는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여 보면 그러한 일이 성립하는 것은 땅 밑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씨앗의 작용 때문일 것이다. 아알라야는 사람들의 모든 식(識)에 대해서 이러한 밑바닥의 역할을 맺는 작업은 곧 또 씨앗 속에 수장(收藏)이 된다.

그와 같이 사람들의 감각, 의식, 사량(思量)에 있어서의 작용은 곧 아알라야에 수장이 된다. 그 기능을 아알라야의 소장(所藏)이라고 말한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몸 안에 있는 자아(自我)라는 것은 이러한 아알라야의 능장(能藏)과 소장(所藏)의 작용의 상속(相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여 아알라야는 또 집장(執藏)이라고도 불려진다.

이렇게 하여 아알라야야의 내용과 그 작용은 대승불교의 사상가에 의해서 차츰 추구되었으며 세밀하게 규정되어 갔다. 그 작용은 아마 의식하(意識下)의 자기에 대한 가장 빠른 시대의 학적(學的)인 추구인 동시에, 또 오늘날에도 역시 중요한 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대승불교가 얼마나 의식하의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식하의 자기의 문제와 종교적 실천

이것은 요컨대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입장이 서로 다름을 말하여 준다. 인간의 자기 형성에 있어서, 의식상(意識上)의 문제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느냐 의식하(意識下)의 자기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느냐, 그러한 관심의 초점을 두는 곳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식하의 자기의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둔 대승불교의 사상가들은 물론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만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그 종교적 실천의 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004년 해인사 수련회 모습. 불교의 수행은 의식하에서 자기를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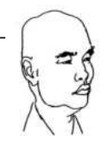
폭넓게 대승불교의 종교적 실천을 주시해보면 거기에는 많은 비합리적(非合理的)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언비밀(眞言秘密)의 행법(行法)이 그렇고 정토문(淨土門)의 칭명염불(稱名念佛)도 또한 그렇다 선종(禪宗)에 있어서 지관타좌(只管打坐)의 방법에도 그러한 요소가 엿보인다. 그러한 것들은 붓다에 의해서 제시된 '성스러운 팔지(八支)의 길' 그 외의 여러 가지 실천 덕목(德目)이 퍽 청순(淸純)하고 합리적인 요소가 협잡(俠雜)되어 불순(不純)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때로는 있다. 석존에 의해서 배척된 옛 시대의 미망(迷妄)이 다시 살아나서 불교를 타락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점도 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것은 조금만 더 왜곡(歪曲)되면 불교를 타락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붓다의 길이 본래 가리키는 것은 결코 그러한 불순타락의 길이 아니며 도리어 더 깊은 고에 있는 자기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의 바닥의 바닥에는, 자기가 전혀 모르는 자기가 숨어있다. 이 의식하의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확하게 파악하며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불교는 이제 다시 한 번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불교의 실천은 또 다시 새롭게 원시적(原始的)인 방법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후세의 종의(宗義) 종승(宗乘)을 토론하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한다하여도 문제의 본질적인 뜻은 이점을 선명하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아무리 이론을 정비한다 하여도, 어쩔 수 없는 자기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의 인간에게는 아마 열심히 염불(念佛)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質보다 斤으로

중국에서 7년쯤 머문 일이 있다. 북경에서 중국어 하나, 둘, 셋, 넷을 배워 익혔고, 운남의 곤명에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활용하며 절반의 중국인이 되어 있었다.

운남(云南) 지방은 중국에서 소수 민족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하여나는 주머니 사정에 따라 이곳저곳을 찾아 여행을 꽤나 즐기는 나그네 삶을 꾸려 왔다.

당시에 본 재래시장의 스케치 몇 폭을 옮겨 보겠다. 한국에서도 더러는 만날 수도 있는 풍경이지만. 닭을 파는 시장에 가 보면 모든 닭의 모가지 부분이 주먹만 하게 부풀어 있음을 보게 된다. 강냉이를 물에 담가 닭의 부리를 열고 억지로 불린 강냉이를 밀어 쑤셔 넣었기 때문이다. 닭의 무게를 더하기 위한 상술이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물 먹인 소가 있었던가.

다음으로 옮길 삽화는 송이버섯에 대해서다. 나무젓가락을 역시 물에 부풀린 다음 송이버섯의 꽁무니 부분에 쑤셔 넣는 것이었다. 이 또한 송이버섯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고춧가루에 횟가루를 뿌리고 쇳가루를 섞어 넣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에 대해서다. 그들에서 있어 질(質)은 문제될 게 없다. 오로지 무게를 더해 머니(Money)만 챙기면 그만이었다.

'보이차' 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해야겠다. 숙성차(茶)인 보이차는 보이현(普耳縣)의 지명(地名)에서 따온 명칭이다. 보이현의 차밭에 가 보게 되면 우선 놀랄 일이 있다. 농약을 하얗게 뒤집어 쓴 채 찻잎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먹는 차밭은 따로 있었다. 당연히 무서운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

서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젓갈 담그는 모습을 보고 미개인이라며 놀랐다지만 보이차 만드는 과정 또한 놀랄 일의 연속이었다. 위생관념, 환경관념, 오물 등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숙성차(茶)가 아닌 퇴비 만드는 그 자체였다.

물론 현대식 제차(製茶) 시설을 갖춘 공장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농약을 여러 차례 하얗게 뒤집어쓰고 자란 찻잎에 대해서는 그들 또한 피하고 있었으니까.

'젓갈에서 구더기' 는 한국에서 만나는 신문 기사이다. '중국차(茶)는 농약차' 라는 그릇된 이미지(Image)를 쉽게 벗어나길 바랄 뿐이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눈속임, 악덕 상술은 어디에나 있을 테니까.

중국 또한 날로 변화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속히 근(斤)보다는 질(質)쪽으로 기울길 바랄 뿐이다. 건강식품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비단 중국 문제만이 아닐 테니까.

두 사람의 꿈 이야기

중국의 고전에서(古典)에서 건져 낸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해야겠다. 윤 부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린고비처럼 아끼고, 소금처럼 짠, 인색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밤마다 꿈을 꾸게 되는데 낮과는 딴판의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인이 되어 주인의 눈치를 살핀다. 늘 배고파 맹물로 주린 배를 채우기도 한다. 온몸에는 벼룩과 빈대가 득실거린다. 주인은 틈과 짬도 없이 버럭 화를 내고 매질을 즐기는 포악도이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모두 적이요, 배신의 무리들이다. 땀 지린 옷은 갈기갈기 해어져 땟국물과 한 몸 된지 오래이다. 하루라도 좋으니 이런 지옥 생활을 벗어나 파랑새처럼 날고 싶다.

윤 부자 집에는 늙은 몸종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몸종으로 낙인찍힌 하인 팔자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노인은 밤만 되면 즐겁기 그지없다. 꿈속에서 매일 밤 부잣집 주인으로 바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양보다 질' 이 우선돼야
우리는 꿈 속을 헤매는 존재일 뿐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으니 마음도 몸도 편안하다. 이 노인에겐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나폴레옹처럼 불가능이 그의 인생사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거다. 진나라의 시황제가 부러워했을 정도니까.

장자(莊子)는 꿈에 나비가 되어 날아다녔다. 꿈을 깬 후 나비의 꿈에 사람이 되어 있는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 광수는 '꿈' 에서 땡하고 울리는 경쇠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해, 땡하고 사라지는 경쇠 소리로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밤과 낮은 반반인데 윤 부자가 행복한가, 하인 노인이 행복한가. 우리들 또한 꿈속에서 헤매는 존재들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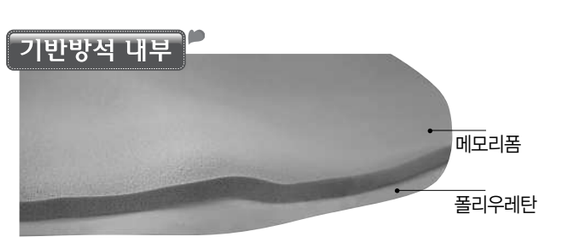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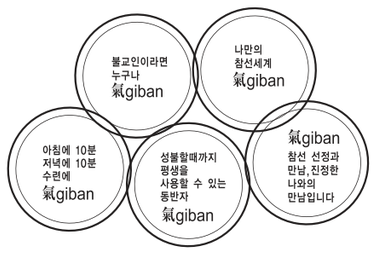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마이프렌드 정품 32,000원



강력한 터보팬동작,무료배송
84,000원



무료배송,정품확인 완료
73,000원

선풍기 무료배송
당일배송 및 안전배송
마이프렌드 정품인증 완료

박스팬 선풍기	32,000원
스탠드 선풍기(리모컨포함)	73,000원
터보팬 선풍기	84,000원

입금계좌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문의전화 02)879-2007

산스크리트어 요람 꿈꾸는 항저우… 청장년층 '열광'

항저우불교련, 첫 산스크리트어 여름 캠프 300여 명 지원
지원자 중 60명 선발 … '읽기 쓰기' 프로그램 2주간 진행

중국 항저우불교연구소(Hangzhou Buddhism Institute, 이하 연구소)의 세미나실에 인도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길 서원한 60명의 지식인들이 모였다.

'New China'는 "연구소가 지난 18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산스크리트어 여름 캠프'에 청장년층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며 "산스크리트어 읽고 쓰기에 초점을 맞춘 이번 캠프에는 중국 각지에서 300여 명이 참가를 신청했고, 이 중에서 60명이 선발되어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300여 명의 교육 희망자 대부분 요가 지도자, 기계 설계자, 호텔 경영자, 환경 운동가, 의료 종사자 등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장년들이었다. 이는 지식인들 사이에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산스크리트어 여름 캠프'의 연구소 측 운영자로 참여했던 리 웨이(Li Wei) 박사는 "이번 캠프를 찾은 교육생 대부분은 불교, 요가, 명상, 중국문화 등의 심층적인 공부를 희망하고 있었다"며 "이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에선지 교육생들의 열의는 지난 2주간 자자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스크리트어는 복잡한 문법 체계로 배우기 쉽지 않은 고대어 중의 하나다. 이 고대어를 어렵게 하는 것은 단연 동사의 변화 때문이다. 특정 동사의 경우 72가지의 시제 변화를 담고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입문자는 대부분 동사의 용례를 배우고 익히는 데 적잖게 곤혹을 치른다.

그러나 그런 난관도 연구소의 '산스크리트어 여름 캠프' 교육생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60명의 교육생들은 2주간 진행된 '산스크리트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에 연차를 더해 캠프 일정에 맞추는 가하면 '초가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을 정도로 열의에 차있었기 때문이다.

전문직 등 지식층 대거 참여

3백여 명 신청자 몰려

불교 · 요가서적 등 심화공부 목적

관심은 UP, 교육여건은 '제자리'

"시간이 날 때마다 경전을 읽고 있지만 이해되질 않는 대목이 많았다"는 교육생 팬 롱(Pan Long · 27) 씨는 "중국의 경전 대부분 산스크리트어본 경전을 번역한 것인 만큼 이 고대어를 배우면 경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캠프에 참여했다"며 "항저우불교연구소 캠프에 참가한 경험은 불교 공부에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항저우불교연구소(Hangzhou Buddhism Institute)는 8월 18일부터 2주간 '산스크리트어 여름 캠프'를 실시했다.

항저우의 명문 저장대학(Zhejiang University)에서 의료기계설계학을 전공한 후 현재 글로벌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팬 롱 씨는 캠프 시작 3일 전인 15일부터 연구소를 방문해 이번 연수에 필요한 의복, 교재, 홍보물 등을 만드는 데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교육생 장 칸(Zhang Can · 25) 씨는 "산스크리트어를 알면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했다"며 "강사님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산스크리트어 사전을 펼치며 문장을 읽고 해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항저우 사범대학에서 불교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장 칸 씨는 대학원에 진학해 중국의 고대문화를 연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 그가 고대 중국과 인도의 문화적 접점이었던 산스크리트어를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요가 지도자의 길을 걷고 싶은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교육생 혜민(He Min · 39) 씨는 "캠프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사전을 들춰가며 〈바가바드기타〉를 읽는 게 올해의 목표"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명문 런민대학(Renmin University)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후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고 혜 민 씨는 하루라도 빨리 요가 지도자로 활동하길 희망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는 요가 현장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하는 언어이다. 요가 서적 대부분 영어로 서술되어 있지만 그 키워드는 산스크리트어를 음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즉 요가 관련 전문서적을 탐독하며 그 진의를 알아 깊이 수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New China'에 따르면 중국은 산스크리트어 대한 유서 깊은 연구사를 가지고 있다. 산스크리트어본 경전을 중국어로 역경했던 세월만 어림잡아 1,000년이다. 산스크리트 '슈니야'가 '무(無)'에서 '공(空)'으로 정착되는 데만도 지루가참에서 구마라집까지 자그마치 20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릴 정도였다.

그런데 중국의 산스크리트어 연구사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 맥이 끊긴 지금의 수준은 미미하다. 중국의 교육기관에서 산스크리트어를 교육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후반이다. 그러나 교사도 교재도 부족해 70여년이 지난 지금 산스크리트어 교육 여건은 여전히 미미할 따름이다.

"항저우불교연구소는 매년 2차례 4개월 과정의 산스크리트어 전문 과정을 진행하며 그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말한 갱 씨아오(Gang Xiao) 부소장은 "이번 여름 캠프는 '산스크리트어의 읽고 쓰기 교육'에 주목해 처음 개설한 기초 과정인데 의외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컸다"며 "이러한 노력과 관심이 쌓여간다면 이 곳 항저우는 중국에서 '산스크리트어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캄보디아, 佛 유물 훔친 남성5명에 '7년 구형'

부처님사리 7구 절도혐의 8월 27일 선고

캄보디아 대법원이 8월 27일(현지시간) 부처님 유물이 담긴 황금 항아리를 훔친 남성 5명에게 7년 구형을 선고했다.

'Bangkok Post'는 8월 27일 "2013년 유물 항아리 도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후 국교가 불교인 캄보디아에서 전 국민이 범인 수색작업에 나섰다"며 "2014년 2월 캄보디아 당국은 우동(Udong) 왕실 사원에서 130km 떨어진 다게오 남부 지방의 한 집에서 항아리와 유물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Bangkok Post'는 "사건이 발생한 칸달(Kandal) 지방법원은 범인 남성 5명을 모두 검거했으며, 범인 중에는 왕실 사원을 지키던 4명의 경비요원이 포함돼 있었다"며 세이 삼포르스(Say Samphors) Serey 판사가 7년 구형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난당한 부처님 유물들은 1950년대 부처님 탄생 2천 5백년을 축하하며 스리랑카에서 캄보디아로 보내졌다.

그 후 2002년 노로돔 시아누크(Norodom Sihanouk) 왕은 수도 프놈펜(Phnom Penh)에서 우동 지역으로 사리를 이송한 뒤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안 법회를 봉행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美 외곽농장 '불교 교실' 佛心 일구다


마크 윈우드(왼쪽), 캐시 아담스(오른쪽) 법사

마크 윈우드 · 캐시 아담스 법사, 불교 교실 운영
5에이커 농장서 주민과 소통하며 법회, 명상, 봉사 실천

미국의 소도시 먼로(Monroe)에서 1년째 불교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재가법사들이 화제다.

'Herald Net'는 "미국 워싱턴 주의 소도시 먼로에서 마크 윈우드(Mark Winwood)와 캐시 아담스(Kathy Adams) 법사가 먼로 외곽의 농장에서 불교 교실을 운영하며 지역에 불심을 일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플로리다 주에서 워싱턴 주로 이주한 마크와 캐시는 소도시 먼로의 외곽에 농장을 구입하고 겸손 · 친절 · 관대를 모토로 '불교 교실'을 개원,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데 노력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는 마크 윈도우 법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방법으로 사원이나 센터 보다는 '교실'이라는 현판을 내걸고 낯선 교리 보다는 일상의 주제로 소통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크 윈우드 법사에게 불교란 '제2의 인생'이다. 그는 과거 법률자문 IT회사인 'law.com'을 창업, 운영했던 CEO였다. 그러나 IT 거품이 꺼지면서 닥친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던 중 티베트 불교에 귀의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다. 그리고 지금은 세속의 일을 접고 티베트 불교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재정, 관계, 고통 등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를 서로 나누길 바랐다"는 캐시 아담스는 "먼저 아픔을 나누고 그 해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주민들이 호응했다"며 "불교의 자비 사상과 주민의 개인 일상은 이런 과정을 통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캐시 아담스 법사는 지난해 플로리다 주에서 도반으로 만난 마크 윈우드 법사와 약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워싱턴 주 먼로 시에서 함께 포교에 나서자는 마크 윈우드의 제안에 따라 이곳에 정착했다.

"2005년에 인도 다람살라를 여행하며 바라본 티베트 스님들의 겸손 · 친철 · 관대한 태도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캐시 아담스 법사는 "먼로 주민들이 불교 교실을 방문할 때마다 인도에서 보았던 티베트 스님을 기억하며 만나고 있다"며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부처님과 그 지혜와 자비를 올곧이 심을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Herald Net'는 "마크와 캐시 법사는 5에이커 대지에 마련된 불교 교실에서 명상, 교리, 강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대중법회도 봉행하고 있고, 지역 불우 가정을 돕기 위한 제빵실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먼로 시의 영성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방콕 폭탄테러 피해자 추모재 올리는 불교 승려들 불교 승려들이 지난 8월 21일 방콕 폭탄테러가 발생한 에라완(Erawan) 신사 맞은편 광장에서 개신교, 힌두교, 스키도교, 무슬림교와 함께 종교합동추모재를 올렸다. 이에 대해 'Daily News'는 "이 자리에 정부 관계자 및 외교관들이 참석해 헌화의식에 함께했다"며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 피해자들에게 애도와 경의를 표하는 최소한의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8월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도심에서 폭탄이 터져 현재까지 20명이 숨지고 약 1백 20여 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사고발생 15분 전 벤치 근처에 인근 CCTV에 찍힌 용의자 영상을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거에 난항을 겪으며 현상금은 약 3백만 바트(한화 약 1억 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박아름 기자** 〈사진출처=Daily News〉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공고 제 20150827-1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내용)

연번	사업명	위치
1	봉원사 대방(염불당) 단청공사	서대문구 봉원동

사업비	사업량	공사기간
175,000,000원	단청공사 목공사 미장공사	90일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15. 8. 25.(목) 17: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15. 8. 31.(월) 12:00
4 견적제출 개찰일시 : 2015. 8. 31.(월) 15:00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종무소

5 입찰참가자격
(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중 **단청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시)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계약)의 자격이 계속유지 되어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015년 8월 27일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관음수련법

1 관음법은 기원하고 천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수련하고 정진하면 인간의 몸 통로가 열려 성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초첨단 음파공학 진리이며,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초첨단 의학적 진리입니다.

2 관음수련으로 치유될 수 있는 병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통증, 신병, 변비, 소화불량, 빈혈 및 다이어트.20대 몸매, 피부미용효과, 목소리 교정 및 트임 등등

3 관음수련의 종교적 성취
(1) 좌측(뇌) 통로가 열리면 – 지혜의 문이 열려 (문수보살)
(2) 우측(뇌) 통로가 열리면 – 보리심이 일어나 (관세음보살)
(3) 중앙(뇌) 통로가 열리면 – 행동하는 힘이 생겨 (보현보살)
(4) 사지 통로가 열리면 –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약사여래)
(5) 오관이 모두 열리면 육신통을 성취하며 이마에 제3의 눈이 열립니다.

4 관음수련의 일반적 성취
(1) 초인적인 운동선수, 골프 등등
(2) 시인 및 학문적 재능
(3) 가수 및 예술적 재능
(4) 팔정도의 사고와 의식이 저절로 생겨나 올바르고 바른 인격수양
(5)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건강에 100가지 이로움이 있음.

5 관음수련은 불자가 되기 위한 수련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 –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련입니다. 불법의 위대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303-9번지
전화 031)572-6118 제석천 만덕사 관음 합장

대한민국 새로운 장래문화
분 재 공 원

특허권취득! 화분장묘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없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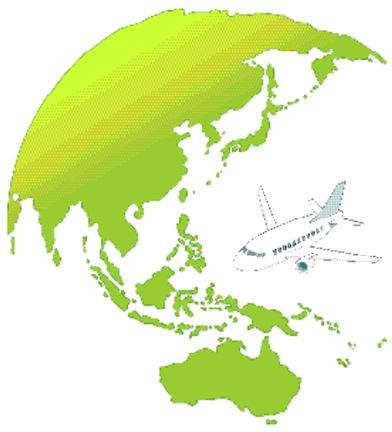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 점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상조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현 수목장비용 300 ~ 500만원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재.기타

화분장묘 특허권자 : 김성만 / 특허번호 : 제 10-1467668
상담전화 : **054)331-9303.010-8458-3310**
www.화분장.kr



미얀마, 중국 현대불교신문이 준비한 해외성지순례에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붓다의 길을 걷는 성지순례, 부모님의 효도여행,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창간 21주년을 맞는 현대불교신문은 독자여러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억에 남을 해외성지순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못 떠나신 분, 마음맞는 친구, 여행동반자가 없어 못 가셨던 분, 여행의 안전이 걱정되어 못 떠나신 분, 사는 것이 힘들어 잊고있던 그 여행...
가족과 함께 , 부모님과 함께 현대불교신문사와 품격 높은 여행사가 함께 준비한 '해외성지순례'로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전

① 성지순례 후 특별지면을 편성하여 내용을 지면에 게재합니다.
② 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동일 상품 비교)
③ 성지순례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미리 나눠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④ 여행후기 소감문을 보내주시면 현불뉴스에 게재해 드립니다.
⑤ 전 일정 촬영한 사진을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⑥ 현지와의 문화, 봉사 교류 및 불교행사 가능합니다.
(천도재, 수계법회, 마정수기, 신뿌행사, 봉사활동, 현지불교 교류 등)
⑦ 현지 전문 불자가이드로 성지순례의 감동을 더합니다.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팀 이동격 부장
02)2004-8214 / 010-7339-8688
협력여행사 : 마하연여행사 ☎ 02)365-7747
(견지동 74-8, 조계사 일주문 앞)
■ 종단 및 사찰, 단체 접수 환영합니다.
■ 현지와의 교류 행사는 일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4박 6일 / 대한항공 (KE471)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790,000원

■ 포함 사항 : 국제선 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 전 일정 호텔(2인1실), 전일정 식사, 전용차량, 전용보트, 전용유람선,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가이드, 기사&가이드팁, 비자수수료, 여행자보험 1억원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매너팁 등)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전일정 가이드/기사TIP (전일정$60) + 공동경비(전일정$10) 포함
- 12명 이상 45인승버스 진행 (타사비교 필수)
- 아름답게 펼쳐진 탑과 마을을 지나는 마차투어
-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미얀마 맥주, 맛있는 열대과일 제공
- 헤호지역 수상 호텔로 이용
- 미얀마 천연썬크림 다나까 체험
- 유람선을 이용 민군순례
- 아름다운 깐도지 호수 산책

제 1일 인 천 양 곤
인천공항 3층 A카운터 미팅
양곤 출발 (대한항공 KE471)
양곤 도착 (시차2시간 30분)
호텔로 이동 – 호텔휴식
HOTEL : 스카이스타 호텔 또는 동급
석 : 기내식

제 2일 양 곤 바 간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바간으로 이동
냥우시장 관광
쉐지곤 파고다/ 부파고다 / 아난다사원 / 틸로민로 사원 / 세산도 파고다 순례
강변레스토랑에서 저녁공양 후 휴식
HOTEL : 트레저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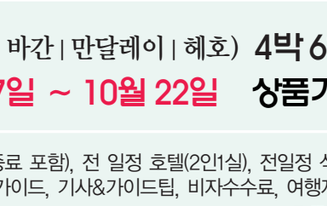
제 3일 바 간 만달레이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만달레이 이동
우뻬인다리 / 마하간다용 수도원 탁발의식 참여 / 마하무니 파고다 /
신뿌미파고다 / 민군대탑,민둔대종 순례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만달레이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4일 만달레이 헤 호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헤호로 이동
인맹유적지 / 팡도우 파고다 방문 /
쭌묘(수경농경지재배단지) 관광 /
수상마을,전통공방 관광 /
수상호텔에서 휴식
HOTEL : 후핀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헤 호 양 곤
호텔 조식 후 양곤으로 이동
까바이에파고다 /
마하파타나구하 동굴사원 /
쉐다곤파고다 / 차욱타지파고다 순례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
양곤 국제 공항 출발 (대한항공 KE472)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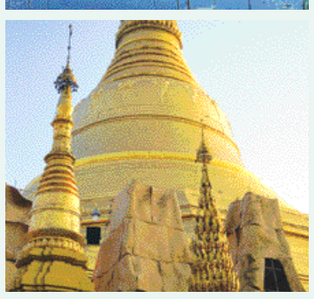
제 6일 인 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단식
조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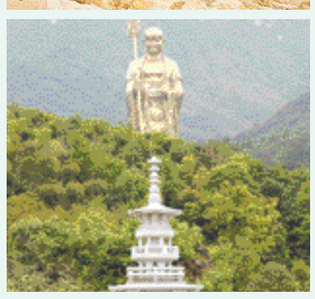
지장도량 (구화산)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성지순례 5박 6일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490,000원

■ 포함 사항 : 왕복 항공권, 호텔(2인1실), 전용차량, 관광지 입장료, 전 일정식사 ,여행자 보험 가이드&기사 팁, 중국 단체 비자 등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옵션비용, 싱글 룸 챠지 [전일정 18만원]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수준 높은 마하연 여행사 전속가이드의 책임 있는 행사 진행
- 가이드 &기사팁 포함 및 공동경비 포함, 전문 인솔자 동행
- 환상적인 상해의 외탄 야경 관람
- 중국 10대 선종 고찰 영은사 순례
- 99m 지장대불 참배
- 전일정 특급 호텔 숙박으로 편안한 휴식
-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발마사지 체험
-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 완벽 순례
- 천년전 항주를 재현한 송성가무쇼 관람
- 혜제사 순례 시 케이블카 이용







제 1일 인 천 / 상 해 / 황 산
인천국제공항 3층 G카운터 미팅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상해국제공항 도착
황산으로 이동(약 4시간 소요) 후
공양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 호텔 또는 동급
중 : 기내식 / 석 : 현지식

제 2일 황 산 / 구화산 (전용버스)
구화산 순례, 천태 케이블카 탑승
– 고경배대 순례
만불 천태사, 육신보전, 백세궁 등 참배
화성사, 99m 지장대불 참배
황산으로 이동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존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3일 황 산 / 항 주 (전용버스)
항주 극락 서호유람 및 육화탑(차창)관람
영은사, 청하방 순례, 송성가무쇼 관람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마르코폴로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4일 항 주 / 보타산 (전용버스)
보타산, 법우사, 관세음보살님이
방생하셨다는 보제사 순례
혜제사(케이블카), 관세음보살님
화현처 범음동 순례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보타산레이디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전용버스)
낙가산 자죽림 순례,
남해관음대불 순례 후
상해로 이동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 줄 발마사지 체험
남경로 및 외탄 야경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가든 뷰 호텔 또는 동급 미정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상 해 / 인 천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상해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 : 호텔식 / 중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2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9권 출간! 수산, 분양, 섭현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천년 숲 가을 선물’ … 산사에 퍼지는 선율

2015년 가을 산사 음악회



올가을에도 나눔에서부터 축제까지 다양한 주제로 가을 산사에서 다양한 음악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대광사 산사음악회. 자료제공=대광사

무더웠던 여름은 어느새 도둑처럼 물러갔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가을을 예고한다. 가을 향기에 젖어 음악선율에 젖고 싶다면 산사로 가보자. 올가을에도 사찰에서는 다양한 산사 음악회를 연다. 나눔에서부터 축제까지 다양한 주제로 가을 산사에서 울려퍼지는 음악의 향연에 빠져보자.

보덕사는 9월 13일 오후 3시 ‘제 8회 보덕사 호수음악제’ 를 경내 특설무대에서 갖는다. 2008년부터 시작된 보덕사 호수음악회는 충남당진 시민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화합의 자리로 발전해왔다. ‘2015 당진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이라는 부제가 붙은 음악회는 보덕사 · 선원사 연합창단의 오프닝으로 시작해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지휘 이종만), 소프라노 정행 스님과 최유정, 테너 허철영, 초대가수 우순실 등이 무대에 오른다.

주지 정안 스님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이웃들이 당진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삶의 동반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비의 음악회다. 음악이란 매개체로 서로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041) 353 – 9306

서울 심곡암도 10월 25일 1시부터 산사음악축회를 개최한다. 이날 음악회에는 가수 채은옥, 양하영 등과 문화예술인들이 어우러져 무대를 펼치며 다도시연, 육법공연도 진행된다. ‘오실 이 가실 이’ ‘니르바나’ 등의 작시와 작곡을 통해 찬불가를 알려오고 있는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은 매년 두 회씩 축제를 겸한 음악회를 펼친다. 원경 스님은 “그동안 산사축제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어왔다. 올해도 11시 30분 점심 공양을 대접하는 것으로 시작해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지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을 산사를 만끽하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02)914-8860

분당 대광사는 9월 5일 저녁 7시 분당 대광사 특설무대에서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펼친다. 이날 무대에는 가수 송창식, 함춘호, 정동하, 바다, 김용림 등이 출연하며 대광사 합창단도 공연을 펼친다. (031)715-3000

보덕사-정행 스님, 뉴트리팝스
대광사-바다, 정동하, 함춘호
송림사-장윤정, 조항조 등 출연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리는 승시 축제에서도 음악회를 만날 수 있다. △10월 7일 불교연예인 협회의 ‘다시 울려퍼지는 불교의 혼’ △8일 동화사 합창단 축하공연과 대구시립 관현악단 공연 △9일 통통한 한마당에서 우담바라 밴드 공연과 북한공연예술단 공연 △11일 우리가 ‘락(樂)’ 음악회에서는 곽동현 파워밴드와 권미희의 찬불가, 남상일의 국악 공연 등이 펼쳐진다.(053)982-0101

서울 수국사는 9월 4일 오후 7시 30분 가수 장사익을 초청 제 1회 나눔 음악회를 연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네팔 지진피해를 돕기 위한 모금을 진행해 자비나눔에 동참할 계획이다. (02)356-2001

대구 팔공산 송림사도 9월 12일 오후 6시 30분 경내에서 제 5회 행복나눔 음악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가수 장윤정, 조항조, 불자가수 나현아 등이 출연해 흥겨운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주지 혜성 스님은 “불자 비불자 모두 오셔서 신나게 하루 흥겹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산사의 정취 속에서 신나는 시간을 갖고 불심을 마음속에 담아가길 바란다”며 초대의 말을 전했다. (054)976-8116

이밖에도 **구례 화엄사**가 주최하는 화엄음악제가 10월 10일 오후 6시 펼쳐지며 **대구 대성사** 산사음악회도 10월 10일 열린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가수 위상 높이는데 앞장 서고자”

불자가수 김흥국 제5대 대한가수협회장 당선

불자가수 김흥국 씨가 제5대 대한가수협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는 8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2015년 임원선출 총회에서 제5대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선출됐다.

기호1번 후보로 나선 김흥국 씨는 이날 총 182표 중 117표를 얻어 63표를 얻은 기호2번 인순이 후보를 가볍게 제치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가수협회장은 초대 회장 남진, 2대 송대관, 제3 · 4대 태진아 씨에 이어 다섯 번째 협회장이다.

김흥국 씨는 당선 소감에서 “부족한 저에게 신뢰를 보여준 선후배 가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제가 우리 가수의 위상과 자존심을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다. 특히, 가수들의 일자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무명이란 말을 없애고 함께 뒹굴며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선배 가수님들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복지에 힘쓸 것이며, 회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부터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하여 선배님들이 오셔서 편하게 휴식도 취하시도록 점심식사도 제공해 드리겠다. 앞으로 협회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전국 3천여 명의 회원들을 이끌어 나갈 제5대 김흥국 신임 대한가수협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9월 28일부터 3년간이다.

한편, 제5대 대한가수협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감사로는 조항조, 이수미 씨가, 이사로는 진미령, 서수남, 박일서, 박수정, 최유나, 정수라, 유열, 김진아, 이자연, 신형원, 조빈 씨 등이 선정됐다. 정혜숙 기자


불자가수 김흥국 씨가 제5대 대한가수협회장으로 당선됐다. 前 회장 태진아 씨와 이취임식.

어라 스님 부산 쿠무다서 특별전

9월 10일까지 20여 작품 선봬

어라 지찬 스님이 이번에는 부산을 찾았다. 스님은 부산송정 쿠무다 카페 전시실에서 9월 10일까지 특별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화와 결합된 카툰 등의 작품 21점을 비롯해 부채와 캐릭터 인형도 만날 수 있다.

지찬 스님은 “불교카툰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다양한 전시를 열어왔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전시를 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카페 쿠무다를 운영하시는 주석 스님의 권유로 전시를 갖게 되었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쿠무다는 북카페와 전시장을 겸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대중들에게 편하게 불교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기획된 공간이다. 지찬 스님은 “제가 불교만화 카툰을 젊은층 포교를 위해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쿠무다의 설립 정신과 잘 맞아떨어지는 듯하다. 주석 스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덕에 이렇게 전시를 열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어라 스님 쿠무다 전시 전경.

스님은 2016년도 어라 캐릭터를 활용한 달력도 출시할 계획이다. (051)701-7559

정혜숙 기자

동국대 미술전공자 모임 동고락 전시회

30여 회원 85작품… 9월 9일까지 인사아트프라자서

불성 스님, 연꽃으로 표현한 ‘처렴상정’
김인기, 반가사유상 서양화 기법으로

경주동국대 대학원 미술 전공자들의 모임 동고락 (고문 청원 스님 · 회장 김인기)이 9월 2일~9일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원 30여 명의 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 등 85점의 작품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인사동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모자이크를 연상케 하는 이연수의 ‘오백나한’ 은 오백나한과 부처님이 하나를 이루어 불교를 현대적로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닥종이 인형으로 제작된 박명희의 ‘연비’ 는 동자승들의 연비 과정을 재미있게 표현해 의간의 희노애락을 담았다.

불성 스님의 ‘처렴상정’ 은 연꽃을 통해 삶을 표현 자연의 숭고미를 표현했다. 김인기의 ‘신라의 향기’ 는 금동반가사유상을 서양화적 기법으로 표현 불국토 신라의 향기가 오랫동안 퍼지기를 기원한다. 최영근의 ‘역사와 바다’ 는 국보급 유물이 잠들어 있는 바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역사의 진실이 파헤쳐지기를 바라는 작가의 소망을 담았다.

동고락 김인기 회장은 “동고락은 동국대 대학원 미술 전공자들의 학술활동과 전시를 겸한 단체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각 지역 순회전을 통해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사진 등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더욱 화려한 색채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고 발전해 오고 있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참신하고 실력 있는 신입회원의 영입으로 한 번 더 도약하는 ‘동고락’ 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전시는 9월 10일~ 9월 20일 갤러리 건국, 10월 27일~11월 1일 금련산 갤러리 등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02)736-6347

정혜숙 기자


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연수의 ‘오백나한’. 오백나한과 부처님이 하나를 이룬다.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신제품
소이(SOY) 왁스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원기둥연꽃나비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29㎝)
원기둥나비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29㎝)
우리향,미연향,무향
쑥향,백목향,목향
설죽매,인삼향,대발향
수입향
원기둥금나비
밀대나비
육각초나비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라일락향
향수림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實戰四柱 강좌 안내
運命을 개척하는 實戰四柱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운명을 개척하자!”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實戰四柱 종합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스님을 비롯하여 법사님 등 누구라도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파멸과 부귀영화는 나 자신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습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시고 무량공덕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송암 김서경
◐제목 : 實戰四柱 강좌
◐개강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강의일시 : 매주 월 ~ 화, 목 ~ 금 (10-12시, 15시-17시, 19시-21시) 하루 2시간 강의
◐강의과정 : 1년 과정 + 육효, 성명학 4개월
◐강의장소 : 명리학연구원 강의실
◐강의교재 : 實戰四柱 (교재비 무료)
◐수 강 료 : 월 20만원
명리학(命理學) 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3-1
농협건물 4층 401호
전화 010-3341-4867
원장 송암 김서경
實戰四柱 책 판매 안내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별도 판매합니다)
이 실전사주책은 1,030페이지로 사주팔자가 구백육십개이며 용신과 대운과 세운, 질병, 성격, 팔자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책만 배우면 어떠한 사주라도 감정해 줄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1년만 배우면 타인을 감정해 줄 수 있으며 육효도 필히 배워야 합니다. 사주와 대운은 큰 틀이며 매월의 운세와 승진, 합격, 재물, 매매, 송사, 문서, 생과 사, 택일, 일진, 모든 길흉사는 육효로 감정합니다. 육효는 4개월만 매우면 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 85,000원
(입금 확인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BTN 드라마 '붓다'

"전쟁은 증오만 키울 뿐 누구도 이기지 못해"

지난 줄거리

야소다라가 왕의 아내가 될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는 걸 알게 되자 망갈라 부부는 형인 데바닷타가 야소다라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경선을 통해 야소다라의 남편감을 정하자는 결론이 나오자 망갈라는 싯다르타에게 형을 위해 경선을 포기하라고 권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소다라는 싯다르타에게 간절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싯다르타는 그녀를 위해 부마 경선에 나서겠다고 다짐한다.



전쟁터에 나오지 않았던 싯다르타 왕자가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나타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천민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브라만과 언쟁을 한 싯다르타는 수레에 손이 깔려 크게 다친다.



발데프의 죽음을 보고 싯다르타의 내적갈등은 극에 달하고 연민 · 자비, 화 · 질투의 형상과 만나게 된다.



코살라국과의 전투에서 위기에 빠진 숫도다나왕의 모습.

수드라 계급의 남자가 몰고 가던 짐마차 바퀴가 빠지자 싯다르타 일행이 도와준다. 이 광경을 보고 지나가던 브라만이 "왜 수드라를 돕고 있냐 그것은 죄"라고 말한다. 싯다르타는 "신은 그를 창조하시고, 당신도 창조하셨소. 만약 그가 신께 죄를 지었다면. 신이 벌을 주시겠지. 당신이 뭐라고 그를 벌하는가? 당신은 신에 관한 권위자가 아니오. 신만이 권위자요"라고 말한다.

이렇게 다시 마차의 바퀴를 빼내는 순간 싯다르타의 손이 바퀴에 치이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 부마 경선을 이틀 앞둔 터라 싯다르타의 부상은 모두에게 큰 걱정거리가 된다. 망갈라는 자신의 아들 데바닷타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기뻐하고 야소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며 단식에 들어간다.

싯다르타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야소다라를 위해 경선에 임한다. 강력하게 훈련 된 데바닷타는 싯다르타를 강하게 공격한다. 부상으로 열세에 몰린 싯다르타는 갑자기 야소다라를 생각하며 힘을 낸다. 그리고 경기 전 손에 발랐던 약초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싯다르타는 데바닷타를 이기게 된다.

빛과 불 사이서 고민하던 싯다르타
코끼리 몰고 등장 평화조약 이끌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코살라국 프라세나짓 국왕이 카필라바스투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긴급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싯다르타는 어떤 식으로 코살라국의 군대를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전략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을 낸다. 하지만 이 의견은 무시당하고 카필라바스투도 전쟁 준비에 들어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싯다르타와 야소다라의 결혼식은 미뤄지게 된다.

그리고 싯다르타에게 급하게 소식을 전하러 왔던 발데프가 데바닷타에게 죽임을 당하고, 혼자 쓰러져 있는 발데프를 발견한 싯다르타는 그대로 죽음을 목격하고야 만다. 죽음은 불가피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싯다르타는 슬픔에 잠긴다.

그리고 그날 싯다르타는 내면의 형상과 마주하게 된다. 하나는 연민 자비 돌봄이라는 빛의 형상과 다른 하나는 공기 화 질투로 이루어진 불의 형상. 빛형상은 싯다르타에게 전쟁을 하지 말 것을 권하며 전략을 제시한 싯다르타에게 자책감을 불러일으킨다. 불형상은 용기를 내어 영웅이 될 것을 권한다. 두 마음 사이에서 번뇌하는 싯다르타.

결국 결전의 날이 왔는데 싯다르타는 보이지 않고 숫도다나왕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선다. 코살라국왕은 어린 왕자(싯다르타)가 도망을 갔다고 전해 듣고 그들의 전략도 전해듣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카필라바스투는 열세에 몰리고 결국 코살라국왕이 숫도다나왕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이 온다. 그때 싯다르타가 화살을 날려 위기를 모면하고 피리를 불어 코끼리 떼를 몰고 들어온다.

"이 유혈극을 멈추십시오. 자존심 싸움도 그만두고요. 그래서 얻는 것이 무언가요? 전쟁에서 무엇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전쟁은 다만 증오를 키울 뿐입니다. 전쟁에선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외에는. 승자마저 전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싯다르타의 말에 코살라국왕은 양국이 전사를 선발해 표적을 맞혀 이기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로 하자고 제안한다. 단 그 첫번째 표적은 싯다르타여야 한다고. 이를 허락한 싯다르타는 화살을 쏘는 카필라바스투의 전사는 데바닷타가 되어달라고 제안한다. 데바닷타가 싯다르타의 왕관을 제대로 맞히면 카필라바스투는 이기는 것이고 어긋나면 싯다르타는 죽는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결국 데바닷타는 싯다르타의 왕관을 맞히며 카필라바스투는 승리하게 된다. 평화를 원하는 싯다르타의 제안에 따라 코살라국은 모든 무기를 반납하기로 한다. 그리고 싯다르타는 그 무기를 녹여 '전쟁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한다. 전쟁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다. 평화는 사랑을 확산시킨다' 란 문구를 국경 지역에 새기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코살라국왕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다른 샤카인들하고 다르군요. 내 마음은 당신을 적으로 여길 수가 없을 것 같소" 일동은 모두 태자 만세를 외친다.

BTN Buddhist True Network

본방 매주 수 · 목 저녁 9시
재방 일요일 새벽 1시 · 오후 3시(각각 2회 방영)
월~목 새벽 1시/ 화 · 수 오전 9시

리뷰 – 법현 스님이 본 드라마 '붓다'

힌두교 · 밀교 의식 발견 '눈길'

드라마 붓다에는 당시의 정치와 의식 및 축제 등 인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얼핏 보면 매우 복잡하다. 어디에 시선을 두고 보아야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예 고개를 돌릴 수도 있으나 조금만 이해하면 재미있게 드라마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당시의 나라를 살펴보자. 숫도다나가 임금인 카필라는 드라마에서 샤카족 연합의 수장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부족국가이다. 우리나라의 가야, 신라의 모습 비슷하다. 말라족과 콜리야족도 부족국가이다. 가까이 큰 나라로는 빔비사라왕과 그의 아들 아자타삿투로 기억되는 마가다라는 큰 나라가 있었다.

마가다는 싯다르타가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룬 곳이기도 하다. 빔비사라는 드라마에서 연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동년배라는 설이다.

코살라는 코살라가 세운 나라로서 그의 아들 프라세나짓(Prasenajit)이 드라마의 긴장구도를 확실하게 이끌고 있다. 그의 아들 위두다바(Vidudabha)는 부처님이 인지하는 가운데 샤카족 정확히는 카필라국을 멸망시켰다. 베살리라는 도시로 기억되는 릿차비족의 공화정치도 발달했다.

카필라는 코살라에 병합되고, 아버지 빔비사라왕을 쿠테타로 물리치고 왕이 된 아자타삿투에게 카시와 코살라는 병합된다. 뒤에 알렉산더의 부대에게 인도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메난드로스와 당시의 고승 나가세나(Nagasena)의 대화를 기록한 〈밀린다왕의 질문(Milindapanha)〉은 대화문학의 걸작이며 불교의 기본 교리서와 같은 것이기도 하다. 이 대화를 통해 메난드로스는 불교를 인정했다.

이런 정치상황을 짐작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싯다르타의 어렸을 때부터의 신념인 사랑(悲,karuna)을 실천하는 전략이라고 하면 그를 모욕하는 말로도 들릴 수 있는 분위기의 일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전쟁을 하지 않도록 작용하는 그의 능력은 정말 뛰어나다. 그의 정신은 뒤에 깨달음을 얻어 펼친 가르침 가운데 초기의 것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는 〈법구경(Dhammapada)〉등에 잘 적용된다. 싸움으로서 해결되지 않고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쉬는 것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그의 견해는 탁월하다.

드라마 곳곳에 주술적인 의식이 많이 등장한다. 물론, 그것은 힌두교(당시 브라흐만)의 의식이다. 세계 어느곳에서나 태양과 빛을 상징해서 어둠과 악마(마귀)를 물리치는 성능으로 작용하는 붉은 색은 드라마 붓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여자나 남자 할 것 없이 모두 이마에 붉은 점을 찍고 전장에 나가기 전에 칼에도 붉은 주사를 찍어서 잡귀를 물리치고 무사함과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이 등장한다.

물론, 주술과 남자의 바람을 잘 이해하지만 여자의 어려움도 이야기한다. 파자파티왕비가 이날까지 여자는 매일 눈물로 보낸다고 하자 숫도다나왕은 싯다르타와 함께 가니 염려 말라고 위로한다. 야소다라의 사랑은 눈물겹다. 오로지 싯다르타만을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은 뒤 여러 가지 주술을 하는 것이 나온다. 부마경선대회라는 결투에서 승리하라고 신들에게 공양 올리고 등불과 꽃을 올리며 기원하는 순간부터 경선의 결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눈물겹게 극복한 싯다르타의 승리로 나올 때까지 물 한모금 마시지 않고 버티는 것은 그야말로 여인의 지극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제일 큰 기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드라마의 재미 가운데 하나인 악역으로 나오는 망갈라의 저주의 주술은 코코넛을 깨는 것으로 나온다. 또 나중에는 부처님의 재가제자가 되어 호법왕으로 나오는 프라세나짓이 아슈와멕 주술을 진행해서 전쟁으로 이끌고 승리를 기원하는 것도 저주 주술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술들은 힌두교에서 계속하고 있고, 일부는 불교의 후기 형태인 밀교(密敎)의 의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몇 가지 기제들을 이해하면 더욱 더 복잡하게 전개되어 흥미를 유발하는 드라마붓다를 즐기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BTN 자문위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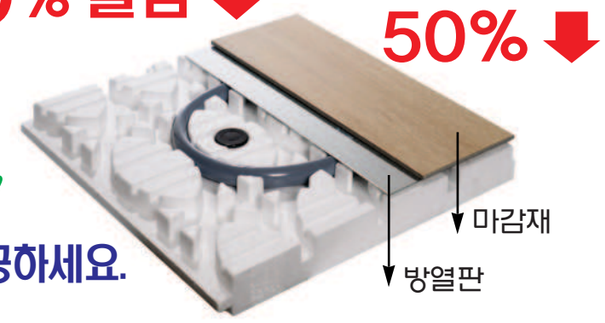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안산 : 010-2487-3393 대구 : 010-3821-4849 서산 : 010-7301-5854
화성 : 010-3168-9250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8.24~2015.8.3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명추회요-종경록 촬요본	회당조심/원택	장경각
2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3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4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5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6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7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8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박진여	김영사
9	감산자전	감산덕청/대성	탐구사
10	남을위해기도합시다	퇴옹성철	장경각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고요한 감탄 자아내는 생명의 풍경들 묘사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화가의 시골편지
이호신 글 그림
뜨란 펴냄
1만 4800원



'낙화', 한지에 수묵채색과 글씨

그림 · 마음농사 짓는 시골살이 담은 화문집
겸허한 성찰 글 어우러진 사계절 순례 이야기
자연과 인문예술의 만남이 그려낸 삶의 풍경
담백한 생활 산수화 98점 수록한 지상 전시회

자연과 생명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30년간 순례의 붓길을 이어온 이호신 화백. 오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지리산 자락으로 화실을 옮긴 그가 귀촌 5년만에 시골편지를 보내왔다. 〈화가의 시골편지〉는 순례자에서 마을 주민으로 변신한 화가의 자연주의적 삶, 봄꽃부터 겨울나무까지 가까이서 함께하지 않으면 누리기 어려운 생생한 사계절 이야기, 눈길을 사로잡는 담백하고 생기 있는 그림들, 그리고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풍경이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16번의 개인전과 15권의 화문집을 펴내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저자 이호신 화백은 나이 오십 중반에 가족과 떨어져 경남 산청 남사마을로 화실을 옮겼다. 몇백 년 묵은 매화나무와 감나무가 마을을 지켜주고, 수백 년 된 고택들과 문화 유산들이 가득한 작지만 유서 깊은 곳이다.

귀촌 전 이 화백은 화실 베란다 창문에 낭창낭창한 대나무들을 수묵으로 그려놓았다. 그리고 밤이면 이리저리 조명을 비춰 바람에 흔들리는 대숲 분위기를 연출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일이 없다. 화실 뒤란이 자연 그대로 온통 대숲이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면 풍죽(風竹)이 되어 댓잎이 창문을 두드리고, 비오는 날은 우죽(雨竹)이 되어 어느덧 붓을 들게 만든다. 정겨운 토담 옆에는 오랜 감나무가 서 있고, 지인들이 귀촌 선물로 보내준 꽃나무들이 화실 뜨락에 사시사철 피고 지며 시골 생활의 정취를 더해준다.

그림농사 짓는 틈틈이 텃밭농사를 짓고, 자연을 통해 겸허한 마음공부까지 하는 화가의 시골살이는 행복하다. 이 화백이 들려주는 나날의 풍경에 물들다보면 우리가 현재 무엇을 잊고 사는지, 어떻게 해야 보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름의 해답을 찾게 된다. 이 땅의 산하를 순례하던 화가는 이제 화첩과 지필묵을 챙겨 봄이면 매향이 번지는 고택 마당을 서성이고, 여름이면 백로와 왜가리가 날아드는 남사천 둑길을 산책한다. 또 가을에는 감잎이 떨어져 오색으로 물든 돌담길 사이를 거닐고, 겨울에는 서설이 내리는 회화나무를 찾아가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 그렇게 화가의 화첩은 쌓여가고, 자연과 사람,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정겨운 마을에서 1년 365일 또 다른 순례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호신 화백의 귀촌 5년 세월이 담긴 〈화가의 시골편지〉는 인간과 자연, 생명에 대한 인문적 성찰이 빛나는 아름다운 화문집이다. 수백 년된 매화나무의 그윽한 암향을 화첩에 옮기면서 화가는 조선의 두 학자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의 고결한 정신을 되새긴다. 삶과 죽음이 겹쳐 있는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에 들어서는 생명의 질서와 삶의 신비를 가르친 법정스님의 말씀도 떠올린다. 화실 뒤란의 대숲을 사생할 때면 대나무 사랑이 유별했던 소동파와 왕휘지, 백거이의 시심과 철학이 중첩된다. 또한 600살 할배 감나무에게서 온갖 풍상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비워낸 현자의 모습을 발견 한다.

벚꽃은 떨어져 흩날리는데 민들레가 지천으로 피어나는 광경, 찬란한 시절 뒤로하고 흙빛으로 소멸해가는 겨울 연의 풍경을 사생할 때는 '모든 것은 변한다' 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다. 마당을 점령한 잡초를 보고 황망해하던 중에 꽃나무만 선호하고 잡초는 뽑아야 할 대상으로만 여긴 지난날의 편견과 분별심을 반성하는 시간도 있다. 떨어진 밤톨에 기생하는 벌레, 척박한 바위에 간신히 뿌리내려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선 소나무, 감나무 한 그루를 보호하기 위해 에둘러 담장을 쌓은 마을 사람들의 어여쁜 마음은 화가에게 상생의 미학을 일깨운다. 그밖에도 백로, 후투티, 물까치, 제비, 반달가슴곰 같은 동물들과 회화나무, 느티나무, 진달래, 배롱나무, 목화, 산국 같은 식물들, 교교한 달빛과 눈부신 별빛,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텃밭의 가을걷이… 등등. 단아하고 기품 있게 묘사된 생명의 풍경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보다 충만하고 행복히 살 수 있는 지혜를 지속해 들려준다.

"우리 산하를 그리는 일이 비단 산천에 대한 예찬과 경외에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산과 강이, 논과 들이 품고 있는 인간의 문화와 역사, 우리네 소소한 삶의 숨결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그림이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담은 '생활산수화' 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 산하의 소소하고 눈부신 생명들과 교감해 완성한 그림 98점이 실려 있다. 생활산수화로 총칭되는 이들 작품에는 작지만 온전한 우주를 품고 있는 꽃과 나무, 새와 곤충 등 자연의 세계와 날마다 마을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해 체득한 삶의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쉰다. 한편 무수한 생명들이 별처럼 빛나는 우포늪의 풍광, 4대강이 훼손되기 전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순례하며 강의 원형을 화폭에 담은 대작들도 수록돼 있다.

화가는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자연을 다채롭게 표현하기 위해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필묵은 청담하며 필치는 담백하고 생기 있다. 탁본과 목판기법은 물론 수묵화에서는 잘 쓰지 않는 선명한 색채와 염색한지, 한글과 그림을 접목시킨 '한글 뜻그림' 등 창의적인 기법들도 응용한다.

이호신 화백의 그림은, 화업을 시작한 이래 전국 구석구석을 두 발로 걸어다니며 산천초목을 샅샅이 살피고 현장서 사생해 완성한 예술작품이자 이 땅에 대한 절절한 애정이 낳은 고귀한 기록 그 자체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길 위의 화가가 걸어온 감동적인 그림순례에 동참하는 특별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이호신은?

크게 보되 작게 살피고, 작은 것 속에 큰 뜻이 담겨 있음'을 되새기며 자연과 생태, 소중한 문화유산, 정겨운 마을 등을 한국적 정서로 표현한 그림들을 꾸준히 발표했다. 한국 진경산수화의 전통을 창신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과 다채로운 색채를 응용하여 '생활산수화'라는 독자적인 장르와 화풍을 추구해왔다. 자유로운 실험정신을 함께 지닌 이호신은 지금까지 16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영국 대영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주 핀란드 한국대사관, 주 탄자니아 한국대사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저서로는 〈지리산진경〉 〈가람진경〉 〈산청에서 띄우는 그림편지〉 〈우리 마을 그림 순례〉 〈그리운 이웃은 마을에 산다〉 〈풍경소리에 귀를 씻고〉 〈숲을 그리는 마음〉 등이 있다.

"절망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보인다"



내 상처만큼만 사랑했더라
이찬우 지음
멘토프레스 펴냄
1만 1천원

문단을 통해 꼭 데뷔 해야 시인일까? "2008년부터는 죽어라 시를 써서 천편의 시가 있다. 신춘문예는 나를 거절했고 잡지사는 내가 거절해서 등단을 안 했다. 그래도 지인들은 시인이라고 부른다"고 당당히 밝힌 이찬우 시인(51). 수 년 동안 10여 개 밴드와 카스 등을 통해 시를 올리면서 30대서 70대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형성하는 이 시인은 스마트폰에 올린 그간의 시를 매개로 낯선 이들과 공감대를 이루며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을 경험했다고 실토한다. 또한 이 시인은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 이론을 끄집어내며 자신의 시에 대해 언급한다. "아들러 심리학의 진수는 바로 트라우마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다. 경험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질곡의 세월 속에 요령없는 삶을 체득했던 나는 달콤한 사과꽃 향기가 아닌 육화된 사과향을 시속에 담아내고 있다."

보다 인간다운 세상, 고달픈 하루를 마친 사람들에게 어느 날은 **'욱신거리는 상처들을 꽃으로 피워내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별 선물 드릴려고요/ 오늘밤은 별 배달로 바쁘겠네요'**

이렇게 〈별 배달〉이란 시를 선사하고, 단지 시를 쓰기 위함이 아닌, 읽음으로써 즐기는 시를 짓고자 잘 때에도 두 눈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아름다움, 행복을 찾고자 하는 시인의 갈망이 어느 날은 의정부 중랑천에서 함박눈이 수제비로 변신하는 기적을 낳기도 한다.

그는 한때 주식투자로 수억 원의 손실을 입고 정수기영업에 뛰어드는가 하면, 수년간 중앙아시아서 사업을 강행하다 실패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그리고 갑자기 절친이 죽자 충격 받고 한때 정신병원에 근무하기도 한다. 이때 쓴 시들이 시집 본문 '파트5 너의 존재를 깨달았다'에 다수 실려 있다. 구체적으로 〈우화등선〉 시에는 살기 위해 죽는, 죽어야 사는 절체절명 속에 놓인 시인의 비애감이 생생히 전해온다.

"구질구질한 세상/ 출구조차 닫는다/ 날 선 세상/ 둥굴고 하얗게 마감한 다/죽어야 살기에/ 죽어야 날개를 갖기에/ 고통 속으로/ 환생 속으로"
〈우화등선〉中에서

또한 그의 첫 시집 〈내 상처만큼만 사랑했더라〉 말미에는 평소 이 시인의 시를 즐감해온 18명 지인들의 서평을 싣고 있다. 서평자 중 장미연씨는 "찬우는 詩다"라며 극찬하기도 하고 김재승씨는 "그의 삶이, 시인의 시어들이, 내 삶에 투영되는 것 같다. 지천명을 넘겨 살아온 이의 온기가 전해오는 것일까. 날을 세워 달려드는 삶에 대한 애틋함이 절절하다"며 이찬우 시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절망이 내 삶의 대부분일 때부터 진정한 친구와 사랑이 보이고 그리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시는 아플수록

10여개 밴드 통해 詩 올려
사업실패 등 인생 고백 녹아내
18명 지인의 서평도 실어

나오려고 많은 고통이 필요했다"고 토로하는 이찬우 시인. 그는 오늘도 의정부 한 귀퉁이에서 해석하고 분석해야 이해되는 시가 아닌, 단지 시를 읽는 것만으로도 그려지고 만져지고 독자를 즐겁게 하는 시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찬우 시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백복금 시낭송가는 "이따금씩 손끝으로 전해오는 그의 이야기에는 바람, 꽃, 비, 하늘, 바다, 사람 내음이 담뿍 배어 있었다. 바짝 몸을 당겨 읽고 있노라면 어느새 나에게서 그것들의 흔적이 묻어나기도 했다."고 말한다.

김재승 온라인종합경제신문 뉴스핌 온라인국장도 "이찬우 시인의 시어들은 낮은 울음을 머금고 있다. 그렇다고 일상의 니힐을 노래하는 것은 아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회한이, 애틋함이 엿보인다. 그의 삶이, 시인의 시어들이 내 삶에 투영되는 것 같다. 지천명을 넘겨 살아온 이의 온기가 전해오는 것일까. 날을 세워 달려드는 삶에 대한 애틋함이 절절하다."고 평한다.

김주일 기자

300질 한정판 예약

《벽암록》과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공안집
《종용록(從容錄)》 역주·해설판(전 5권)

천동정각(天童正覺) 송고(頌古) / 만송행수(萬松行秀) 평창(評唱)
석지현 역주·해설(벽암록 역주·해설자)

《종용록(從容錄)》은 벽암록과 더불어 선가(禪家)의 필독서!
선종의 공안 송고 평창집(公案頌古評唱集:공안에 대한 송과 평론, 주석, 해설서)

이 종용록은 원문을 수록하고 현토·완역했으며, 또한 각 단락마다 상세한 해설과 주註를 달았고,
《종용록 어휘사전》까지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용록 어휘사전》은 종용록에 나오는 문어체와 구어체 등 모든 용어를 해설한 사전입니다.
이 사전 한 권만 있어도 선어록을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역주·해설자는 《벽암록 전 5권 값 145,000원》을
역주·해설한 석지현 스님으로 번역 기간은 7년이 걸렸습니다.

▶ 출간일 9월 30일 / 배본일 10월 5일부터 배본
▶ 하드카바 / 각권 400~450쪽 어휘사전 198쪽
▶ 정가 : 전 5권 값 165,000원
▶ 예약 : 민족사 02-732-2403~4
▶ 예약금 : 65,000원
▶ 송금은행 : 농협 053-02-109450 윤재승 /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위로와 응원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내비둬 콘서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감 스님이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낸 금강경

화제의 신간



일감 지음 | 15,000원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망 조상님과 용맹 정진하신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백중날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을 법보시 하시면 크나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민족사 전화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홈페이지 www.minjoksa.org

老 교수가 만난 국내외 불교 餘滴… 역사와 문화 음미

〈여적〉

순례의 여적과 선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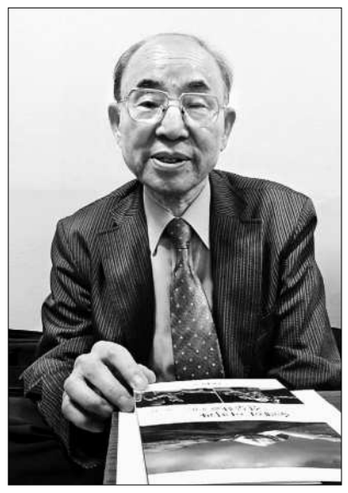
이준 지음 | 불교춘추사 펴냄 | 1만 5천원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 교수로 공과대학장을 지낸 저자는 40대에 들어 불교에 입문해 봉선사 통신강원과 조계종 교육원 서울불교전문강당서 수학했으며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상임고문이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했고 현재는 역시 중앙신도회 인재원 상임고문으로 있다. 저자 이준 건국대 명예 교수〈사진〉의 불교적 신행은 2002년 대학서 정년퇴임한 후 더욱더 활발해졌다. 〈불교춘추〉 〈불교평론〉 〈선문화〉 〈차의세계〉 등 유수의 불교 잡지들에 많은 글을 써왔다. 저자의 기억으로는 16년 동안 67편의 글을 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그 중 27편을 선정해 펴낸 책이 바로 〈순례의 여적과 선문화〉이다.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했는데 그 첫 번째는 '순례의 여적' 의 장으로 9편의 글이 실렸고, 그 다음은 '인도와 티베트 불교' 장으로 5편의 글이 게재됐다. 이어 '선문화를 빛낸 잊을 수 없는 인물' 편에서는 6편의 글, 마지막 '선문화 속의 과학' 의 장에는 7편의 글이 들어있다. 책에 실린 글중 반 이상은 불교성지 또는 불교 유적지 순례와 관련 내용이지만 순례를 통한 종교적 수행 기록이나 신변잡기를 겸한 개인적 기행문은 아니다. 순례지역의 종교색이 짙을 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가 서려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역사나 이야기를 찾고자 하는 내용이 이 책의 많은 글의 주제를 이룬다.

저자는 중국서는 주로 불교유적지를 찾았고, 인도서는 불교유적지외에도 힌두교 사원과 무굴제국의 유적지도 방문했다. 이들 역사속에서 찬란히 꽃핀 문화와 그들의 자부심을 살펴보고 음미한 흔적들이 글로 옮겨졌다.

이외에도 저자는 "백제와 신라에 뿌리를 둔 나라(奈良)의 도다이지(東大寺)" "천상에 오르는 카일라스 봉" "천상의 물 마나사로와르 호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일한 불교사원, 그 고난의 80년" "라다크에 피어 있는 불교예술의 꽃 알치 사원" "하와이에 티베트 불교의 바람을 일으킨 까규 젝첸 링" "유목의 나라 몽골의 불교, 그 영광과 고난" "원광 법사의 수행처였던 삼기산을 찾아서" "가야차(茶)의 전래에 대한 소고"와 같은 의미심장한 내용 9편의 글들을 실었다.



40대들어 불교에 입문해 수학
칼라차크라 행사 세번이나 참가
선문화 빛낸 국내외 인물도 소개

두 번째 '인도와 티베트불교' 편에서는 총 5편의 글이 실려있다. 저자는 1989년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인도불교 유적지 순례에 동참해 처음으로 인도에 갔다. 그때 저자는 인도의 역사와 문화에 매료돼 이후 여섯차례 더 인도를 방문했다. 그러는 사이에 티베트 불교에도 또한 매료돼 달라이라마가 주관하는 칼라차크라 입문 행사에 세번이나 참가했다. 앞의 세편이 저자가 2001년 1월 인도 보드가야 칼라차크라 입문행사, 2002년 10월 오스트리아 그라즈시의 칼라차크라 입문행사 그리고 2006년 1월 용수보살의 고향 근처인 남인도 아마라바티에서 있은 칼라차크라 입문행사에 직접 참가하고 쓴 글들이다. 이 칼럼들은 제 14대 달라이라마의 참 모습과 티베트 밀교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글들이다.

또한 네 번째는 "여신 강가와 인도인의 물수행"이고 다섯 번째는 "전륜성왕 아쇼카대왕"이다. 앞의 글에서는 여신 강가의 연원과 범국가적인 행사로 진행된 힌두교 최고의 목욕수행인 쿰브하멜라(Kumbha Mela) 등 주요 물수행을 소개했다. 이 장의 끝글은 인도의 역대 왕들 중 가장 훌륭한 전륜성왕으로 추앙되는 마우리야 왕조의 아쇼카 대왕의 생애와 불교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상세히 고찰했다.

여행기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장인 '선문화를 빛낸 잊을 수 없는 인물' 들에는 저자가 평소 존경하던 인물들이 소개돼 있다. 그중 세계적 젓대잡이인 티베트의 음악가 나왕 케촉(Nawang Khechog)은 '2002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정식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에 와서 공식문화행사인 "전통과 현대 예술제"에 참가한 인물이다. 그 당시 저자가 그를 인터뷰하고 월간 〈선문화〉에 실은 글이 이 장의 여섯 번째 "영혼의 소리를 연주하는 음악가 나왕 케촉"이다.

저자는 책에서 나왕케촉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왕은 독학으로 이룬 음악가로 알려져 있다. 그에게 스승이 누구인가 물었더니 스승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작곡법은 어떻게 공부 했는가 다시 물었더니 작곡법을 공부한 일이 없다고 한다. 그는 앉거나 서서 피리만 잡으면 자발적으로 입이 바람을 알맞게 불어넣도록 숨이 골라지고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여 음악이 이루어져서 그 소리가 허공을 맴돌아 흘러간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연주한 녹음을 듣거나 녹화된 화면을 보면 스스로도 참으로 놀랍다는 것이다. 어디서 저런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었는지 자기도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밀라레파 성자가 십만 개의 게송과 노래를 동시에 짓고 부른 것이나, 1820년대에 있은 링 케살이라는 이야기꾼(story teller)이 글자 한자 쓸 줄 모르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면서도 매우 문학적인 이야기와 고매한 시를 술술 구술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티베트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도 말한다. 참으로 이는 재능의 발로라기 보다는 영혼의 교감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영혼의 소리를 내는 음악가들인 듯 하다."

이외에도 이 장에서는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중국의 선사인 일행 스님" "웅거산 도응선사의 법등을 전한 해동 사무외대사" "의천대각국사와 불인요원 선사" "운제당 이영무 스님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아름다운 나들이를 마친 법정 스님" 등의 업적과 생애가 소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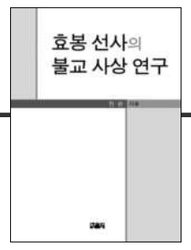
마지막 '선문화 속의 과학' 편에서 저자는 "불교적 실상과 현대 과학 간의 문화적 교감"이란 글을 통해 불교와 과학간 역사적 교감의 발자취를 고찰한다. 또한 한발 더 나아가 서구의 석학인 과학자들이 티베트불교와의 대화에 매우 경도되는 현상에 대해 저자는 피력한다.

"서구의 과학계에 위대한 성취를 가져오기 위해 티베트 불교로부터 매우 정교한 사상과 철학적 통찰력을 도입함으로써 현재까지 회피한 현대물리학의 난해한 과제들에 광명을 불어넣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우리는 최종적 해결을 기대하지 않지만, 그 문제들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접근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자비에 대한 동서 문화간 인식의 차" "중생의 법위와 한계" 그리고 "뚬-모 명상과 현대 의학의 만남" 등이 티베트 불교와 현대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새로나온 책



효봉선사 연구 논문집

효봉 선사의 불교사상 연구

진관 지음 | 한강 펴냄 | 2만 5천원

효봉(이찬영, 1888~1966) 선사의 탄생과 그가 활동하였던 전 생애를 통해 그가 실현하고자 하였던 역사를 조명하고 그가 불교계에 입문하여 선불교 사상을 실천하였던 불교 사상을 불교사학적인 입장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이찬영은 통합 조계종의 종정을 역임하였지만 그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근 · 현대 불교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인물임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책은 바로 효봉 선사에 대한 연구논문집이다. 효봉 선사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면 근대사를 성찰 할 수 있고, 조계종의 역사도 고찰할 수 있다.

저자인 진관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종도로서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신 선승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효봉 선사의 열반주기에 맞춰 발간하려던 것이 미뤄졌다. 이번 논문은 동방불교대학원 박사논문으로 자료수집 등 준비 기간만 3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붓다선의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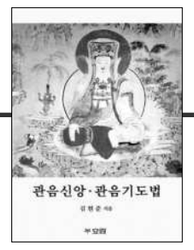
붓다선

수완나 지음 | 정우서적 펴냄 | 1만 5천원

"붓다께서는 어떻게 수행하여 붓다가 되었으며 그 수행법은 어디에 전하고 있는가?" 여래의 수행 '붓다선' 을 찾아낸 수완나 광월 선사께서, '어둠 속에 있는 보배는 등불 없이 볼 수 없듯이 성스러운 진리라도 이를 말하는 이가 없으면 전할 수 없다' 는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선사께서 얻은 작은 지혜의 핵심을 남김없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쉽고 간명해 누구나 한 번만 읽어 보면 곧바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 책에 설해진 내용은 가볍게 쓰인 것이 아니고, 또 스님이 임의로 창안한 그런 것이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인 경전에 근거해 현대인들이 읽기 쉽고 적합에게 체계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붓다의 말씀은 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문자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쓰여야 한다는 전형을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제 1장 '붓다가 전하는 가르침의 근본' , 제 2장 '붓다선의 핵심' , 제 3장 '붓다선 수행' 은 한글, 한문, 영문으로 번역해 놓았으므로 외국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관음신앙 총 망라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효림 펴냄 | 7천원

약 30여년 전 저자는 〈불교사상〉이라는 잡지에 실은 〈관음신앙〉이라는 제목의 글로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이후 작은 원력을 세웠다.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불교신앙에 대한 책을 써보리라."라고. 그 첫 결실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이 1997년에 세상에 나왔고,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후 저자는 새 원을 세워 20년만에 〈관음신앙, 관음기도법〉을 다시 발간했다. 지난 20년 동안 저자가 새로 익힌 관세음보살님과 관음신앙의 다양한 내용들, 곧 7관음 · 33관음의 내용과 기도인들이 늘 새겨야 할 일심칭념 일념염불법,독경과 사경 기도법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다. 참된 기도성취를 위해선 관세음보살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정토종의 종지와 역사는?

정토종 개론

정종법사 지음 | 정전 스님 번역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 3천원

칭명염불을 중심으로 한 정토종의 종지와 역사, 수행법을 총망라한 개설서이다.

이 책은 선도대사의 종의(宗義)를 기준으로 삼고, 용수와 천친. 담란. 도작 등 조사들의 교의를 꿰뚫어 특별히 정토종의 교의를 정립하는 근본에 힘썼다. 또한 힘써 정토종교의의 전모를 드러내어 정업행자들에게 전체적인 인식의 제공을 도모했다. 보다 자세하게 해석할 겨를이 없으므로 초학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록부분에 주석을 달고 아울러 문헌의 출처를 밝혀두었다.

이 책의 장과 절은 목록과 같다. 정식 논문은 총 10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 1장은 총괄적인 서술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인 서술이다. 2.3.4장은 교리의 부분에 해당하고, 5.6.7장은 실천의 부분에 해당하며, 제9장은 증득의 부분에 해당한다. 제8장은 앞의 문장을 받아서 뒷문장을 잇는 역할을 한다. '본원' 은 교문에 관한 세 장(2.3.4장)을 잇고, '칭명' 은 행문의 세 장(5.6.7장)을 잇는데, '본원인 칭명' 으로 '범부가 보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제 10장에서는 요점을 총결한다.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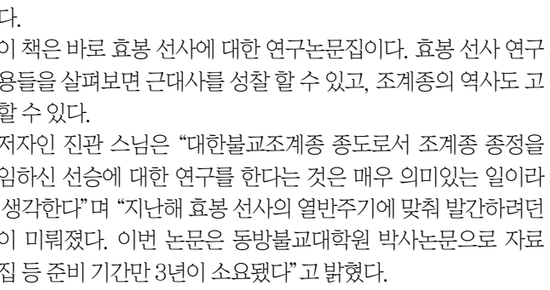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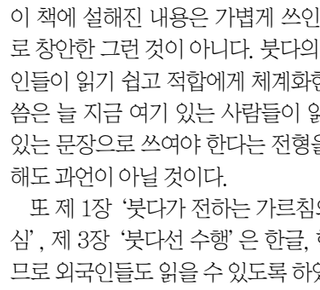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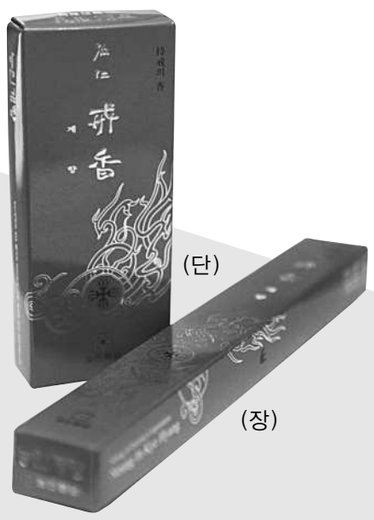


(단)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중생 구제’ 대승적 가치 이타행으로 실천하다



김용래 교수의
한국불교 도픽 36選

7. 원효,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뛰어넘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원효의 이름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는 불교사상가이자 대중교화행의 선구자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해골 물을 마시고 깨달았다는 전설과 요석공주와의 로맨스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원효는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독창적 사상가였고 그의 사유는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는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파격을 선보이며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중생과 함께 살아간 실천적 종교인이었다.

원효(617-686)는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현재의 경상북도 경산 지역인 압량군 불지촌의 밤골에서 태어났다. 귀족층인 6두품 출신으로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털옷을 두르고 태어났다고 하여 새털, 한자로는 서당으로 불렸다. 새벽을 뜻하는 원효(元曉)라는 이름은 자신이 직접 지은 것으로 해처럼 빛나는 부처의 가르침, 즉 불일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의 출가 전 행적이나 출가 동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의 일생에서 가장 고뇌가 깊었을 이 시기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는 그가 환속을 한 후 주류 불교계와 거리를 둔 채 아웃사이더로 살았고 제자를 양성하거나 교단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교학 저술 외에 그의 삶에 대한 구체적 전승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원효의 일생을 알 수 있는 전기 자료로는 9세기 초에 신라에서 작성된 ‘서당화상비문’, 10세기 말 중국에서 나온 〈송고승전〉의 ‘원효전’과 ‘의상전’, 13세기 후반에 편찬된 〈삼국유사〉의 ‘원효불기’ 등이 있다. ‘원효불기’는 원효와 같은 경산 출신인 일연이 그의 행장과 지역에 전해지던 향전 등을 인용하여 요석공주와의 인연 등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원효 삶의 단편을 복원한 내용이다. 연대가 가장 앞서는 서당화상비는 8세기 후반 원효의 후손 설중업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원효를 흠모하는 일본인 고관에게 환대받은 일을 계기로 건립이 추진되었다. 이후 비가 세워질 때 거사 모습의 원효상이 함께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출가자가 아닌 거사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원효에 대한 당시 신라인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비문의 내용은 〈삼국유사〉 등 후대의 자료에 인용되지 않아 그 실체를 알지 못하다가 20세기에 들어 몇 부분으로 조각난 비석의 일부가 발견되어 절반 정도의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

원효는 출가 후 중관, 유식 등 대승불교의 사상을 폭넓게 학습하였고 650년경 의상과 함께 당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고구려에서 잡혀서 돌아왔다. 〈송고승전〉 ‘의상전’에 의하면 원효는 661년에 다시 의상의 유학길에 동행하여 서해 바닷길로 당에 가려 했다. 하지만 비를 피해 유숙한 동굴이 다음날 해골이 있는 무덤인 것을 알고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이때 마음이 생기면 모든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동굴과 무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세상은 오직 마음먹기 나름이고 마음 밖에 따로 존재가 있지 않으므로 굳이 밖에서 구할 것이 없다고 하고는 혼자서 돌아왔다. 이는 마음의 작용에 따라 법이 생기고 마음과 법이 둘이 아니라는 〈대승기신론〉의 요체를 간파한 것이다. 한편 원효의 깨달음을 전하는 이 일화는 후대에 원효가 해골물을 마신 것으로 드라마틱하게 윤색되어 전승되기도 했다.

원효가 유학을 가고자 했던 이유는 인도에서 십여 년간 원전을 학습하고 돌아온 현장에 의해 중국에 신유식이 도입되어 평지풍파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현장은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의 모델이 된 인물로 원효는 그가 제시한 신유식의 새로운 학설을 직접 접하고 배우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때는 당과 신라의 교류가 밀접하여 중국의 불서와 교학 이해의 내용이 바로 신라에 전해졌고, 원효는 굳이 유학을 가지 않고서도 신유식 등 최신 학설을 접하고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학을 포기한 후 원효의 행적은 학문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부딪혔고 대중교화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특히 원효가 과부였던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어 아들 설총을 낳은 사건은 당시에도 충격적인 일이었고 오늘날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신라를 대표하는 학자인 설총은 고유어의 어순과 조사를 살리면서 한문을 신라식으로 표기하는 이두를 만든 이로 알려져 있다. 원효는 파계 후 환속하여 소성거사로 자칭하였고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파격적 교화행을 펼쳤다.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 춤추고 노래하며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막힘이 없는 무애행을 행하였고 아미타 염불을 크게 유행시키는 등 중생 교화에 온몸을 내던졌다. 그가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를 위한 대승계율의 〈범망경〉을 중시한 것도 승속의 구분을 뛰어넘는 행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효가 산 시대는 신분이나 지역적 차별, 전란의 참상과 민생고가 사람들의 삶을 옥죄던 때였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위안과 일상에서의 탈출이 필요하였고 종교적 구원은 더욱 절실히 다가왔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대중의 갈망을 간파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내세를 향한 갈망을 채워주고자 하였다. 또한 공주와의 인연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을 완수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신라왕실에 협력하여 시대적 과제 해결에 일조하였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서 나당연합군이 전쟁을 벌이던 662년에 원효는 당의 소정방이 보낸 암호문 ‘서독화란’을 빨리 군대를 돌리라는 ‘속환’으로 해독하여 신라군을 위기에서 구했다는 일화도 전한다. 그 때문인지 ‘서당화상비문’에서도 그가 나라를 바로잡는 문무의 덕을 지녔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환속 후 신라 불교교단의 주류로부터 경원시되던 원효는 왕실의 지원으로 중앙 불교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앞서 온 나라의 고승 100명이 모이는 국가적 법회인 백고좌회가 열렸을 때 교단 핵심부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했던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을 찬술할 기회를 얻으면서 화려하게 컴백하였다. 〈송고승전〉에 의하면 왕비의 병 치료를 위해 당에 가던 신라사신이 바다의 용왕에게 〈금강삼매경〉을 받아왔는데 그에 대한 해석을 원효에게 맡기라는 당부가 있었다. 원효는 소가 끄는 수레 위에서 논소 5권을 지었고 왕의 부탁으로 황룡사에서 이를 강설하려 하였는데 강연 직전에 누군가 이를 훔쳐갔다. 이에 3일 만에 〈금강삼매경론〉 3권을 다시 써서 설파하였는데, 원효는 “지난날 100개의 서까래를 고를 때 비록 끼지 못했지만 지금 대들보 하나를 놓는 일은 나 혼자만 할 수 있구나.”라고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원효는 중관, 유식, 법화, 화엄부터 열반, 정토, 계율, 〈기신론〉에 이르기까지 당시 유통되던 모든 불교 교학을 대부분 섭렵하였고 저술을 통해 독자적 사상체계를 구축하였다. 그의 사상은 신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 화엄학의 이론을 체계화시킨 법장은 원효의 〈기신론〉 이해를 참조하여 주석서를 썼다. 또 일심의 체득을 중시한 징관이나 종밀도 원효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았다. 일본에서도 8세기 나라시대의 남도 6종에서 원효의 학설과 사상에 의거하여 교학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다.

원효는 평생 100여종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현재는 그 일부인 14부 17권만 온전히 전하며 일부만 전하는 것도 10부 정도 된다. 다만 후대의 주석서에 인용된 내용이나 사본 단편 등을 통해 그의 사상의 전모를 구멍 난 퍼즐처럼 듬성듬성 꿰맞춰 볼 수 있다. 원효 사상의 전개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반야공관과 일승 사상의 수용으로 교화승인 혜공과 대안의 영향을 받아 공관을 수학하고 백제로 온 고구려 승려 보덕에게 〈열반경〉을 배워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일승의 가르침을 체득하였다. 제2단계는 유식사상으로 원효는 총 14종 9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유식 관련 저술을 남겼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신유식의 오성각별설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일승 사상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탐색의 과정이었다.

제3단계의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을 변함없는 본체로서의 진여문과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적 생멸문의 두 측면으로 나누고 모든 존재는 일심의 발현이라고 하였다. 원효는 일심은 만물의 본원으로 모든 법을 포섭하며 중생의 마음 그 자체라고 보았다. 그는 진여문을 공(空)과 일승, 생멸문을 유(有)와 삼승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양자의 논리적 통합을 지향하였다. 그의 〈대승기신론별기〉에서는 〈기신론〉 이야말로 “모든 논서 중의 으뜸이며 여러 논쟁을 극복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하여 대승의 핵심사상인 일승을 설한 논서이자 불교이론을 종합한 사상이라고 극찬하였다. 한편 〈금강삼매경론〉에서는 차별 없는 절대의 진리인 일심을 체득하는 ‘일미관행’의 수행법을 설하여 일심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추구하였다. 원효는 일심을 통해 일승과 삼승, 공관과 유식, 차별과 무차별을 포괄하면서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는 논리를 개진하고 실천한 것이다.

제4단계는 화쟁사상으로 원효는 〈십문화쟁론〉에서 공과 유, 일체개성과 오성각별, 아와 무아, 불변과 수연과 같은 여러 대립적 개념들이 실제로는 동일한 진리를 각기 다른 차원에서 설명한 것일 뿐이며 진리의 참모습을 알려면 어느 한쪽의 언어적 개념에 치우치거나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화쟁사상은 원효의 독특한 사유체계로 ‘서당화상비문’에서도 그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고려시대에도 의천에 의해 원효는 화쟁국사로 칭해졌다. 〈십문화쟁론〉은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에까지 번역되어 전해졌다고 하며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가 20세기에 들어 일부 내용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원효는 〈화엄경소〉에서 차별적 현상 존재가 실제로는 원융무애하다는 화엄일승의 세계를 강조하였다. 〈화엄경소〉에는 원효의 독자적 시각이 담긴 통합적 4교판설이 제시되어 있는데, 모든 중생의 성불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승의 가르침이 근기에 따라 구분하는 삼승에 비해 차원이 높다고 보았다. 즉 삼승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단계를 삼승별교, 법공을 설하는 반야 계통의 중관사상과 유식의 〈해심밀경〉 등을 삼승통교, 대승보살계를 설한 〈범망경〉 등 실천적 성격의 경전과 〈기신론〉을 일승분교, 원융무애를 설한 〈화엄경〉과 같은 차별 없는 일승의 원만한 가르침을 일승만교로 구분하였다.

원효의 삶에는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가 나뉘지 않았고 승과 속 모두가 깨달음 앞에 차별이 없고 서로 평등하다는 신념이 확고하였다. 그는 불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그것이 일심으로 발현되었다는 점을 통찰력 있게 설명했고, 그러한 앎의 경지를 실천의 장으로 끌어올려 승화시켰다. 즉 자신만의 깨달음보다 중생 구제라는 대승적 가치를 위해 몸소 자타의 구분이 없는 이타행을 실천한 것이다. 당시 대중은 불교가 제시한 구원의 길에 열광했고 원효는 세간으로 되돌아와 대중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가 학자나 평범한 구도자의 길을 고수하지 않고 세속의 일파만파 속에 온몸을 내던진 것은 틀을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여기에 원효의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

일심, 중생마음을 불법으로 봐
주류불교계와 거리, 대중 속으로
실천중시 사상 제시, 불교개혁 유도
환속 후 ‘소성거사’ 후에 ‘화쟁국사’로

신라불교 자존심을 세우다

소위 ‘국내파’ 지식인의 대표주자
당 유학길에서 ‘대승’ 요체 깨달아
유학 포기, 신라서 ‘신유식’ 모두 섭렵
중국 · 일본에 영향, 100여 저술 남겨



경주 분황사에 모셔진 원효 스님 진영. 원효 스님은 당시 유통된 모든 교학을 섭렵해 독자적 사상체계를 구축했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1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SBS 미워도 다시한번 그 여자 그 남자 /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MBC 생방송 오늘아침 / JTBC 부모찾기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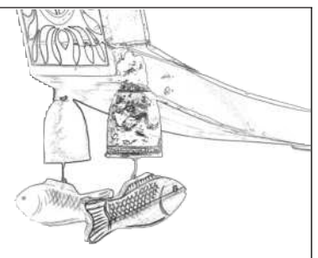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우주의 먼지같이 많은 생각들을 헤아려 알고 대해의 바닷물을 다 마시고 허공을 다 헤아리고 바람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어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설할 수 없네.

- 화엄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스님 및 무속인 신병, 각종 질병에 시달린 분들 큰스님 친견 후 의식 및 상담. 구병시식, 천도의식. 빙의퇴치전문 수시 접수 中
02)2226-5336
010-9745-5355



정확한 방편술
한권의 책으로 방편술의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오
정가 25만원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육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스님을 찾습니다
울산 연암동 만덕스님
군위 고원사 혜일스님
연락주세요
김국희 010-9208-3835

미륵불 (대형)
알림
010-4630-800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고승 비급 전수
책임지도, 바로 친견가능. 기존 사주학 아님
동국대대학원 졸업(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011-9514-37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진주, 60세이상)
참신하신 분
010-4587-101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10-7311-5335

60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양시)
010-3755-4242

기도 예불스님 구함
절에서 심부름 공부할 행자 구함. 절에서 예불 드릴 처사 구함.
(부산 절)
010-3840-43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영주)
010-3346-2328

사찰 운영
하실
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이름은 돈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주는 인생의 씨앗이요
이름은 인생의 꽃입니다
빛나는 이름, 향기로운 이름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덕인 성명학 (역삼역 6번출구)
02)562-8353
(홈페이지 참조)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십시오
- 특수한 기도비법을 스님께 전수합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약사여래불사 권선문
약사여래 부처님은 왜 해야 하는가? 약사여래 부처님은 모든 장애와 두려움과 곤란을 없애주시고 모든 나쁜 질병과 고통을 없애주시며 모든 좋은 일을 소원 성취시켜주시는 신비한 부처님이시다.
성원사 (제주시 도련길 66)
064-783-2092, 010-9267-2092, 011-699-2616
우체국 510446-01-000934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49재,천도재,점안식
최고의 의식으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작법무,살풀이,회심곡)
이 인연으로 성취하소서!
010-5482-209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6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2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3-474-8228, 010-8582-7034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최면과 기공술을 특별 전수합니다
대한불교약사불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오
010-9229-3801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사찰 대출
포교당,부전,공양주 상담
천도재 / 철학
실력자 구인
010-5381-1419
법당철거 / 인테리어 상담
02-319-9696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불교수련원, 사찰 명당 터
- 위치 :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685-1 산음캠핑
- 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나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하여 드립니다.
- 18,000여평에 캠핑장 15동 / 수영장, 체육시설 완비
- 캠핑장 운영으로 조경시설 완벽
- 가액 : 38억 문의전화 : 010-6335-0695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가목(원탕)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011-9049-2848 야간전화 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뫁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부처님의 경전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크게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경전을 전해 받는 사람은 큰 경사를 얻고 일체 중생은 윤택함을 얻는다.
- 불본행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 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 (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충남 논산시 사찰전세가격 내림
- 2층 법당 58㎡ 요사110㎡공양간
- 토지600㎡, 마을주변, 깨끗함
- 전세가격 내림. 금액 5천만원
- 집기류완비즉시법회가능(월세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임대
- 위치 : 김해지역
- 평수 : 약 50평
- 아파트 밀집지역, 포교하기 좋은 곳(불교대학가)
- 가전집기 일체
- 가액 : 2,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 시설A급

010-2610-999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20분거리, 옥과 설산 기암괴석사자형상, 적송림 옥과 톨게이트 5㎞
- 산: 1만2천평, 종교부지650평
- 약사석불12자(血사리봉안)
- 건물 : 조립식건물 3동, 암반식수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 가액 : 3억7천, 차진입가함

010-8224-168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경기
◎ 대지:1000평 ◎ 종교용지:1300평
◎ 법당:50평 외 ◎ 법당:50평, 요사:60평
◎ 요사:60평 ◎ 차량진입, 경관양호
◎ 양도:가격협의 ◎ 양도:1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제천시 포교사찰 급 양도
* 법당48.7㎡, 한옥요사채59㎡, 토지250㎡
* 제천시시장부근사찰. 포교사찰 적당함
* 양도가 : 1억 6천만원 (융자5천가능)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신축 한옥 주택
땅을 알고 터를 잡은
산 자락에 예쁜 한옥
이웃환경 좋은 마을
- 위치 : 경남 창녕 부곡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30평, 목조, 기와
- 가액 : 2억 7천 5백(황토방, 정자)

010-3703-587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안
- 2층, 삼존불, 소불 108불, 아담한 법당
- 평수 20평, 시설일체 완비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삼십만원 시설비 1천 2백만원

010-3101-115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07-7번지 태진빌딩 4층
- 총 실평수 120평, 대법당, 일체 시설은 최상임.
- 100% 시설완벽 일체 양도해 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125만원 시설비 2,500만원
- 급 양도 일단 오셔서 눈으로 보세요

010-4010-4070

토 굴(터)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 관음리
- 지목 : 전, 면적 : 221평
- 토지이용 : 생산관리지역
- 금액 : 1억원(목재 석재 포함)
- 참고사항 : 백두대간 포함산 주변 2차선 도로에서 200m 거리이며 지적도상 도로 구거와 연결되어 있고 앙쪽은 산이며 입구 주택 3가구 까지 차량통행 주차가능 주택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완료 15톤 덤프 레미콘 차량 출입 가능

연락처 : 010-8555-448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243-4번지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6천만원

010-4564-8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123번지
- 화재로 요사채 전소 , 산신각, 미륵불상
- 암반수, 전기
- 대지 1,240평
- 가액 : 9,000만원

010-3763-280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토굴 겸 임법당
- 위치 : 경북 김천
- 건물 22평, 실제 31평
- 대지 129평, 정남향
- 방3개, 주방1개, 화장실 1개
- 삼존불, 탱화, 관음소불 100불
- 조용한 시골 홀로 정진기도 하기 최적지
- 노스님 시봉관계로 급 안내
- 가전집기 일체 양도
- 가액 : 5,800만원

010-4323-3579

포교원 임대
- 위치: 안산 시내 위치좋은 역세권
- 교통편리 유동인구 많고, 포교원 운영으로 최적지
- 상가형성 잘되어 입지조건 좋고, 일체행사 민원없음
- 전철, 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 4층 전체(엘리베이터), 실평수 60평
- 법당, 상담실, 요사채, 다용도 공간, 주방,욕실, 쾌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 월 90만원 시설비 3,300만원(상담시 가격절충 가능)
- 절살림 준비 잘되어 있어 바로 여법하게 법회가능 옥상활용(기도, 행사) 너무 좋음
- 현대 원활히 운영중이며, 불사관계로 소임을 맡아 급하게 내놓습니다

010-5913-7239 일연스님
010-3145-8626 종무소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남안동 IC 10분거리
- 법당 좌우로 실개천이 흐르는 합수머리
- 종교용지 대지 약 590평
- 법당 15평, 목조 기와 단청
- 산신각1동, 요사채 2동 1동에 2층 황토방 원룸
- 법당, 집기, 공양간, 일체집기
- 가액: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의성 IC 5분이내
- 대지 235평, 주차장 10대주차, 채전밭 약 300평(국유지)
- 법당 : 삼성각, 요사채 집기일체 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30년된 아담한 사찰
- 가액 : 1억 5천만원(조절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 스님 건강상 문제로 안내

054)832-6567
011-522-65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포교원 최고의 위치
- 부산 서면역 5분 거리(부전시장)
- 5층 건물에 4층 47평(엘리베이터)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후불탱화 108호신불, 시설완비,
- 강의실(명리학, 불교대학, 불교의식)겸 공양실, 종무실, 주지실, 화장실(남녀)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삼천오백중 일부(급이전관계)

문의전화 : 010-3711-50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총평수 373평
- 건물, 법당
- 요사채 합 50평
- 산신각 5평, 용왕당 2평
- 가액 : 1억 7천만원

010-8034-83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가액 : 3억 6천
- 대지 : 1408㎡ (약 425.92평)
- 임야 : 340.49㎡(약 103평)
- 전 : 287.60㎡(약 87평)
- 경내로 청정한 개울이 흐르고 있음

010-5479-5779

청평 한옥 주택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 (큰방 1, 작은방 2 중 1개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암자나 토굴 교환 가능
- 가액 2억 6천만원

주인직 : 010-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 부지 종교용지 1,700평, 산 4,130평 합계 5,830평
- 대웅전 35평, 요사채2층 80평, 지장전 45평
- 양평시내(남한강이 보이는 전망 양호)
- 주인직접 (매수, 전세 : 계약 후 분할 납부가능)

010-4225-0012
02)403-3333

큰사찰 및 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경치 좋은곳
- 1만평 33,000제곱미터 평당 10만원
- 1만평 개인분할 등기 진행중
- 답사후 결정 주인직접
- 현재 사찰운영중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조립식건물
- 주차장 넓음
- 양산시내 및 고속도로 지하철 25분거리 부산, 울산, 김해 1시간거리

010-3879-2544

강 원 영 월
- 위치: 강원 영월 삼방산 부근
- 전 2,417㎡. 전 1,802㎡
- 귀농 주택 8가구
- 약초, 버섯, 가축
- 가액 : 2억 6천만원

주직 010-5705-8865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송추계곡 근방
- 2층 건물 중 2층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백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면지역
- 대지 : 120평, 전 390평
- 법당 : 목조 13평
- 요사채 : 26평, 종무소 6평, 산신각
- 가액 : 1억 8천만원

010-9231-682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소불, 인등, 연등, 후불탱화
-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일부 보시함 약 40평
- 가액 : 시설비 천삼백만원 절충가능 전세금 삼백만원에 월세 오십만원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랍니다 명리, 철학 호 조건

010-4609-4377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 김수로왕능과 공원사이 (김수로왕능이 한눈에 보이는 전경
- 평수 : 2층 50평(상가건물)
- 시설 : 포교당 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3628-1156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 매각(가격 협의)

010-5097-346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7호선 사가정역 근처
- 평수 : 4층 54평, 방4개, 내부화장실 2개
- 보증금 : 3,000만원 월 임대료 130만원 시설비 별도 : 2,500만원 (법당 집기류외, 에어컨 2대, 냉장고 2대 TV 등 기타 모든 집기류 포함)
- 기존 신도가 있으니 몸만 오셔서 법회 보시면 됩니다

010-7144-00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 평수 : 종교용지 대지 251평
- 구 성 : 본제 법당 요사채, 창고 및 넓은 텃밭도 있음
- 사방이 다섯봉우리, 앞에는 바다 조망권과 경관이 수려함
- 건강상 급 양도
- 주차공간 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

010-9476-9001

토 굴 터 (급) 안 내
- 위치 : 전남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526, 527(706평)
- 주봉에서 래용입수 좌청룡 우백호
- 앞산은 천황봉 좌우음양수개울 윗쪽산 50미터 높이 석간수 있는 명당
- 가액 : 3천만원

010-6738-8823
041)542-2055

포교원(급)안내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위치 : 경북 경산시 진량읍
- 평수 : 52평, 3층중 3층, 옥상 사용가(소대)
- 법당 : 상단(삼존불, 후불탱화), 신중단(탱화) 산왕단(탱화), 영단(천혼단)
- 요사 : 주지실1, 사무 친견실1, 방사2 후원, 공양간 각1개, 차고 2대이상
- 가액 : 보증금 3백, 1년 월세 2백 시설비, 집기일체 5백
※ 온난방 완비, 월 전기세 3만 미만

010-2329-1424(주지직)

포 교 원 (급)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시장근접
- 2층 80평
- 법당.방3개 부엌1. 화장실3개
- 삼존불.후불.일체
- 보증금5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1.800만원 조정가능

010-5942-2032
070-8844-2030

울산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30평
- 삼존불:아미타불.관세음. 지장보살.관음.지장보살.소불60불 후불탱화.미타.관음.신중.칠성.산신
- 현재법회도량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3558-9016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마음 다이어트

〈5〉 감성 충전하고 개발하기

김대선

한 번에 한 가지 감정만 멈추어 바라보라

마음공부는 무엇인가

흔히 명상을 마음공부라 하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열심히 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명상을 시작했다. 몇 년 수행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깨달음이 와서 전설처럼 '오도송'으로 멋진 시를 터트리고 하늘과 땅의 이치를 모두 알게 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명상을 해 보니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조절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님을 시간이 지날수록 실감하게 되었다.

명상을 시작할 때는 호흡을 비우고 여러 수련법을 따라 하며 기운을 느끼는 재미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과 마음을 바꾸고 관리하는 마음공부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명상을 통해 마음공부가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배운 적이 있다. 그것은 첫째 '하심이 되었는가?', 둘째 '마음을 비우는가?', 셋째 '마음을 조절하는가?'이다. 하심이란 겸손이자 묵언하는 것이다. 평소에 말이 많으면 하심이 되지 않고, 생각과 감정이 많다는 증거다. 〈도덕경〉에는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모르는 사람은 말이 많다."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슴속에 담아 두고 억지로 참으라는 것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언한다고 억지로 참다보면 화병에 걸릴 수도 있다. 견성은 해야 하심과 겸손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은 기억이 난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감정과 욕망을 비워 유리처럼 투명한 사람이 됨을 의미한다. 호흡을 통해 자신의 기운을 비우고 변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평소 중요하게 여겨졌던 돈과 사랑, 직업,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된다. 비움의 과정에서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며, 과거에 소중하고 가치 있던 일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마음을 조절하는 것은 일과 생활 속에서 어떤 사건이 닥쳐도 변화무상하지 않고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대학공의〉에서 "유학자는 일로써 마음을 닦고, 스님은 마음 닦은 것을 일로 삼는다."고 표현하였다. 두 경우 모두 깨어서 자신을 관리할 때 마음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 속에서 불편한 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방법이다. 명상은 마음을 비우고 조절하여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함인데, 보기 싫고, 듣기 싫고, 기억하고 생각하기 싫은 사람과 일이 주변에 많을수록 실현하기 어렵다. 산속에서 혼자 산다면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고 살면 된다. 그러나 인간은 주변에 많은 사람과 계속된 만남을 통해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싫은 것을 순간적으로 피해 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날 똑같은 상황이 사람만 바뀌어 있을 뿐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된다.

그래서 시시각각 마음을 비우고 조절하여 자신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편안함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편안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것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마음을 비우는 것의 출발은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을 하나씩 줄여 나가는 것이다.

감정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한 무지갯빛의 스펙트럼과 같다. 빛은 본래 투명하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면 가시광선은 무지개 색으로 나누어지고, 자외선과 적외선 등은 파장 길이에 따라 나눠진다. 빛은 공기 중에 들어 있는 물질(먼지, 수분, 가스, 구름 등)과 열에 따라서 반사되어 보이는 색이 달라진다. 인간의 순수한 심성을 빛으로 비유한다면 프리즘은 지금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 상태라 할 수 있다. 순수한 빛은 본성이자 양심이며, 프리즘을 통과한 가시광선은 감정과 욕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생각과 에너지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발현되는 감정은 달라진다.

명상은 유전된 특성이나 경험에 의하여 쌓인 탁하고 어두워진 자신(自身, 몸과 마음)을 맑고 투명하게 갈고닦아 밝게 빛나는 자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넓고 균형 잡힌 시야를 가진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포용적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몸의 탁한 기운과 기억을 호흡을 통해 비우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마음이 맑고 가벼워지며 지혜가 밝아져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감정조절과 뇌의 관계

마음의 중심에서 감정과 욕심을 바라보고 균형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마음공부를 하는 이유다. 보통 자신이 옳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감정은 동서양에서 수천 년 동안 논쟁이 계속되는 화두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서사시 형태로 소개한 플라톤의 〈향연〉은 인간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근원적 이유에 관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나눈 대화를 소개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아름다움은 없다고 하면서 도의 경지에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굳이 아름다움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도의 경지인 해탈을 하면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불편 제거해야 수행 잘돼
싫은 것 많을수록 실현 어려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 비울 것

근심걱정 배출해 마음 힘 강화
순간 감정 바라보고 멈추며 조절
넘치고 부족한 감정 파악 중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음과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조선 중기에 있었다. 도덕 시간에 배웠던 사단칠정 논쟁으로 알려진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편지 토론이 그것이다. 사단칠정에서 사단은 마음을 알 수 있는 네 가지(측은지심, 시비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단서와 일곱 가지 감정에 관한 것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논쟁의 차원이 과학적 사고의 영향으로 그다지 높지 않지만, 고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폴 에크만(Paul Ekman)은 기본 감정(Basic emotion; love, joy, surprise, anger, sadness and fear)에서 인종과 문화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얼굴 표정과 반응에 대한 연구 결과를 1970년대에 발표한 적이 있다. 폴 에크만은 표정, 몸짓, 목소리만으로 거짓말을 알아내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내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다. 미국 폭스 TV에서는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팀 로스가 주연한 'Lie To Me'라는 범죄 심리 드라마를 제작, 인기리에 방영했다. 폴 에크만과 핀란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감정에 대한 반응에 인종과 문화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상 관점에서 볼 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뇌가 아니라 가슴속에 있는 중단이다. 중단을 통해 뇌의 중앙에 있는 감정 뇌를 조절하게 된다. 중단과 감정 노의 연결 고리는 뇌 과학을 통해 더욱 연구해야 할 분야다. 감정 뇌는 감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1차적으로 해당 영역으로 보내는 교차 영역이다. 뇌하수체와 시상하부 등에서는 인체에 필수적인 다양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곳을 변연계라 하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기능이 강화되지만 부정적 충격을 받으면 위축되어 이성적 기능이 마비되기도 한다. 감각을 통해 변연계로 들어온 사물을 과거의 기억과 비교하여 몸을 방어적으로 작동시키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속담이다. 잡념과 고민 등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 뇌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슴속에 쌓여 있는 감정과 근심 걱정을 배출하고 마음의 힘을 강화시켜야 한다.

감정과 생각 멈춰 마음 다스리기

명상을 배우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과 욕심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다. 삶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내외부 자극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멈추거나 조절하는 것을 지감이라 한다.

지감은 마음(감정, 생각, 잡념 등)에 관한 사항을 끊는 것으로서 마음공부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기운을 흔들어 요동치게 하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장시간 동안 느끼지 않는 것을 뜻한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발생하면 그 느낌과 흔들림의 파장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느낌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갑자기 누가 전화해서 굉장히 슬픈 소식을 알려줘도 오래 간직하지 않고 이내 잊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로봇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사물을 보면 마음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반응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지감이며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옛말에 '하루에 감정이 열두 번 바뀐다'고 하는데, 한 가지 감정이 며칠씩 지속되는 것은 자신이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감을 연습함으로써 평소 마음에서 감정이 비어 있는 안정된 상태가 되면 순간순간 주변 환경에 반응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다.

감정을 조절하여 감성이 풍부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알아야 한다. 먼저 어떤 감정이 넘치고 어떤 감정이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자신에게 넘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직접 적어볼 필요가 있다. 평소 감정이 넘치는 부분 없이 모든 감정이 부족한 불감증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감정을 조절하기 전에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고 표현하는 연습을 우선해야 한다. 재미있는 연극이나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양한 감정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는 게 좋다. 감정 표현도 연습을 통해 조절할 수 있으며 꾸준한 도전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쑥스럽게 생각할 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만 명상할 때는 감정이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이다. 부족하면 감정을 넘치게 한 후에 조절해야 하지만 넘치면 조절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명상은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도록 연습하는 과정이다. 일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하지 못하는 일을 지시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이라면 부정적인 마음을 비우고 일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명상에서 추구하는 방식이다. 명상을 할 때는 명상에 집중하고, 식사할 때는 음식 먹는 것에 집중하고,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한 가지만 하려고 해도 평소 습관대로 자신도 모르게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감정을 조절하는 지감의 경우에도 한 번에 한 가지 감정만 멈추고 바라보고 조절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기 바란다. 처음에는 하루를 목표로 한다. 하루가 성공하고 나서 3일, 7일, 21일 등으로 점차 늘려 나가다 보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호흡과 명상법을 통해 탁한 감정의 기운을 먼저 비우다 보면 맑고 안정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어 마음을 멈추고 조절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 글은 〈마음 다이어트〉(책나무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 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가족의 행복은 겉모습보다 마음이 좌우

제2장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가족은 든든한 울타리에요

I love my family!



가족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

사람이 만든 사회집단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오래된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어줄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고 일을 할 때는 뜻을 모아 같이 사는 것이 가족' 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새해에 소망을 말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를 첫 번째로 말합니다. 가족의 행복은 누구나가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행복이 저절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지는 않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잘 따르겠어요

I will respect and be grateful for my parents.

김만중(1637~1692년)은 조선 중기의 벼슬아치이자 소설가였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베 짜고 수를 놓아 돈을 벌면서도 자식들이 알면 마음이 아파서 공부를 못할까봐 몰래 일을 했습니다. 필요한 책은 빌려다 베껴 주기도 했습니다.

김만중도 어머니를 극진하게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렸고 어머니를 즐겁게 해 드리려고 병아리 울음소리와 어린이 울음소리를 흉내 냈습니다.

글 읽기를 좋아하는 어머니께 밤새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평생 어머니 곁을 떠난 적이 없던 김만중은 남해로 귀양을 가서도 어머니 걱정뿐이었습니다.

귀양지에서 한글소설 〈구운몽〉을 쓴 것도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효를 저지른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크고 높은 은혜에 대해 알려 주셨고, 은혜 갚는 방법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담긴 경전을 〈부모은중경〉이라 부릅니다.

* 부모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보아요.
*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고 있나요?

다른 형태의 가정도 이상한 눈길로 보지 않겠어요

Everyone's families are different. I will not judge or make fun of my friends' fami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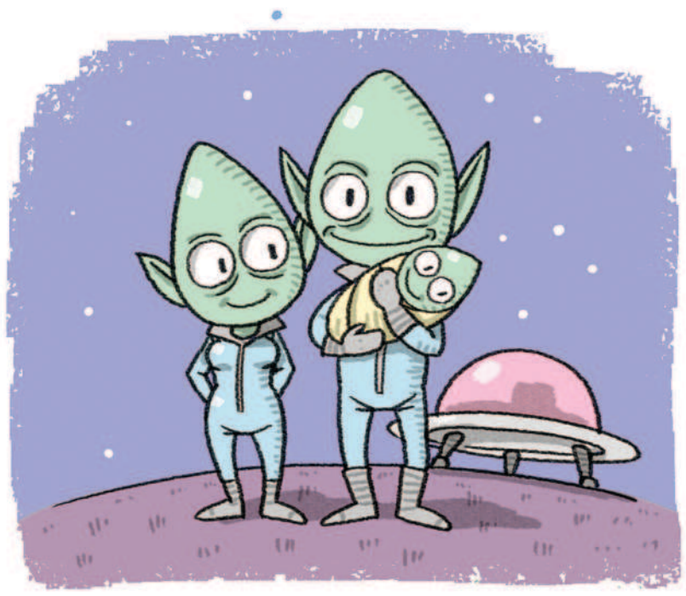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인 홍난파(1897~1941년)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동요가 세상에 나온 것은 1933년입니다. 그 때의 가족 모습은 할아버지 · 할머니, 아들 · 며느리, 손자로 이어지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가족도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입니다.

개구리 노래가 나오고 한참이 지난 2008년, 〈완득이〉라는 소설이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인 완득이는 아버지, 삼촌과 함께 삽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친동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보는 사람입니다. 떨어져 살던 어머니는 찾고 보니 베트남 사람이었습니다. 개구리에서 완득이까지 75년이 흐르는 동안 가족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사는 조손 가정, 재혼 가정, 입양 가정 등으로 모습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가족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한 것은 사회가 그만큼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 모습이 달라지니 가족 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다양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네 가족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눈길로 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어떤 가족 형태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입니다.

*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아요.
* 미래에는 어떤 가족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미래의 내 모습 그리며 꿈을 위해 노력하겠어요

I will imagine myself in 10 or 20 years and make my vision come true.

"20대에는 이름을 알린다.
30대에는 사업자금을 마련한다.
40대에는 사업에 승부를 건다.
50대에는 사업을 완성한다.
60대에는 다음 세대에게 사업을 물려준다."

이 글은 다국적 인터넷기업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1957~) 회장이 열아홉 살에 세운 인생계획입니다. 손정의 회장은 이 인생계획을 하나하나 성공시켰으며 마지막 60대의 계획을 실천하는 중입니다.

10년, 20년은 매우 먼 훗날의 일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10년마다의 계획을 모두 이룰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두면 그 순간이 닥쳤을 때 결정과 선택이 쉬워집니다.

돈을 얼마쯤 번다거나 큰 성공과 같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국토순례 여행을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떠난다든지, 나만의 음악을 만든다는 계획도 근사합니다.

인생설계도가 멋질수록 우리는 인생이라는 작품을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나요?
*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를 만들어 보세요.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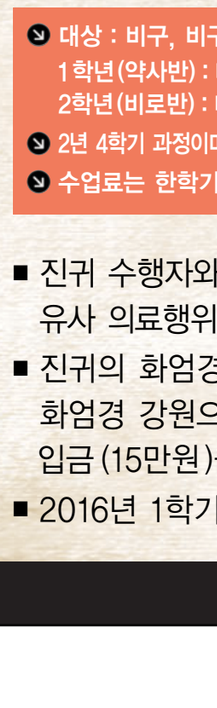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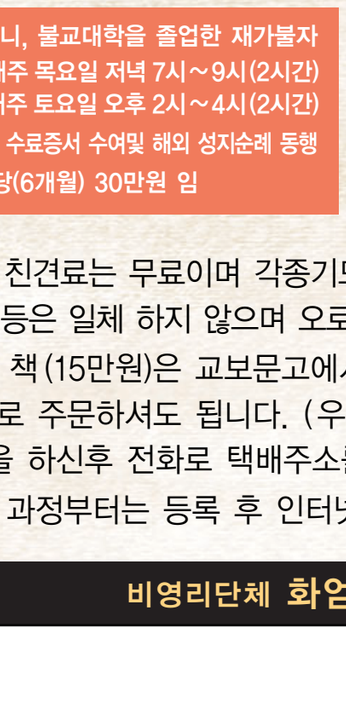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경을 대본 없이 즉설로 강의하는
진귀의 화엄경 강좌





진귀스님의 화엄경 수행의 가피로 사람들의 몸과 1m이상 떨어진곳에서 마주앉아 차만 마셔도 절을 전혀 못하는 노보살이 절을 삼배하는 기적같은 일들이 강원에서는 누구나 체험 하게됩니다.

- 대상 : 비구, 비구니, 불교대학을 졸업한 재가불자
  1학년(약사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2시간)
  2학년(비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료증서 수여및 해외 성지순례 동행
- 수업료는 한학기당(6개월) 30만원 임

■ 진귀 수행자와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천도재와 불교적 방편 및 유사 의료행위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잔의 친견과 강의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책(15만원)은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이며 화엄경 강원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입금(15만원)을 하신후 전화로 택배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2016년 1학기 과정부터는 등록 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화엄경 강원 전화(대구) 1899~9532

불자 세상보기

南北갈등, 화쟁·연기로 풀어내자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냉전시대의 관성이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까지도 휴전선 일대에서 지뢰가 폭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울리며, 포성이 오가는 일촉즉발의 충돌위기가 반복됐다.

지난 7년에 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로 남북갈등이 심화돼 왔다.

켜켜이 쌓인 응축된 갈등에너지가 심화돼 30여년 만에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이 재발했다. 남측이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측이 포격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맞서 남측이 북측 비무장지대에 40여년 만에 대응 포격을 가하는 등 무력시위가 이어졌다.

남측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남과 북 사이에 포격이 오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평소에 북한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수세적으로 방어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에 맞서 공세적으로 나왔다.

그들 말대로 UFG 한미군사연습이 '북침전쟁훈련' 이라면 북의 도발을 빌미로 한미가 반격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북측이 선제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북 심리전 방송이 북한 지도자의 권위를 훼손하고 북한체제를 이완시키기 때문에, 북측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을 비롯한 모든 물리적 자산을 총동원한 가운데 43시간 동안 이뤄진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대치국면을 풀고 대화국면으로 전환됐다.

'8·24합의' 를 통해 충돌 일보직전의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한 시인,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남측 정부의 '도발불용' 의 원칙 있는 강한 대응이 반영돼 북한의 '유감' 표명을 받아냈다. 남북합의문에서 외교적으로 사과에 해당하는 북측의 '유감' 표시를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 를 받아냄으로써 그동안 반복된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도발→위기→타협→보상→재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냈다.

합의대로 당국 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면 7여년 동안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불교교류도 활성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불교통일선언' 에 따라 한국불교가 사회통합에너지를 발현해서 남북갈등을 해소하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실천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원효스님의 화쟁 사상과 연기법은 남북갈등을 해소하는 사상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갈등 해소와 통일을 위한 논리와 지혜는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부처님의 연기법에서 찾을 수 있다. 같은 민족인 남과 북은 서로 연관된 존재이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은 서로 다른 인연이 엮어내는 다양성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공존과 상생의 기본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남북화해와 동질성 회복의 출발은 원효의 가르침에 따라 남북한이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은 심화되고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의 논리가 나오게 된다. '다름은 같음이 있으므로 형성될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하여 민족공동의 삶의 원리를 찾아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남북불교 교류협력이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있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번 남북합의에 따라 한국불교는 민족전통종교로서의 위상에 맞게 공존, 상생, 합심의 통일논리에 따라 민족 동질성 회복,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불교문화재 복원 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화하여 통일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발언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위기가 고조되었던 8월 전역을 앞둔 군장병들이 희생정신이 우리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50여명에 달하는 장병들의 전역연기에 인터넷에서는 이들을 응원하는 3만여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번 장병들의 전역연기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공동체 정신은 부처님의 큰 가르침"



남지심
소설가

현역의 젊은 군인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이런 생각을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젊은 나이에 열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애국' 이라는 가치에 대해 고답스럽고 촌스럽다는 시선이 있어왔다.

사실 국가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집' 과도 같다. 우리 삶의 터전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것이다. 이번 장병들의 전역연기로 인해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다시금 살아난 것 같다. 이들을 응원하는 수많은 댓글과, 이들을 특별채용하겠다는 기업들까지 우리 시대의 사고가 다시금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흔히 우리는 '국가' 를 중시하면 전체주의라고 오해하며 또 이를 경계한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 등의 가치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안전해야 한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국민 모두에게 살아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설하셨다. 굳이 국가로 한정짓지 않고 우리가 속해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조금씩 공동체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일 것이다.

부처님이 깨치신 중도의 연기법은 철학적 세계관이 아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혁하기 위한 실천적 '가르침' 으로 그 시작은 바로 공동체를 변화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번 젊은 장병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사회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전역연기' 대한 댓글 이모저모

육군 페이스북

나지호 : 군대에서 전우애라는 것이 대단한 무기구나. 감사합니다.

이동규 : 군복 사진만 올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네요. 후배 전우님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박소연 : 그곳에서의 긴장감과 부담감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마음으로나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

z681**** 장하고 예쁘다. 전부 내 아들 같다. 그대들은 고귀한 밑거름이 평생 긍정적인 사고로 아름답게 살 것이다. 화이팅 대한민국 육군

bmj5**** 대한민국 국군이 자랑스럽다. 나약하다고 걱정했는데..... 정말로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믿음직스럽다. 길거리 가다 국군 장병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대한민국 국군 파이팅

blue****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네요.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뒷일은 후임에 맡기고 몸 건강히 전역하시길

eqwq**** 요즘젊은이들의 국가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을 달리해야겠습니다.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고맙구요.

sam1**** 너무 멋진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당신들의 것이다. 파이팅

indi**** 우리의 20대 믿음직스럽다. 저들에게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과제다.

社說

南北 민간교류 활성화 불교계가 앞장을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던 남북관계가 8.25 협상의 극적 타결로 그동안 침체된 불교계 대북 사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8월 25일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중 민간교류 활성화 조항이 들어있어 이런 기대감을 뒷받침해준다.

이에 조계종·천태종 등 주요종단과 불교통일 단체들은 저마다 환영 논평을 잇달아 발표해 5. 24조치 이후 중단된 대북지원사업에 새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대북사업 전문가들도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불교계는 그동안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민간교류 활성화 발표에 맞춰 적극적 교류 사업을 펼칠 거라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불교계 대북협력단체들은 올 하반기 활발한 교류 사업을 계획중이다. 우선 민추본은 9월 묘향산 보현사 서산대사 남북합동다례재와 10월 금강산 신계사 복원8주년 기념 남북합동법회,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의 북녘 불교문화재 보수 사업 등도 계획 중이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도 북측에 2억원 상당의 양파씨앗을 전달키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제는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남북 정세가 불교계 대북사업의 잠재적 장애 요소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교계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종교는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와 별개로 분열된 민족정신을 융합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불교계가 다시 앞장서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에 활시위를 힘껏 당기자.

불교 자체 교과서 편찬에 주목하자

지난 7월 30일 교육부 공청회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리 교과과정 개정안에 불교관련 내용이 대폭 추가되는 쾌거를 만들어냈다. 새로 만들어지는 '고전과 윤리' 에는 〈금강경〉과 〈수심결〉이 포함됐다.

하지만 8월 27일 열린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 바로 교과서 집필자들을 위한 불교관련 참고자료 제공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역사교과과정 불교관련 내용 수정 청원에서 편찬위 고위관계자의 조계종의 공식 교과서 편찬에 대한 역제안이 이뤄지기도 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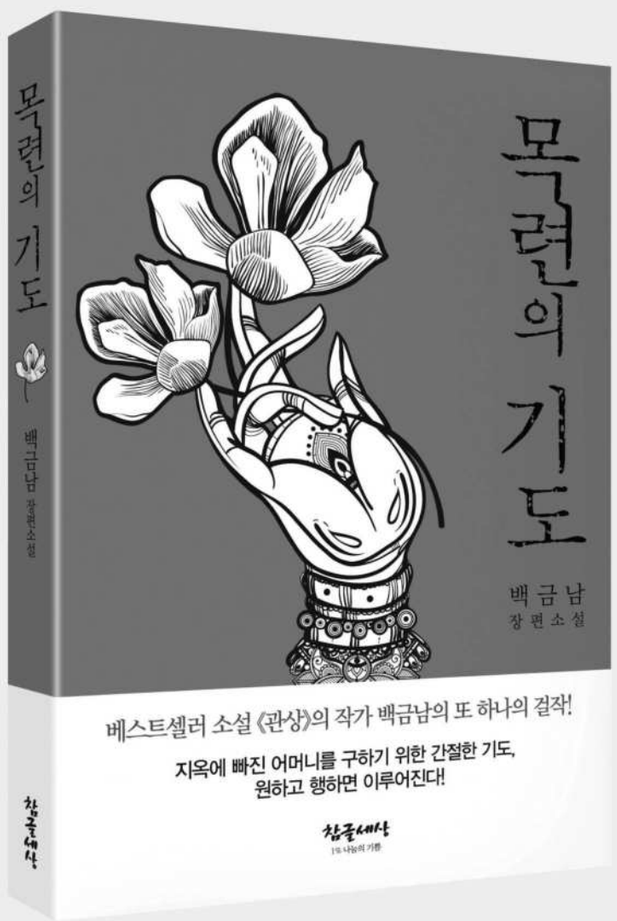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교과서 집필은 전적으로 집필자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바른 내용의 참고 자료 제공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창설형 인증 교과서' 를 자체 집필하는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창설형 인증 교과서' 의 경우 일선학교 요청으로 신규과목을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인증없이도 자체적인 교과서 편찬이 가능하다.

현재 불교사회연구소의 연구위는 윤리·역사·사회의 세 분야로 소위원회를 나누고 집필자료 및 교과서 편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9월 중으로 관련 불교학자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기존 집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집필 자료 제공과 더불어 무엇보다 신경써야 할 부분은 불교 자체 교과서를 편찬할 수 있는 '창설형 인증 교과서' 제도이다. 종립학교부터라도 바른 내용의 공인된 불교교육이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 불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종단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예산 지원과 더불어 제대로 된 집필 참고 자료와 교과서 편찬이 진행될 수 있는 연구·편찬 기구를 확대·구성해야 한다. 바른 내용의 불교 교육이 불교 인재 양성의 시작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베스트셀러 소설《관상》의 작가 백금남의 또 하나의 걸작!

우란분절에 만난 지극한 효 이야기!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여섯 지옥을 헤맨 전생의 목련존자,
그리고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나선 현생의 나…….

"어허, 극락세계를 마다하고 고해 속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부모가 무엇이기에……. 그대를 인간지옥에 낳은 이들이 바로 부모란 존재라는 것을 잊었는가?"
"어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곳의 그대들이 알겠소.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의 우주이기 때문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들이요, 그러므로 바로 나이기 때문이오."
거대한 윤회의 법칙만이 전부인, 그렇기에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들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도 목련은 그렇게 말하였다. (본문에서)

백금남 지음 | 신국판 | 368쪽 | 값 13,500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305호 | kyoon1003@hanmail.net
참글세상 1% 나눔의 기쁨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 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고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酬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부처님을, 그 가르침을 모독 능멸하는 자들에게 공개 질문한다.

– 신불교(영산불교)의 우주적 진리의 입장에서 –

많은 학자들은 현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물질만능주의는 인류정신의 위기와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갈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자원고갈, 식량부족, 기후재난 등의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인류는 가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 결과 올바른 생사관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위기는 바로 진리의 위기입니다.

이 진리의 위기를 앞장서서 타개하고 극복해야 할 종교마저 제 역할은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리의 종교임을 자처하는 불교마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사이) 사마외도가 판을 치면서 세상은 말세적 현상이 점점 고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걸출한 두 분의 우주성자가 세상에 나와 신불교인 영산불교를 개창하고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정법의 새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인류를 고통에서 구하고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영산불교에서 우주적 진리를 주창하면서 올바른 생사관을 세상에 밝힌 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이는 오로지 기존 세계불교의 왜곡되고 왜소화된 교설을 바로잡고 21세기 인류를 향도할 차원 높은 정법사상을 사바세계에 정착시켜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하고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부처님의 대자비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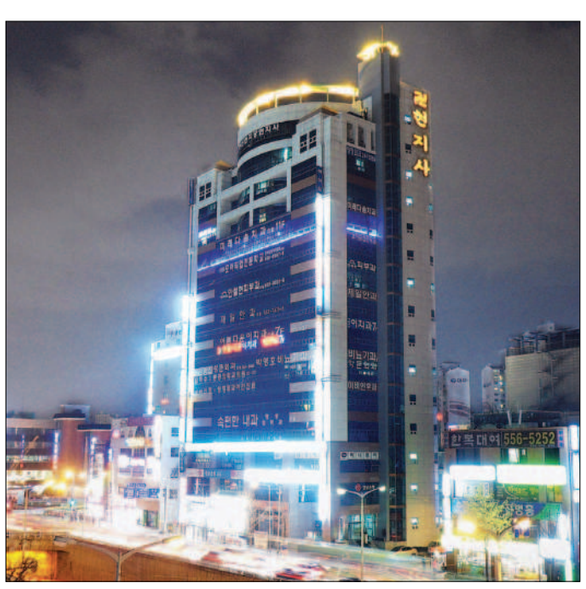
그러나 기존불교의 왜곡된 교설에 물들어 있는 일부 스님들과 이들을 따르는 신도들이 이 차원 높은 정법사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모독하고 정법을 펼치시는 큰스님을 마구 비방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또한 여러 외도(外道)에서 중생을 오도하는 가르침이 더욱 치성해졌습니다. 이는 수많은 대중들의 영혼체에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죄악이기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정법이 아닌 사마외설(邪魔外說)로 중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행위는 불효오역죄보다도 더 무서운 대망어 죄로서, 사후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의 세계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몸을 받아온다 해도 눈멀고 귀먹고 말 못하는 3중고, 4중고의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세계 종교계와 지구촌 인류 앞에 분명히 밝혀둡니다.

불교는 모든 세계의 종교 중, 인간의 고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궁극적인 행복세계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종교이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위신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우주 주(The Lord of the universe)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광 빛의 인격체로 실존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은 없지만, 우주법왕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부처님은 여여히 계십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부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외도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불교를 포함한 세계의 어느 종교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21세기의 신불교요, 부처님 정법회상인 영산불교만이 이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견성은 공(空)을 잠깐 체험하는 것으로서, 해탈로 가는 충분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곧 부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깨달음 이후 공부(悟后工夫), 즉 해탈을 하고 붓다가 되는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더욱 청정계율을 목숨같이 지키되, 특히 음계와 대망어 죄를 짓지 않도록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버리는 두타행을 철저히 하여 육신에 대한 착이 떨어져 온갖 유혹과 공포에서 자유로워져야 해탈을 하는 아라한의 법위를 증득하게 됩니다. 자력으로 갈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라한에서 보살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부처님의 타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승 없이는 성과(聖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겁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부처님 같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참회하고 업장소멸을 발원해야 합니다. 보살과(菩薩果) 인가를 받으려면 부처님회상에 귀의하여 오직 부처님을 위해서 이 몸, 마음, 목숨 바친다는 철석같은 신심이 필요충분조건이 됩니다. 금강경 읽고, 부처님 다라니 하고, 팔정도 칭명염불을 해야 부처님의 타력가피로 4중죄를 비롯한 업장소멸을 받고, 빙의되어 있는 조상영가 · 천마 · 용신 · 이매망량 · 원결마를 떼어 줍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서 돌아가신 부모 · 조상님을 삼악도에서 하늘세계까지 천도하는 효행을 실천하고, 자비이타의 보살행을 쉼 없이 하여 선근공덕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피로 눈을 뜨고 힘을 얻어 육도생사(六道生死)에서 완전히 벗어나 삼계탈출을 하는 보살과(菩薩果)를 인가 받고, 모든 인류의 꿈의 세계인 정토(淨土)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겁생을 염불수행해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그 아들이 되어 붓다가 될 인신을 받아 올 때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의 가피로 무아 속 절대계에 무량억종광으로 이루어진 자기불신(佛身), 즉 삼신(三身)을 얻어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현지사 부산분원

신불교(영산불교)에서는 10년 전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부처님께서는 무아 속 절대계(대적광세계 · 연화장세계)에 여여(如如)히 계신다는 것과 견성(見性)은 성불(成佛)이 아닌 이제 공부의 시작이며, 영혼체(인간영혼의 실체)를 완벽하게 규명함과 아울러, 완전한 생사관으로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세계로 중생을 인도하는 만자(滿字) 가르침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독 능멸하고 있는바, 더 이상 중생들이 사마외도의 길을 가게 할 수 없어 부처님 정법(正法)이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산불교(신불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들이여! 얼마나 법위(法位)가 되어있는 수준인지, 얼마나 무지(無知)한지 다음을 답하시오.

만일 아래 61개 문항 모두에 대해 완벽한 점수를 얻지 못하는 입장에서 정법(正法)을 훼손하며 막행막식하는 이들은 분명히 아비지옥을 가고 혹 사람 몸을 받아와도 삼중고 · 사중고로 살다가 다시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이오. 신불교(영산불교)를 모독 능멸하지 마시오.

– 아래 질문들은 선종의 선문답과 차원이 훨씬 다른 높은 질문임을 밝혀둠 –

Ⅰ. 우주론 (나我와 우주 삼라만상의 생성)

1. 대적멸의 상적광세계(현대물리학에서는 11차원)를 아는가?

2. 〈10차원까지 아우르는(전 우주를 아우르는)〉 진리를 정의해 보오. 사사무애(事事無碍)의 도리, 無我, 무량억종광 빛 …

3. 마음(순수의식, 인간본성)이란 무엇이오? 공(우주본체), 공(空)이란 무엇이오? 그럼 공(空)의 본질은 무엇이오? 선가(禪家)에서는 마음을 일물(一物), 공(空), 주인공(主人公)으로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견해라고 보시오?

4. 사람들이 '나', '너'라고 부르는 '나'와 '너'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5. 아무것도 시 · 공이 없는데서 우주만물은 어떻게 해서 생멸(生滅)하고, 또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오?

6. 어떻게 인간탄생은 이루어진다고 보오? 하늘에서 떨어졌소? 땅에서 솟아 난거요?

7. 힌두교는 자신들이 모든 종교의 종교라 자부하오. 그러나 그들의 핵심사상인 범(梵)은 비인격이며, 비인격인 범(梵)의 모든 힘으로는 인간을 포함, 우주만물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있소. 그 이유는 무엇이오?

8. 힌두교의 가장 심오하다는 상키야(Sāṁkhya) 학파의 철학(사상)에서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이 생성되어 나오는 원리에 대한 커다란 허점이 있소, 무엇이라 보오?


갑오년 초파일 13만 봉축등으로 장엄된 현지사 전경

그리고 윤회의 주체가 되는 미세신(微細身)을 소멸해서 해탈을 성취한다 하는데, 인연으로 형성된 미세신이 소멸한다면 해탈의 주체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해탈한다는 말이오? 어찌 생각하오?

9. 역사이후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보는 대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창조의 원리가 되기에 미흡하오, 왜 그렇소? 플라톤은 이데아를 의인화(擬人化)해서, 그것이 영혼을 만들고, 육체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었다고(우주생성론) 망어를 했소. 그의 사상(시간의 절대성)은 기독교 사상의 근간이 되었고, 데카르트 철학사상, 또 고전물리학의 바탕이 됐소. 말해보시오.

10.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플라톤에 버금가는 대 철학자)의 천동설을 기반으로 한 우주관은 기독교 신학에 수용되어 르네상스기 까지 대표적인 우주관으로 군림했소. 지동설이 정설이 된 현시점에서 그의 견해는 옳소?


현지사의 대적광전과 석가탑, 다보탑

11. Big Bang은 왜 일어나는 것인지 아오?

12. 빅뱅 그 이전은 무엇이 있는 줄 아오? (11, 12번은 달라이 라마의 의문점)

Ⅱ. 불신론 (부처님의 실존과 절대성)

13.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아는가? 붓다의 붓다이신 부처님은 우주자체, 우주의 주(主)라 하는 이유이기도 한…

14 법신불을 아는가?(어느 대학승도, 불교학자들도 참 의미를 오해하고 있소.)

15. 불성(佛性)이란? 무엇이 불성(佛性)이오?

16. 어떻게 불신(佛身)이 얻어지는지 아는가? 불교 이외 불신(佛身)을 얻을 수 있는 종교는 없소. 그래서 불교가 위대한 것이오. 현재의 왜소화된 불교, 아니 사이비, 외도, 사마의 교(敎)는 혁파되어야 하오.

17. 파탄잘리(Patanjali)가 도달하지 못했던 부처님의 대적정삼매를 묻소.

18.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아는가? 원만보신을 아는가? 거룩하신 삼계 붓다님들의 부사의한 신밀(身密)은 크리슈나(Kṛṣṇa)도, 파탄잘리(Patanjali)도 선망의 경지다.

19. 불신(佛身)의 변화신(變化身)을 아는가? 예를 들면 문수보살님께서는 동자의 모습으로 현신하신다.

20. 천 만억 화신(化身)을 아는가? 응화신(붓다가 사바 세상에 받아 오시는 人身)은 왜, 어떻게 오시는지 아오?

21. 문수(보살)는 지혜이거늘 문수의 법왕자란 무슨 말이냐고 했지요? 문수보살님은 부처님 다음가는, 과거세에 7번이나 불과를 이루신, 붓다 중 지혜가 출중한 부처님이오. 도대체 적멸(寂滅)의 상적광세계에 계시는 32상의 적멸상(寂滅相)도, 무량광 빛도 상(相)이라면 붓다가 대열반에 드시면 완전 무(無)가 된다는 말 아니오? 등골이 오싹해지는 극무간지옥의 벌을 어찌 감당하려오? 그래서 초등학생이 대학생의 강의를 이게 말이 되느냐고 능멸 모독하는 격이라 했소.

22. 지장보살님은 명부(冥府)를 관장하시는 일찍이 불과(佛果)를 이루신 큰 부처님인데도 눈먼 견성도인들도 이점을 모르고 10지 보살 정도로 알고 있소. 또한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소개된 많은 지옥들도, 좌우보처도 어떤 분들인지 꿈에도 모를 일이오. 안 그렇소? 지장보살님은 인간의 중풍이나 식물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키(key)를 쥐고 계시오.

23. 《화엄경》, 《법화경》에선 부처님의 몸을 이루는 무량광 빛을 천 만억가지 서로 다른 색깔과 부사의하다고 말하고 있소. 무량광이 무언지 어떤 능력을 지닌 빛인지를 아시오? 현대물리학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 우주를 먼지와 같은 입자로 압축할 수만 있다면, 그럴 경우 상상할 수 없는 밝은 빛과 강도와 열, 속도, 힘을 지닌 빛을 얻을 수 있다 하오. 무량광의 비밀은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오. 아시겠소?

24. 경중의 경(經) 《화엄경》을 방편설, '이판사판 화엄경'으로 TV, 라디오 혹은 책을 써서 부처님의 경전을 모독 능멸하면 그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오?

25. 《화엄경》은 최상품보살(극락세계) 이상 붓다라고 부처님의 인가를 받은 성자가 아니고는 부처님 정각(正覺)의 실상과 삼신(三身)이 연출하는, 그리고 범부에서 붓다가 되기까지의 보살도를 설한 원론적인 법설이니 이해할 수 없을 것이오.

얼마나 부처님이 위대하신가를 알 수 있는데 부처님도 없고, 마음이 부처라 보고 부처님을 기껏 새벽별을 보고 깨친 분 정도로 알아서 《화엄경》을 강설, 이야기함은 불보살이 용서할 수 없는 대죄인인 것이오. 말해보오.

26. 중생의 깨달음(견성체험)과 부처님의 깨달음(正覺)은 차원이 천지차이요. 깨달음과 동시에 대적정삼매에 들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일체(一體)가 되어 중생이보면 가루가 되어버릴 천문학적인 무량억종광 빛을 방광하면 이 우주안의 세주(世主)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공경 · 찬탄 · 배례(拜禮)하는 것이 사실이오. 《화엄경》 〈세주묘엄품〉을 어떻게 읽고서 함부로 왜곡하는가? 미래제가 다하도록 인신을 받아와도 삼중고, 사중고의 과보를 받을 대 망어를 하오?

27. 경(經)중의 왕(王) 《법화경》 〈비유품〉, 〈종지용출품〉과 〈여래수량품〉에서 부처님은 나유타 겁 전 불과(佛果)를 이루신 이후, 무아 속 절대세계에 계시면서 보신불(報身佛)로, 혹은 응화신 불신(佛身)으로 사바세계, 여러 불국토를 다니시면서 교화해서 헤아릴 수 없는 천 만억 본화보살과 삼계의 붓다를 내셨다는 경문은 사실입니다. 《화엄경》, 《법화경》은 불(佛)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오.

마음이 부처라 말하지 마오. 중생을 오도(誤導)하고 그들을 데리고 무간지옥에 갈 망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오.

28. 《법화경》 〈비유품〉에서 사리불님의 독백이 나옵니다. 자기는 부처님 회상에 와서 일찍이 공성(空性)을 증득(소위 깨친 후 보림을 마쳐 空과 하나 되었음을 의미)함으로 공부를 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 아라한(보살)에게 수기를 주시니…. 견성(깨달음)후 보림(保任)을 마친다 해서(공성증득, 여기가 아라한) 부처다 됐다고 볼 것이오? 무아 속 절대계에 자기 불신(報身)을 얻어야 붓다인 것이오. 말해보시오.

29. 또한 《법화경》 〈비유품〉에서 "공성(空性)을 증득한 것으로는 완전한 멸도(成佛)가 아니고 〈무아 속 절대계에〉 자기 32상의 색신을 얻어야 천인,아수라,용신 등을 교화할 수 있는 것…"에서 32상의 빛으로 된 거룩한 보신(부처님)을 얻어야 성불(成佛)이라 했소. 〈저 유명한 티베트불교와 중국 선불교와의 법전(法戰, 쌈예의 논쟁)에서 선(禪)이 완패한 논거가 되오.〉 적멸의 상(相)은 인연화합이 아니오. 부처님 빛 역시 인연소생이 아니오. 그래도 대망어한 대죄를 참회하지 않겠소?

Ⅲ. 무아론 ('영혼체가 없다'는 기존불교의 교설을 駁하며)

30. 신불교의 主人空(힌두교 요가학파의 主人空과 선불교의 主人公과도 다른 개념)이 윤회, 연기, 창조, 해탈시 주체라 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소?



현지사 대전분원

21세기 한국 땅에 인격적 불신(佛身)으로 오신 부처님!
부처님은 32상 80종호의 상모 단엄한 무량광 빛의 인격체!
부처님의 전지 만능자재하신 위신력은 필설로 만분의 1도 표현 못해!

31. 신불교(영산불교)에서는 인간영혼의 실체, 윤회의 주체 곧 '나' 주인공(主人空)을 말하고 또한 무아윤회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천명한 바 있소. 왜 무아윤회가 불능인 줄 아오?

32. 유식가(唯識家)의 아뢰야식(阿賴耶識)도, 대승불교의 진아(眞我), 주인공(公)으로도, 선종(禪宗)에서 말하는 참마음도, 부파불교의 여러 식(識)이론도 윤회주체의 자격이 없소. 따라서 윤회의 주체가 아니오.

식(識)이 허공같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名不得 狀不得, 無名無字, 圓同太虛, 寂照, 昭昭靈靈의 주인공(公), 一物이 어떻게 지옥을 가서 벌을 받고 극락에 가서 끝없는 즐거움을 누린단 말이오? 육도윤회설은 불교의 정설이요, 확실한 부처님 말씀이요, 진리요. 어떻게 생각하오?

33. 왜곡된 무아설(諸法無我)로 인도 불교는 사실상 힌두교의 아트만(ātman) 이론에 속수무책 굴욕적인 망신을 당해 드디어 망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오? 무아(無我)의 참뜻은?

34. 힌두교의 아트만(ātman)은 진정한 윤회의 주체가 되지 못하오. 윤회주체에는 자격요건이 있소.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오?

Ⅳ. 완벽한 생사관

35. 신불교(영산불교)에서는 완벽한 생사관(生死觀)을 정립하고 있소. 완벽한 생사관을 서구지성인(西歐知性人)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갈망하고 있소. 완벽한 생사관을 말해 보시오.

36. 원결 마(魔)에 대해서 아시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결 마(원결귀신)가 그 몸속에 빙의되어 있소. 그래서 온갖 사고사(事故死)를 당하는 것이오.

37. 正法이 무엇이오? 정법을 훼손하는 대 망어는 극 무간지옥행(行)이오.

38. 앞으로 이승을 마감하면 어디로 갈 것으로 보오? 당신(들)의 영혼체의 색깔이 어떤 줄 아오, 지옥 갈 사람들은 거무튀튀하고 대 망어를 함부로 한 이들은 쇠철판이 유식(唯識)에서 말하는 아뢰야식 속에 깊이 묻혀 져 있는 것, 그것이 때가 되면 소위 아뢰야 식신(識身)의 철판이 씌워져 이것이 다 마모되어 없어질 때까지 무간지옥의 과보를 받소. 그리고 어떤 천마(天魔)와 지상마(귀신, 중음계)들이 접속 빙의 된 줄 보지 못하는 거요?

자기 혼자만 불바다 지옥에서 지옥이 무너질 공겁동안 내내 극한 중벌을 받을 일이지, 좋아라고 법문 듣고 책을 본 수십만의 눈먼 중생까지 그 지옥으로 함께 데리고 갈 정법훼손의 대 망어를 무려 아마 8년이 넘도록 마이크에 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열변을 토한 단 말이오?

39. 중음계에 떨어져 명부(冥府)에도 들지 못하는 귀신들이 많소. 《아함경》에 조예가 아무리 깊은 불교학자나 견성도인(소위 空체험 후 보림까지 마쳤다는)도 이들을 충분히 법문할 수 없소. 왜 중음귀가 되며 어찌해야 명부에 드는 것이며 그 세계의 고통을 알기나 하오?

Ⅴ. 수행론 (견성의 한계)

40. 견성, 깨달음이란 뭐요? 오후(悟後)공부가 이제부터 중요하오. 이제부터 힘을 얻어 눈을 떠 아라한이 되고 보살과를 얻어 부처님으로부터 인가 받으려면 우선 마장을 막아줄 붓다회상(부처님께서 와 계시는)을 만나야 하오. 그리고 그 붓다회상에 귀의하고 부처님께 귀의, 참회, 발원해야 하오. 다겁생래 4중죄를 비롯한 업장소멸하는 칭명 염불공부, 돌아가신 부모조상을 삼악도에서 하늘로 천도해 드리는 일, 이타(利他)의 보살행을 해야 하오. 그리고 절대로 정법 훼손하는 대망어죄 · 오역죄 · 사바리죄를 지어선 안 되오. 지옥으로 끌려가서 극고를 당해도 자유인이 됐다 하겠소?

41. 견성체험하고서도, 보림을 마쳐 조사되어 선(禪)의 정맥(正脈)을 이은 대선사라해도 사후세계와 육도세계는 물론, 자기나 자기 제자의 몸속에 빙의된 원결 마(魔) 등을 보지도 떼지도 못하는 수준이라면, 어찌 해탈마저 가능하다 하겠소?

42. 세계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지만, 어느 종교도 삼매로 이끌어 줄 스승이 없고, 또 마장을 떼어주고 막아줄 스승이 없소.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오.

43. 또한, 보살의 해탈신(菩薩解脫身 : 자기의 아기보살신)이나 불신(佛身)을 만들어주는 스승이 없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아라한까지만 가능하오. 보살이나 붓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오. 부처님 회상인 신불교(영산불교)에서만이 부처님의 타력(가피)으로 아라한(정법)이 되고 보살이 되오. 그래서 영산불교가 위대하다는 것이오.

44. 음계(婬戒)를 비롯한 계율을 목숨같이 지켜야 하오, 아니면 악도(惡道)를 결코 면치 못하오. 승려로서 막행막식하면(음계를 비롯 중계는 목숨처럼 지켜야 하오.) 악도를 면할 수 없소. 어찌 보오?

45. 신통이 오는 데는 큰 두 가지 길이 있소. 또 신통을 하면 큰 업(業)을 짓게 되는 이유가 있지요. 〈단 부처님같이 法(연기법) 자체가 되신 분은 제외함〉 그리고 죄인을, 악(惡)을 도와주거나 따르는 이들은 죄업을 짓소. 깊이 명심해야 하오. 안 그렇소?

46. 무아(無我), 무아 모든 것의 실체는 없다면서 천마(天魔) 천마가 무엇이오? 그 능력의 한계는 어디인지 아오?

47. 용신이 무엇인지 아시오? 수행자들, 특히 계율이 없는 수행자들에게 많이도 빙의되어 있소. 구렁이 신이… 대답해 보오?



제주분원 대적광전 점안식

48. 티베트 밀교(금강승)의 즉신성불론(卽身成佛論 : 무상한 육신 안에 佛의 三身을 현증 한다는 成佛의 원리, 소위 죽음과 바르도와 탄생을 佛의 三身으로 성숙시키는)은 부처님 정법(正法)에 반(反)하는 사설(邪說)이오. 불신(佛身)은 그렇게 얻어지는 법이 아니오. 그리고 까귀파(bKàbrgyud)의 '나로六法(N-ro chos-drug)' 중 포와(pho-ba, 자주 사람 몸을 받아오는 의식전이 수행법), 동줙(Gro-jug, 500살에서 2000살까지 장수한다는 비법), 사실 이 두 비법은 우주이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되오. 다음으로 마하무드라 수행법(Mahāmudra, 공성과 지복의 합일에 집중하는 요가)으로도 성불(成佛)과는 거리가 백 천만리나 되오. 인도불교가 소멸 했던 유력한 이유 중 하나로 밀교(금강승)의 발달을 들 수 있지요. 또 티베트가 자랑하는 사하라, 나로빠(Naropa), 마르빠(Marpa) 등 84명의 스승(Guru)들(그들은 붓다의 법위로 봄) 역시 아라한이나 무루 대아라한급 그리고 몇몇 보살은 있지만, 붓다는 절대 아니오. 왜 붓다가 아닌 줄 아오. 위의 나의 이런 평가를 논박하겠소?

49. (이조 500년 불교를 이단으로 보고 핍박했던) 성리학의 이기론(理氣論)으로는 인간을 포함, 천지만물이 생겨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소. 그 이유는?

50. 인간은 끝없이 해탈하지 못하는 한 육도를 윤회 생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리학(性理學)으론 알 수 없는 것이오. 그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오?

51. 이조 이성계를 도와 역성(易姓)혁명에 성공해서 국정을 총괄했던 삼봉 정도전은 성리학자로서 억불숭유의 국시를 창안확정한 사람이오. '불씨잡변' 을 지어 부처님과 불법(佛法)을 능멸했고, 이에 함허 득통스님이 반론을 냈으나 지옥과 천당이 없다는 그들의 논리에 긍정한바, 그렇다 하면 어떻게 그들의 사설(邪說)을 돌릴 수 있었겠소. 지옥, 천상, 아귀, 귀신, 극락, 불보살을 모두 마음의 상태로 본다면, 이것은 단연코 사마(邪魔)의 설이지 어찌 반론이 될 수 있겠소. 아니오?

52. 주자(性理學)의 격물치지(格物致知)로 활연관통(禪에서의 견성)하더라도 역시 이 정도로도 해탈 할 수 없는 이유?

53. 힌두교는 세계종교 중 자기네 종교가 제일이라 하오. 거기에 앉던 수행자였소. 그는 말하기를 "모든 종교는 그 근본에 있어 동일하다"고 했소.

아니오. 불교(正法)는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나아가 삼계를 탈출할 수 있는 보살, 아니 우주와의 합일(合一)로 우주의 주(붓다)까지 될 수 있는 위대한 종교임을 분명히 해두오. 자력을 기반으로 한 타력(팔정도 칭명염불)종교요. 염불이 정법이오, 삼계의 모든 붓다님들이 염불(念佛)로 불과(佛果)를 이루었다오. 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제주분원 세 전각

55. 19세기 인도의 위대한 종교인 '람티어스' 는 크게 깨닫고 나서 한 일성(一聲)이오. "나는 우주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 내안에 우주가 있다. 나는 전능한 브라흐만이 됐다. 나는 이제 대자유인이다."고 춤을 추었소. 선가(禪家)의 확철대오 수준을 넘는 경지요. 그러나 이렇다 해서 완전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보오?

56. 도가(道家)의 대주천 수행법으로 얻어지는 체외신(허공신, 양신)을 어찌 보오? 이것을 얻어 장생불사(長生不死)할 수 있다고 보오?

57. 장자(莊子)는 크게 깨달음을 얻어 도를 볼 수 있었으며 시공을 초월하고 생사도 없는 경지에 들었다고, 대자유인이 됐다고, 노래하고 있소(선종의 확철대오 수준). 이 법위는 결코 보살의 경지는 아니오. 어찌 보오.

58. 유대(신비주의) 카발라(kabbalah)에서는 신(인간 우주를 창조했다는 신이란 없소. 인간이 만들어 낸 우상이오.)의 은총으로 애제자의 정수리에 빛을 쏟아 부어 정화해서 구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신(民族神)의 은총으로 어느 하늘까지 가능하다 보오. 왜? 모두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의 법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오? 그 이유는?



현지사 고성분원

Ⅵ. 구원론

59. 무량억종광으로 이루어진 부처님(붓다)만이 인간의 크고 작은 업장을 소멸하시고, 보살과 붓다를 내시오. 부처님의 우주적구원력을 아시오? 그래도 마음이 부처라는 대망어를 할 것이오? 왜 부처님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쓰실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대시오?

60. 기독교가 세계종교로서 토대를 굳히게 된 소위 플라톤(Platon)철학의 이데아설이, 우리 인류모두가 구원될 수 있는(윤회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상이라 보오?

61.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부모 · 조상영가를 삼악도에서 하늘까진 천도해주어야 수행자는 윤회에서 완전히 해탈할 수 있는 것이오.

현재 절에서 1~2명을 다비문 따라 천도해주는데, 분명히 말하자면 100번 아니라 1000번을 모셔주어도 무주고혼(중음계의)이나 삼악도(지옥 아귀 축생)에서 한 걸음도 못 가오. 지옥을 가서 영가님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 어느 견성도인 아니 천만 명의 견성도인의 힘을 다 합해도 이는 불가(不可)하고, 축생 몸을 받은 부모 조상을 어느 곳 무슨 짐승이 됐는지를 모르는데, 설사 꿈(계시)을 통해서 자기 집 개로 태어났다고 가정해도 개 몸속 조상님의 영혼체를 위의 천도 장소로 모셔 와야 되는데 또 100년 1000년 명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천을 헤매는 무조고혼 조상영가를 어찌 붙들어 옵니까. 신통이 장해서 바람같이 달아나는데-.

그리고 설사 모두 〈가령 4집안 자기의 부모, 부인의 부모 쪽 100여 명의 영가〉를 천도의 법석에 모셔왔다 가정하더라도 그들이 다겁생으로 지은 악도의 업을 소멸해 주지 못하면 천도는 불능인 것이오.

부처님, 지장보살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는 4번 정도로 아래 하늘 〈하늘도 6하늘, 자세히는 54품 하늘이 있고, 그 위가 교가(敎家)에선 색계천, 무색계천 이라 하는 성중(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하늘이 있소〉에 갈 수 있소. 현지사 천도재를 면죄부, 면벌부라 온갖 악의적인 말로 비방하시 마시오. 역시 대 망어 죄로서 자기가 순간이라도 지은 업(業)의 종자(種子)는 결코 썩지 않고, 반연을 만나면 과보를 받소.

부처님은 그 사람의 보람된 삶을 1. 정법회상으로 귀의해서 공부 잘 했는지 2. 얼마만큼 중생을 위해 살았는지를 보십니다(보살도). 신도의 시은(보시)으로 살면서 그들을 악도로 이끌어 가는 외도(外道)의 삶을 살았다면 설사 대장경을 앞뒤로 외우고 총명과 변재가 걸출하더라도 미래는 없소. 다만, 삼악도(三惡道)를 영원히 윤회할 뿐입니다.

부처님과 붓다 교단을 악의적으로 비방 능멸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바, 더 이상 부처님의 정법(正法)과 부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소.

다시 말하지만 부처님은 무아 속 절대계에 32상 거룩한 모습(여기 모습은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相이 아니오. 다시금 강조하오)으로 계시오. 자성광을 넘어선 천 만억배의 광도와 강도, 힘을 지닌 빛(무량광)을 상(相)이라고 했지요? 대적정 삼매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량억종광 빛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을 뵐 수 없고, 법설을 들으려면 더욱 깊은 밀장의 관문이 있소.

깨달음은 붓다 되는 첫 관문일 뿐이오. 마음이 부처라는 선종(禪宗)의 주장은 부처님을 모독 능멸하는 말이오. 초등학교 수준에서 깨달은(正覺)체 하지 마시오. 거듭 경고하오. 나의 자비로운 충고를 섭수 안하면 영원히 미래제가 다하도록 아비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이 진실의 말만은 뼈에 새겨주시오.

붓다의 붓다이신 부처님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오. 나머지는 밀장이어서 말하지 못하오. 붓다는 겁에 하나 나올 뿐! 〈모든 대승경전에서도 밀장이어서 보살과 붓다 되는 내밀한 관문은 가르침이 없소.〉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붓다는 삼천대천세계의 중생과도 바꿀 수 없다 하셨소. 이 이상 모독 능멸하지 마시오.

위 질문들에 대한 만족할만한 대답(대아라한, 보살지를 넘어선 상품보살, 붓다 아니면 대답할 수 없음)을 못하는 경지에서 신불교(영산불교)를 비방 모독하는 자들이여, 그 대망어의 무서운 과보를 어찌 감당할 것이오. 더구나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은 악도(三惡道)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겠소.

보신(報身) 부처님, 전지 만능 자재한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신불교(영산불교_ 붓다교단)를 헐뜯지 마시오. 정법훼손의 대죄로서 극 무간지옥에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나올 수 없고, 혹 잠시 나온다 하더라도 삼중고 · 사중고로 산다는 것을 거듭 말하오. 단, 붓다 아니면 이들을 구할 수는 없소.

불기 2559년(2015년) 8월 28일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자재 만현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 02-453-5953
- 대 구 분 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일 본 분 원 일본국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6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요양원은 평생 수행처…

사회복지법인 보현행원노인요양원 최분이 원장



최분이 원장은 … 1994년 사단복지법인 보현행원을 설립하고 보현행원노인요양원을 개원했다. 현재 김해시 복지재단 이사,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경남 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을 역임중이다. 2015년 보현행원노인요양원에 치매어르신을 위한 공원 ‘향기로’를 개원, 연합뉴스에서 선정하는 ‘2015년 한국의 아름다운 얼굴’로 선정됐으며, 2015 Best Innovation 기업&브랜드 사회공헌(노인요양원)부문, 2015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등을 수상했다.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보현행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무의탁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시설이다. 울창한 숲 사이에 위치한 노인요양원 앞마당에는 석조로 조성된 아름다운 부처님이 모셔져 있을 만큼 이곳은 불심이 기본바탕이 된 곳이다. 보현행원노인요양원 최분이(46) 원장은 남편 이진학 씨와 함께 20년 넘게 이곳을 가꾸고 이끌어왔다. 불교의 가르침 그 핵심은 ‘회향’이라 결론 내리고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보현행원노인요양원.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오고 있는 최분이 원장을 만났다.

남편을 도반으로 불교 인연이 시작되다

최분이 원장은 남편과 함께 1994년 사회복지법인 보현행원을 세웠다.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이 물려준 유산과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의 월급으로 넉넉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스물여섯이라는 젊은 나이에 보현행원을 세웠다. 그녀가 20대에 이런 큰마음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불교를 만나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최 원장은 불교와 만나기 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막연한 고민에 휩싸이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답을 구하지 못했고 괴로움과 불안에 휩싸이며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한번도 불교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아니 불교에 대해서 무서운 이미지까지 있었죠.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때나 어릴 때 절에 갈 일이 있어도 무서워서 법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산신각이나 칠성각도 무섭다는 생각만 했죠. 이렇게 불교와는 인연이 없다보니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더더욱 들어 볼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답을 구하던 최 원장은 스무살에 지금의 남편과 만나면서 이 해답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바로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남편은 여느 또래의 젊은이들과는 달랐다. 만나면 부처님에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최 원장이 가졌던 의문을 해소해주었다.

“당시 남편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죽음에 대한 고민과 무상함에 대해 깊이 공부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불교 수행에 더욱 진지했고 마음을 다해 공부하고 있었죠. 나중에야 저를 만나면 말하던 내용이 법구경이라는 걸 알았죠. 이렇게 남편이 해주는 모든 말은 제 인생에 답이 됐어요. 그때부터 불교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공부하는 신행 단체에 들어갔죠.”

당시는 친구였던 남편을 따라 신행생활을 처음 접했고 선수행도 시작했다. 신심명, 증도가, 선문촬요 등 경전을 익히고 절 수행, 묵언 수행 등 정진을 이어나갔다. 또한 결혼 후에는 매일 아침 새벽 4시면 일어나 집에 모셔둔 부처님 앞에서 참선 수행을 하며 정진했다. 당시 직장에 다니던 남편이 출근하기 전까지는 수행을 하고 퇴근 후에도 밤 12시까지 수행은 이어졌다.

“염불을 하거나 묵언 수행 중에는 남편이 퇴근해 돌아와도 서로 인사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잠깐이라도 염불을 멈추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3년 수행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들은 수행 결과의 답으로 ‘회향’을 선택했다.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실천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당시 삶이 많이 풍족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은 의미가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었고 그 뜻을 따르게 되었죠.”

오직 자비희사가 답…전 재산 회향

그녀의 나이 스물 여섯 살. 또래의 친구들이 젊음을 만끽할 나이에 그는 세상을 밝히는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무료로 운영하는 무의탁 노인요양시설 설립을 목표로 하고 관공서를 찾아다녔다.

인생에 의문 갖고 답을 찾던 스무살
남편 만나면서 불교와 인연 맺고
함께 3년간 아침저녁으로 수행 정진
회향의 답으로 나눔의 삶 살고자 결심
부모님 유산 등 전재산 투자 요양원 설립
20여 년간 무의탁 노인 돌보며 보현행

올해 전국 최초, 치매공원 ‘향기로’ 개원
세간의 관심 받으며 각종 수상 잇따라
직원 위해 ‘비폭력 대화법’ 등 교육도
“항상 노력하고 정진하면서 우리 사회에
어르신 생명존중권 보장되기를 발원”

“법인을 설립하고 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해 관공서를 찾아 다녔을 때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뭐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일로 밥 먹고 살려고 하냐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질타 아닌 질타도 받았어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복지 분야에 뛰어드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사기를 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죠. 또 제가 너무 어려서 그분들에게 믿음이 안 갔나봐요. 그러다 보니 번번이 담당 공무원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당시 법규에 따르면 복지사업을 위해 정부에 땅을 기부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와 함께 공사비용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최 원장은 이런 건축비 지원조차 고사했다. 최고의 건물로 회향하기를 발원했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는 당시 25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모두 요양원 건립을 위해 희사했다. 사회복지법인 보현행원 등록을 마치고 땅을 알아보고 곧장 불사에 돌입했다.

대지면적 6372㎡에 연건평 3474㎡로 지하 1층, 지상 2층, 주방부터 정원, 화장실 모두 공간을 넓게 설계해 실내 활동이 많은 어르신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또한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대강당, 식당, 휴게실, 미니사랑방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을 고를 때에도 신중했고 스님들께 많은 조언도 구해 불사를 진행했습니다.”

보현행원은 1999년에는 부설기관으로 재가복지센터도 개원했다. 요양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설립된 재가복지센터는 김해 주촌면을 비롯해 장유, 진례 등 그 일대의 어르신 100여 명을 돌보고 있다. 진행 사업도 다양하다. 가사 지원을 위한 가정돌보미 지원 서비스, 의료지원 사업, 가정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상담까지 담당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어르신 배려한 ‘향기로’ 공원 조성

20여 년 그녀의 청춘은 불제자로서 자비희사라는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왔다. 특히, 지난 5월 새롭게 문을 연 치매 공원 ‘향기로(路)’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녀는 이 공원조성으로 연합뉴스에서 선정하는 2015년 한국의 아름다운 얼굴로 선정됐으며, 2015 Best Innovation 기업&브랜드 사회공헌(노인요양원)부문과 2015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등을 수상했다.

“치매공원은 말 그대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특성이 바로 배회성이죠.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해요. 일반 가정에서도 그런 속성 때문에 어르신들이 길을 잃어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 치매 어르신들을 침대에 묶어두는 일까지 있죠. 안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계획해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전을 고려한 치매공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자궁에서 편히 쉬고 있는 아기의 몸’이라는 모티브로 조성된 984㎡ 크기의 치매 공원 ‘향기로’는 4년여 만에 완성될 정도로 공을 들였다. 산림청녹색사업단의 공모지원금 1억 원과 자체후원금 및 자비부담 8천만 원을 투자해 공사비만 해도 1억 8000만 원이 들었고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총비용은 2억에 육박한다. 친자연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부속재료도 나무를 사용할 만큼 정성을 들였고,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요양원 2층에 구름다리를 연결해 어르신들이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며 접근성이 용이해 어르신들이 찾을 때 직원들이 즉시 찾아 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바로 10개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뜸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 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 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 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상증상,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 효과,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대하증을 자연치유시키며 당뇨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하복부에 탄력을 주는 다목적 뜸온밸트입니다.

온열복대 사용 후 : 일주일정도는 평상시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내실 수있습니다.

온열복대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룸비니디지털불경 및 금강염주 손목 합장주를 드립니다.
스님 불자님들께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상판매(신제품 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제품설명
-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는 1,0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을 하여 소원성취 될 것입니다.
- 배터리가 필요없는 내장용 충전방식입니다.
- 규격 : 8.5×5.2×2.0㎝ / 소비자가격 : 39,000원
- 아답터(DC5V)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_ 02.723.090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터리가 필요없는 배터리 내장용 충전방식이어서 편리하게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법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신 스님 불자님에게는 기가 발산되는 금강약돌 손목 합장주 (15,000원) 를 드립니다.

어르신들 만족해야 우리 모두 행복”


치매공원 향기로 개원을 축하하며 내빈들과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는 최분이 원장(오른쪽 네번째)


매년 5월이면 요양원에 머물다 운명한 어르신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천도재를 연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한마당 큰잔치’를 마치고 기념 촬영.


거주자 간담회. 월 1회 어르신들의 고충과 개선사항을 직접 들으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월 간 머물렀던 엄마의 자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을 얻고 사랑받고 아무 걱정 없는 자궁처럼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문턱을 없애 휠체어를 탄 어르신도 언제든 오갈 수 있도록 했고, 작은 오두막 찻집과 벤치가 있어 산 속 가운데 새소리와 햇살을 느끼며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이 최 원장의 아이디어다.

“대화를 하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이는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주고 우울증도 해소될 수 있죠. 날씨가 좋으면 저희 요양원 프로그램을 공원에서 진행하려고 해요. 물론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 어르신들의 오감을 자극해 감각을 깨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최 원장의 ‘향기로’ 철학은 오직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에 맞추어져 있다.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공원의 역할은 중요해요. 햇빛은 칼슘의 신진대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비타민 D, 면역력 증강, 각종 암, 당뇨, 염증성 질환 등 다양한 질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전국의 많은 요양원이 공원을 조성해 어르신들이 좀더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어르신들의 생명 존엄성 지켜줘야

“젊은 시절 노인요양원을 시작할 때는 나중에 나이 들어 혹시나 다른 일이 하고 싶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20년을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고 오직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 발전된 방향을 설정하고 더 노력하고 정진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런 최 원장은 지금까지도 공부를 손에 놓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물론 그분들이 잘해주시고 계시지만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의논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죠.”

현재 그녀는 요양원에서 매주 1시간씩 ‘공감대화법’과 ‘비폭력대화법’을 강의한다. 직원들이 어르신들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항상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자 시작하게 되었다고.

최 원장은 모든 어르신들이 가시는 마지막까지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 나가길 발원한다고 말한다. “저희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며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데 부유한 병원에서 케어가 힘들다는 이유로 스님들의 손발을 묶어두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일하는 모든 직원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 원장은 자신의 요양원 운영에 대해 희생이란 단어가 붙는 것을 경계한다고 했다. “희생이란 말은 내가 이정도 주었는데라며 상을 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쉽게 오염될 수 있어요. 저에게 요양원은 수행처이고 어르신을 돌보는 행위는 바로 수행과 같습니다. 수행은 저를 위한 것이지요. 어르신들을 통해 저는 오늘도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러니 저도 좋고 어르신도 좋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마주친 어르신 한 분이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 취재를 왔다고 하니 어르신은 “와줘서 고맙다. 이처럼 좋은 곳을 많이 알려달라”며 기자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한 미소를 보냈다. 어르신들을 향한 최 원장의 진정한 마음이 빚어낸 결과가 바로 어르신의 미소 속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전법일기

찬불가 부르는 행복한 아이들

입추 지나고 저녁바람이 제법 살랑해진 칠석날 저녁,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열린 38번째 붓다콘서트는 우렁차고 낭랑한 아이들의 음성으로 문을 열었다.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던 아이들은 좋은벗 풍경소리의 보배인 ‘꽃들중창단’이다.

중창단 이름만큼 예쁜 이 아이들은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찬불가중창단으로 이미 붓다콘서트 무대에 여러 번 오른 베테랑들이다.

리허설 할 때 얼핏 보기론 무대 준비하느라 아이들은 제대로 된 저녁식사도 못 먹고 로비에 서서 엄마가 챙겨주는 김밥 몇 덩이를 먹더니 어디서 저런 기운이 솟았을까. 어른들이 가득 찬 공연장을 맑고 기운찬 목소리로 금세 환하게 만든다.

“꽃잎에 주렁주렁 이슬 머금고 햇님 미소 마중 나간다.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에 미움 날려버렸다~”

무대 뒤에 서서 아이들이 부르는 찬불동요 〈행복한 미소〉를 듣고 있자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환한 미소가 피어난다. 역시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있는 그대로 맑고 투명한 유리광세계다. 노래를 듣는 내내 이 땅의 더 많은 아이들이 ‘꽃들중창단’처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랫말이 담긴 노래로 깨끗한 마음을 가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미 불교계 곳곳에서는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포교 일선에서 찬불동요가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해마다 불교음악 작곡, 작사가들이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찬불동요를 만들고 신곡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찰에서 아이들이 마땅히 노래를 부를 기회가 없다.

최근 사찰에서는 음악회나 각종 문화행사를 활발히 열고 있지만, 이런 행사에서도 음악이 필요할 때는 주로 성인합창단이나 외부 연주자를 초청하여 그 자리를 대신한다.

저 아이들이 자라서 언젠가 어른이 되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고 갈 재목이 될 터인데 정작 아이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만한 찬불가 한곡조차 없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한 신도분이 나를 찾아와 물었다.

“스님, 해마다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합창대회에서 단골로 불리는 인기곡이 무엇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합창대회를 구경가본 일이 없으니 당연히 모른다 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예요. 수화 동작과 곁들여서 많이 불리는 노래지요.”



그림 · 박구원

이 노래는 부르기도 쉽고 따뜻한 노랫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민송으로, 원래는 찬송가였던 곡이다. 그 분은 학교 합창대회에 찬송가가 합창곡으로 불린다는 사실보다 아이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평생 이 노래를 가슴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타깝다고 했다.

그 노래가 우리의 찬불가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늦은 밤 암자에 작은 불을 켜고 앉아서 쓰다만 찬불동요 가사를 만지작거린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기억하는 찬불가가 없다는 사실이 이 땅의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인 어른들의 책임 같아서 쉽게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내가 짓는 이 노랫말이 우리 불교의 미래를 밝힐 아주 미미한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예전에 썼던 가사를 펼쳐놓고 노랫말을 썼다 지우며 오늘도 밤을 지새운다.



덕신 스님(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대행 스님

여러분 마음 뒷면에 영원한 밝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한마디 더 하자면,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서산대사와 사명 대사 때문에 불교라면 아주 자지러져서 아주 불교국으로 됐지 않습니까. 생활을 불교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교에서 따 간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장삼을 하오리로 만들었고, 오조 가사를 사무라이 총받이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약습니까? 처음에는 행전을 당코바지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각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발우공양을 공깃밥으로 만들었습니다. 글도 한국 사람들한테 배운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도 정신을 잃지 않고 혼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이 향을 꽂으려고 자기가 꽂아 놓은 것을 빼 버리면 그냥 뭐 야단이 나고, 물 떠다 놓고 초 켜 놓고 이래야만이 정성들이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남이 향을 켜 놓고 초를 켜 놓았다 하더라도 그 초 한 자루에 수천수만이 밝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남이 꽂아 놓은 거, 내가 꽂아 놓은 거,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 침착한 마음으로, 서로 먼저 하겠다고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정성이 지극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등이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뒷면에 영원한 밝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의 인등을 켜신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밝을 것이고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일기도 드리고 난 뒤에는 지구가 안 돌아가나요? 하하하. 백일기도 드릴 때만 지구가 돌아가고 백일기도 드릴 때만 자기가 먹고 모두 움죽거리나요? 백일기도 드리고 난 뒤에는 어떡할 겁니까? 불이 꺼져도 괜찮습니까?

이 세상 진리는 항상 밝고 항상 움죽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바퀴는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혹성, 이 별성이 모두 살아나가고 운동하는 데서 바로 에너지가 배출되죠. 그러면 아까 자석에 모든 것이 끌려와 붙는다고 얘기했듯이, 그 불바퀴는 크니까 다 붙어서 하나로 돌아가면서 바로 법바퀴가 그것을, 우리가 전력을 빼서 쓰듯이 그렇게 빼서 바로 생산을 해내는 거죠. 멸하고 생산되고 멸하고 생산되고 이러죠. 이게 바로 인간이 살아나가는 작용이죠.

이런 진리를 탐구할 생각은 안 하고 모두 남한테 기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림살이 속에 부처가 있고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어서 모든 일을, 일체 만법을 다 들이고 내고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항상 자기 집은 주인도 없이 비워 놓고 항상 남한테다가 기대면서 살고 있죠. 물질에 기대고 이름에 기대고, 그저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인가요? '요기다 놓지 않아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지나 않을까? 아이고, 요기다 놓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그래서 땀으로 뭉쳐진 종잇장 몇 개 가지곤 벼르면서, 여기 안 놓으면 안 되니까 요거 별러서 놓고 요기 놓고 조기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통스럽죠. 우리 인간이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뛰어넘는 공부를 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그렇게 끄달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종교 믿는 것마저도 그렇게 편안치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무슨 석 달 열흘 기도를 드려라, 인등을 켜라, 뭘 해라 뭘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는 절대 팔자 운명이 따로 없다. 내 생각에 의해서 팔자 운명이 붙는 거지 내 생각이 시간과 공간이 없이 돌아가는데, 공했는데 내게 팔자 운명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유전성 붙을 자리가 어딨으며 병 붙을 자리가 어딨나. 가난 붙을 자리가 어딨고 우환 붙을 자리가 어딨고, 날짜를 정해서 가지 않으면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 이러는 게 어딨느냐. 집을 짓는데 굴왕신이 내려서 집을 못 짓는다 하는 게 어딨느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지.' 왜 이렇게 패기 있게 못 나갑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도 불자며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까? 탈만 썼지 어떻게 인간이라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부처라고 보겠습니까?

보십시오. 저도요,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이 물을 먹어야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생활하는 데에 참, 배고픈 일이 너무도 많고 애처로운 일이 너무도 많고, 쓰라린 일이 너무도 많고 터무니없는 일이 너무도 많고, 여러분 사시는 데에 천차만별로 닥치는 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도 더불어 얘기를 못하는 비밀도 많습니다. 오히려 친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어도 정말, 자식한테는 털어놓을 수 없고 부모한테는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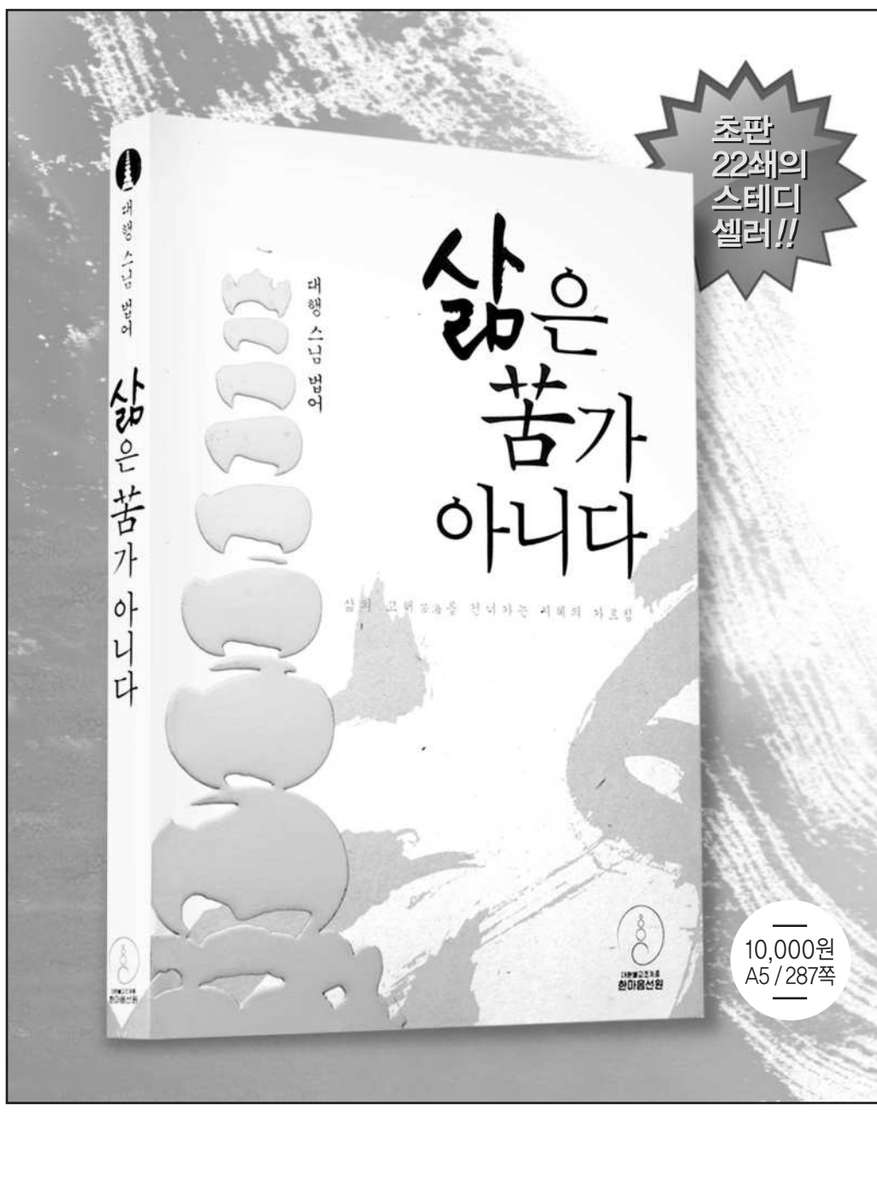
그런데 여러분의 참주인이 없다면 어떤 것도 커버해 나갈 수 없고 몸 안에서 병이 들어도 커버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 즉 속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자기와 더불어 한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몸, 한마음 말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한마음으로 문을 열어 주니까 거기서 생각할 때에 '아 참, 둘이 아니라는데….' 하고 그걸 알게 되면 죽어 가던 세포도 자꾸자꾸 살아나게끔 바로 작동을 하죠.

여러분! 어떠한 병이라도 지금 병원에서 35%는 고칠 수 있어도 그 외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바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한마음 속에서 병이 난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고칠 수 있다.' 는 믿음으로 뭐든지 거기다 맡기고, 자기는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부지런히 움죽거린다면 그게 바로 시자가 주인의 심부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다 맡기고 부지런히 움죽거려 주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이고, 그게 뭐 나발 같은 소리야! 그까짓 것, 나는 광대한 부처님 앞에 가서 빌기만 하면 부처님이 그냥 봐 줄 텐데, 뭐.' 요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여러분이 첫째는 나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을 믿고 다 맡겨야 하고 그다음에, 맡겨서 밝게 나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둘이 아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맡겨야 합니다. '나는 견성했다' 고 고개를 탁 들고 내가 나라고 이렇게 한다면 둘이 아닌 도리 공부는 글렀죠. 그리고 미해지죠. 세 번째는 둘이 아닌 걸 알았으면, 아까도 얘기했지요. '네 자식 내 자식이 둘이 아니다.' 라는 그 도리를 알았으면 고다음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개구리가 도와 달라고 그랬을 때는 개구리가 되어 한마음이 돼서 응해 주시고, 병신이 달라든 또는 못생긴 사람이 달라든 잘생긴 사람이 달라든, 부자가 달라든 가난한 사람이 달라든, 새가 달라든 곤충이 달라든 짐승이 달라든,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대로 자기가 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돼 주려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내가 작아져야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건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의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라고, 뭐가 됐을 때에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돼지, 소 이런 짐승이 됐을 때 부처라고 할까요, 사람이 됐을 때 부처라고 할까요? 그래서 '부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다.' 라는 얘깁니다. 했던 말 되하고 했던 말 되하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이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으니

☞ 30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이 세상 진리는 항상 밝고 항상 움죽거리고 있어요!

☞ 29면에서 계속

거기다가 맡겨서 실천을, 실험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 할 수밖엔 없으니 거기다 맡기세요." 이렇게 하지 내가 '기도를 하라' 뭐 '정성을 들여라' 이럽디까?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게 되니 그것이 바로 성불이며 열반이며, 구경경지에 이르러서 앞뒤가 없는 불바퀴를 넘어 참으로 영원한 밝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 경지를 얻는다면 바로 평등공법에 해당이 되고, 고 다음에는 칠보활궁공법에 해당이 되고 고다음에는 팔수레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도리천, 즉 도리천의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 모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평발이니 평손이니 평눈이니 하는 모든 것이 다 종합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 자유인이 바로 부처이자 바로 신이죠. 그냥 보통 자기를 불러도 '자신' 이러죠.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자신이 있는데 왜 타신을 믿습니까? 자신부터 알아야 타신도 둘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나는 무식한 사람이니까 "내 집부터 전화통을 놔야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도 올 수 있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이 법당에다 음식을 차려 놓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방편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떡을 해서 둥그런 그릇에 딱 담으면 그게 그냥 둥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둥그런 떡 한 그릇이 전체를 먹이고도 남는다는 뜻을 아시라고 항상 그럽니다. 내 조상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법당에 올라가시면 내 마음으로 부처든 나든 조상이든 뭐 중생이든 할 것 없이 그냥 전체 둥굴려서 지극하게 한다면 일배를 드려도 삼배, 삼정례 한 것보다도 더 많아지고 백팔배를 했다 해도 일배도 한 사이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북하면 달마 대사께서 양 무제더러 "당신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약사발을 안겨서 죽일 건 뭐 있습니까, 또. 몸이 죽어 없어진 뒤에도 바로 그 몸을 해 가지고 짚세기 한 짝은 거기 두고 짚세기 한 짝은 주장자 끝에 터억 메고서 가다가, 나라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입에서 뱅뱅 돌고 또 안 나와요.

대중 가운데서 사신.

큰스님 네, 사신이지요.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오는 도중에 딱 달마 대사를 만나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죽어서 없어졌는데도 그 모습을 다시 해 가지고 양 무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터억 보였으니 어떻습니까? 어버이라는 마음은 죽으나 사나 여러분을 아마…. 지금도 부처님이 내내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는 것이 바로 부처가 살아 계신 것이니까요.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열반하셨다 하는데 열반한 게 아닙니다. 사대가 흩어졌을 뿐이고 여러분이 또다시…,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하하하…. 그 뜻을 아실 거예요, 언젠가는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테죠.

그러니까 법당에 가시면 부처님 형상이든 어떤 물질이든 마음에 둥글려서 둘 아니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부처가 저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셔 놓은 부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한데 둘 아니게 굴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하! 방편으로 놓았든 뭘로 놓았든 하여튼 진짜 부처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진짜 부처니까요.

예를 들어서 각자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 조사들이 그림을 그려서 놓거나 형상을 조성해 놓은 것을 "이거는 사리가 없다." 그러고 선 갖다 태워 버리질 않나, 임신을 못해서 어린애를 좀 낳게 해 달라고 정성을 들이면 다기 그릇에다 손을 터억 넣어 가지고 밥을 갖다 뚤뚤 뭉쳐서 부처님 입에다 척 붙여 놓곤 "이 사람이 지금 어린애를 달라니 이거 먹고 해 주라." 그러고선 터억 하니 걸망을 지고 털럭털럭 가면서 "인연 있으면 요다음에 어린애 낳거든 또 만나자." 그랬다는 거죠. 낳아서 업고 와서 보니까 그 스님이 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부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나 그 몸이나 둘이 아닌데 그 사람이 모르고 스님들이 모르니까 방편으로 "야, 너 부처지?" "예." 자기가 대답해요, 또. "너 부처지?" 그러니까 "예." "부처걸랑 그럼 이거 먹고 해 줘." 그러고선 그냥 탁 입에다가 붙여 놓고는 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멋집니까. 참, 그 멋지죠. 삿갓 쓰고 주장자 하나 들고, 평발로서 바리때 하나 들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아무 데고 그저 내 각장 장판인 줄 알고 터억 드러누워서 편안하게 자고 먹고는 소화시키니, 똥 마려우면 똥 누고 오줌마려우면 오줌 누고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똥 누고 이러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밥 먹고 배설하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일체 생활을 하면서 생각 한번 잘하고 소화를 잘 시킨다면' 이런 소리나 똑같은 얘깁니다. 생각 한번 잘하면 먹는 것이고 먹으면 소화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먹고 소화 못 시키면 체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죠.

여러분이 불교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있는 거지 여러분 빼놓고 불교가 어딨습니까? 여러분 빼놓고 부처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부처가 어딨는지 봤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부처를 보고 믿게 되고 듣고 보고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할 것 없어요? 하치않아도 좋아요.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나는 믿으니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나는 믿어요. 머리가 발이라고 해도 믿고요, 발이 머리라고 해도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몸은 물질이고 물질 아닌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몸이 실체가 아니며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이라고 한들 어떻고 팥이라고 한들 어떻습니까? 콩이라고 생각한다면 콩인 것이고 팥이라고 생각한다면 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세계에서 그렇게 관습에 젖어서 기복에 젖어서 산다면 요다음에 몸뚱이 속에 인과응보로 뭉쳐진 것이 수없이 늘어나 가지곤, 화해 가지곤 내가 죽은 뒤에 턱하니 나와서 눈앞에 벌어집니다. 살아 있을 때도 수없이 자꾸 파워를 일으키고 자꾸 입력됐다가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데, 죽어서도 고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냥 크게, 요만한 벌레도 크게 돼 가지곤 눈에 다 보이니까 한 발짝도 못 들어서요. 자기가 인연 지은 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머릴 풀어 산발을 한 사람으로 나오죠, 벌레로 나오죠, 짐승으로 나오죠, 독사로 나오죠. 모두 그렇게 나와서 늘비하게 널려 있으니 그 길밖에 없는데 한 발짝이나 떼어 놓을 수 있겠어요? 그거 이해가 안 가시죠? 그게 일 단계예요.

이 단계는 뭐냐? 여러분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죠. 일 단계에도 뛰어넘는 거지만 그것도 마음으로 뛰어넘으면 될 것을 내가 항상 의식으로 물질로다가 아주 관습이 됐기 때문에 젖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배가 와야 건너가지 내가 그냥 어떻게 건너갈 수 있나? 빠져 죽지.' 이런 생각으로 영혼들이 그냥 주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때요? 거짓말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나 가톨릭교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여기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저 강을 건너가서 우리 같이 만나자. 같이 건너가자.' 하는 거죠. 그러니 죽어서도 고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글쎄, 배가 올 때를 기다리니 오백 생을 기다리면 옵니까? 그러니 천도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은 요새 그러한 도리를 배우니까 좀 아시겠지마는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걸 몰라서 그저 요런 거 하나 조런 거 하나 일일이 따지고 덤비고 그냥 먹으려고 하고 그랬겠죠.

또 그뿐입니까. 아까 불바퀴라고 얘기했죠. 통로인 거기를 마저 뛰어넘어야만이 우리가 이름해서 성불이라고 하고 또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영원히 끝 간 데 없이 밝음을 얻으리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 죽을까 봐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타 죽을 몸이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다는 거죠. 의식이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했으니 놔라, 놔라! 쉬어라! 놔라!" 그냥 수없이 그러셨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냥 어린애도 돌보지 않고 남편도 돌보지 않고, 또 남편은 부인을 돌보지 않고 만날 백팔배나 하고 염불이나 하고 경이나 외우고 구석방에 들어가서 염하기나 하고 이래야만이 불교 공부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인제는 좀 놓으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살림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아니, 지금 애들이 학교에 나가고 남편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냥 먹거나 말거나 "얘들아, 여기 차려 놨으니 먹어라." 그러곤 그냥 홱 나가야겠습니까? 훤해요, 아주! 허허허. 그거 오손도손 밥 먹고 오손도손 얘기하고 오손도손 친절하게 참, 말을 해서 내보내면 그날 일도 잘돼요.

그런데 자기 일 보느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입니다. 그게 바로 애정에 굶주린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나가죠. 중학생쯤 되거나 고등학생쯤 되면 잠잤던 것이 바락바락 일어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잘못되는 거를 누구한테다 항거를 합니까? 하다못해 시장을 가더라도 참, 애들이 들어오거나 남편이 들어온다면 "내가 지금 당신 좋아하는 거 사러 시장에 가요." 한다든가, 애들한테도 '나 이렇게 갔다 올 테니 너희들 냉장고에서 요런 거 꺼내 먹고 있어. 기다려. 참 사랑해.' 하고 요렇게 써서 냉장고 문에나 붙여 놓고 뽀뽀 한번 해 놓고 가면 이탈될래야 이탈될 수가 없지요. 그건 떠다밀어도 안 되죠. 아주 접착제로 붙어 있듯이 고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로 이탈이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서로에게 있으니 누구에게 탓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자식들한테나 아내한테나 아무리 바깥에서 피곤하고 그렇더라도, 남자는 가슴이 넓지 않습니까? 넓어서 넓은 게 아니라 남자니까요. 못났든 잘났든 내 아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그저 아내가 늦게 들어오거나 이러더라도 이해해 주고 "여보, 밥이나 먹고 다녀? 배고프지 않아? 내가 꺼내 줄까?"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고만 그 하루 동안 고통받았던 게 싹 씻어지죠. 말 한마디에 구덩이에서 빠지느냐 구덩이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여러 가지죠.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을 '저 스님이 불교는 말 안 하고 별말을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는 게 불교니까요. 돌 하나도 불교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은 전부 부처가 돼서 질문이 하나도 없군요. 하하하. 한 시간이 넘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인연이 돼서 여기에 지원을 내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천백억화신으로서 보살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둘째는 그 작업을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건강도 되찾을 수 있으며 또 가난도 소멸시킬 수 있으며 또는 가환, 우환, 될 듯하면서도 안되는 그런 모든 가환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그 모든 것이 입력된 도청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중 예.

큰스님 우리 이 자리에서 서로 한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만…. (대중 박수)

※위 법문은 1991년 8월 11일 울산지원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빼놓고 부처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부처가 어딨는지 봤겠습니까?

부적기름의 혁명

松 송 根 근 油 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봉침교육 숙박휴양

건강힐링캠프
[경기도 양평]



원장 천범석

암환자 전문 요양소
수 시 건 강 상 담
유기농 죽염식단

황토 통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